기존 동판기와보다 10배나 두꺼운 동주물기와는
한번 시공으로 300년 이상 연장합니다
대원동주물기와 ☎(02)739-8745/735-2344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부자가 오히려 조존금리로 내릴때는 약정금리로!
목돈마련 주택자금,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예금주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3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4월 1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의리없는 사람을 피하고
어리석은 이는 가까이 말라.
〈법구경〉

법회 안내

정토포교원 (02)737-0853
일국인법회 매월 셋째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4시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대학생법회 매주 월 오후7시
청년정토법회 매주 수 오후7시
보살님법회 매주 수 오전10시
거사림법회 매주 금 오후7시30분
정토불교대학 매주 화, 목 오후7시30분

선운사 (02)993-3065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자장법회 매월 18일(음)
방생법회 매월 8일(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학생법회 매주 일 낮12시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관당 천은정사 (0342)701-0770
정기법회 매월 1~3일(음)
지장기도 매월 15~18일(음)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소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성지순례 매월 30일(음)

광명 금강정사 (02)893-270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중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3시
고등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5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일반신도법회 일 오전10시30분
호법법회 매월 첫째 수 오전10시30분

고성 옥천사 (0556)72-0100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중·고등부법회 토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낮12시
미타회법회 매월 15일 오전11시

완효사 포교원(0416)55-2551
어린이성불회법회 일 오전10시
룸비니불교학생회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문림불교학생회법회 매주 일 오전9시
공주불교청년회법회 수 오후7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은행지로
3054464

3개 지방 佛放 추가 인가 '청신호'

월주스님 "공약이행" 요구 呉공보처 "긍정검토" 답변

불교방송의 3개 지방 네트워크 추가 확충계획이 마지막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불교방송을 포함한 평화방송·극동아세아방송·기독교방송의 지방망 및 중계소 추가 인가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92년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사항인 만큼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말 행정쇄신위원회가 MBC의 민영화문제를 다루면서 방송매체의 형평을 고려해 종교방송의 지방국확충을 건의하고 이를 받아 공보처 산하 '선진방송자문위원회'가 다시 '지방과방송 발전 5개년 계획'을 선안해 이를 청와대에 보고함으로써 구체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관련, 행쇄위 고위관계자는 최근 "불교방송 지방국 확충문제는 청와대에서 직접 다루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안다"고 밝혀 이 문제가 고우층에의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오인환 공보처 장관은 지난 11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월주스님이 요구한 '대선공약이행'에 대해 '성의를 다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불교방송의 지방국 확충문제는 지난 92년 대선에서 민자당 후보였던 김영삼대통령이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또는 청주)에 지방국을 인가하겠다"는 공약을 함으로써 교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것인데 정부는 그간 부산·광주 두 곳만을 인가, 오는 6·27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공약 추가 실천 여부가 주목되던 과제였다.

이에 대해 불교방송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직 정부로부터 아무런 언질을 받은 바 없으나 이미 3개국 추가 개설을 위한 기초작업을 마무리지었으며 곧 정부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남북불자 접촉승인

통일원 조계종 총무원 초파일 공동법회추진

통일원은 조계종 총무원이 요청한 북한 주민접촉을 지난 12일 승인했다.

통일원은 날짜가 급박해 판문점은 불가하므로 제3국에서 5월말까지 접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총무원은 이에따라 5월 7일 남북불교공동법요식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본 중국 미국등 제3국의 루트를 통해 4월중 조선불교도연맹측과 접촉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총무원은 지난달 25일 박태호 위원장 등 조불련 관계자와의 접촉요청서를 3월 25일 통일원에 제출했다.

"종단개혁 정신 계승 천명"

4·10기념 대법회·토론회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 계승대법회 행사추진위원회(상임대표 창화스님)는 지난 7일과 10일 조계사에서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를 위한 대토론회'와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 계승대법회'를 각각 봉행했다.

3.29법난과 4.10전국승려대회 1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와 대법회에서 추진위원회는 종단개혁정신의 계승발전을 교계내외에 천명했다.

혜암스님(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등 사부대중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법회에서 혜암스님은 법어를 통해 "종단발전과 불교 자주화는 자체 정화와 이익중생, 부처님의 계율을 엄숙히 지킬 때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선학원 정관개정 재요구

3개항으로 축소…6월15일까지 답변촉구

조계종 선학원 대책특위(위원장 법등스님)는 지난 13일 회의를 갖고 선학원에 정관개정을 3개항으로 축소해 다시 요구, 6월 15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촉구 하기로 했다. 조계종이 요구한 정관변경은 △제3조 목적에 '대한불교 조계종 종지를 봉대하고' 삽입 △제6조 임원선출에 '대한불교 조계종 재적 승려중에서 선출한다' 삽입 △제32조 잔여재산의 귀속조항에 법인해산후 잔여재산은 '대한불교 조계종에 귀속한다' 삽입 등이며 특히 제6조 임원선출에 있어서는 재적이사중 3분의 1은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학원을 조계종의 '별도교구'로 인정 중앙종회 참여와 함께 분담금 납부등 교구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담당케 하는등 자율권을 인정키로 했다.

"선학원, 분리 반대"

설문조사 결과 56%

한편 이날 특위는 그동안 실시한 선학원 소속 조계종 스님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응답한 수는 총 116개(참선분원장 41, 분원장 30, 포교원장 19, 기타 13, 무응답 13)로, 조계종과 선학원이 각각 독자적인 길을 가야한다(35%) 보다는 정관개정을 통한 긴밀한 관계유지(22%) 조계종의 특별교구화(34%)로 응답, 반 이상이 조계종과 선학원이 분리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계종의 선학원 정관개정요구에 대한 선학원의 불가방침에 대해 '종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다(38%)가 올바른 결정이다(33%)보다 높게 나타났고 정관변경불가 결정이유에 대해 '일부 스님들의 기득권 유지'가 23% '조계종단의 추지는 이해하나 너무 일방적 요구(43%)' 등으로 나타나 지난 해 12월 조사된 선학원의 「분원장회의 여론조사」 응답과는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다.



◇ 지난 7일 롯데호텔에서 중앙승가대 육비를 위한 발전위원회 창립법회가 열렸다.

"중앙승가대 발전 全불자 동참 호소"

7일 창립법회서 3억원 모금…목표액 691억원

'얼마를 씨아 할꺼'

지난 7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앙승가대학 발전위원회 창립법회에는 교계 내외의 인사와 중진스님 등 1천여명이 참가, 거듭나는 중앙승가대의 행보에 격려의 마음을 모았다. 이날 법회에 참가한 인사들은 즉석에서 3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발전기금의 기부를 서면으로 약속했다.

중앙승가대 발전위원회 위원장 월주스님은 이날 행사에서 "중앙승가대를 통해 불교학자를 육성하고 수행관을 건설해 참다운 승가 엘리트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원장 송산스님은 "불교계의 숙원사업인 세계적인 불교대학으로 육성하는데는 2천만 불자의 헌신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전위원회 창립법회를 계기로 중앙승가대(학장 송산스님)는 정규대 승격을 위한 학사이전 등의 당면과제 풀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규대 승격의 선결조건으로 학사이전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중앙승가대학은 다음달 5만 4천여평 규모의 갈포 금정사 부지에 새 학사 신축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승가대는 96년 2월말까지 새 학사를 법정기준에 맞게 설립, 교육부로부터 정규대로 승격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갈포에 설립될 새 학사에는 강의실, 수행관(기숙사) 각2개동, 선수행관, 대학본부동 10개 건물이 들어선다.

학과도 97년 여경학과 불교사학과를 비롯 연차적으로 문화재관리과, 불교미술학과 등을 계속 신설해 정규대학교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캠퍼스 이전불사에 소요될 총 6백 9십1억여원의 재정확보가 가장 큰 관건으로 남아 있다.

발전위원회를 구성, 발전기금을 모금하는 방안외에도 중앙승가대는 종단차원에서의 사찰분담금 부과, 신촌봉원사 부지매각(종회 의결사항), 대기업체 참여 유도, 학교운영을 위한 직영사찰 운영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국의 불자들이 중앙승가대 발전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 중 성직자를 배출하는 대학이 약 43개교 7845명, 불교는 전체 대비 학교비율 4.65%(2개교), 입학정원 대비 1.95%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중앙승가대의 정규 대승격과 새로운 위상제고는 하루 속히 성취돼야 할 숙원사업이다.

〈도필선 기자〉

목어

안호상씨의 입북

"나라에 현묘한 도기 있으니 風流라 한다. 불교·도교·유교의 사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그로써 뜻 생명을 교화한다." 이것은 최치원 선생이 찬술한 난랑비의 서문에 나오는 글이다. 단군을 숭배하는 가르침을 풍류라 했으니 풍류란 밝음을 의미하는 이두식 표기라 한다.

요즘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의 총전교와 종무원장이 입북한 사건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 정부의 허락도 없이 비밀리에 입북한 사실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대남고란 전술에 대종교가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흑평하고 있다.

입북한 대종교의 총전교 안호상씨는 "7천만 민족의 대동단결과 남북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 부득이 취한 행동"이라 주장했다고 전한다.

남북의 종교가 어떤 식으로든지 대화의 창구를 열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50년 가까이 고착화된 분단으로 이질화되기 시작한 민족성을 동질화시키기 위해서도 남북 종교간의 폭 넓은 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봉봉뜻이 중구난방식의 대북접촉이 되어서도 안되리라 본다. 또한 특정 종교의 정치적 대화도 안되며, 정치적 책략에 이용되어서도 곤란하다. 한민족의 통일과 항구적 발전이라는 대명제만이 필요하다.

대종교는 단군신화에 나오는 桓雄崇拜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있다고 한다. 세상의 인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 '권계없는 무엄이 없다'는 속설을 새삼 되새겨 보아야 하리라.

세계의 자원을 우리의 자원으로
석유에너지의 미래를 개척하는 한국석유개발공사





「우리의 손으로 석유를 생산한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자본과 기술로 개발된 석유가
바로 우리산업과 생활에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개발공사가
1979년 발족이래, 10여년 동안
고집스럽게 힘 쏟아온 집념의 결과입니다.
균형있는 에너지공급으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안정되게 지키려는
우리의 꿈은 크고 원대합니다.
밖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유전개발 참여로
세계의 자원을 우리의 것으로 창출해 내며
안으로는 대륙붕 탐사로 '산유국의 꿈'을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밝은 미래를 위한 개척정신-
한국석유개발공사의 정신입니다.

Pedco
한국석유개발공사
Korea Petroleum Development Corporation

사 설

동체정신으로 재활복지를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 평소에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했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장애인들을 쉽게 만난다. 지하철, 버스, 기차 등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다보면 거의 매일같이 그들의 삶을 위해 동정을 호소하는 애절한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지나쳐 버리기 일쑤이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수는 1백50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약 5백만명 정도는 충분히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유엔이나 국제보건기구에서 연구, 조사한 장애인 출현율은 세계인구의 약 10%로 추정된다. 특히 현대 산업사회는 인간 소외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갈등이 심화되고, 정신 지체자들이 크게 늘고 있어서 그 심각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자비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불교계가 이렇게 심각한 장애인 복지에 너무나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니면 관심은 많지만 보살도의 실천이 부족해서인가?

장애인의 재활이나 요양에 필요한 복지시설로 불교계가 운영하는 종합복지관이나 재활원은 10여개에 불과하고, 장애인을 위한 불교 후원단체도 두 곳 뿐이다. 이는 기독교나 천주교 등 타종교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비교할 수 조차 없는 열악한 현황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밝힌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 시설이 모두 2백여개소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불교계의 시설은 약 5% 정도일 뿐이다.

따라서 교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급히 세우길 촉구한다.

첫째,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을 비롯하여 모든 종단들은 장애인의 포교를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그들의 교육 및 복지시설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얼마 전 TV에서 보니까 어느 저능아 수용시설에서 밥먹기 전,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었다. 매스컴의 편파보도 측면도 지나쳐 버릴 수는 없지만 우리 불교계가 이러한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포교에 소홀히 했던 점을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및 훈련, 요양을 위한 포교를 담당할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현재 종립 동국대학교나 중앙승가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학과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과 종단차원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등을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범불교적인 장애인포교 대책위원회와 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 복지기금을 마련하고 재정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실제로 부처님의 사상과 정신에 입각해 보면 장애인 복지사업을 비롯한 사회구제사업은 불교의 제 1차적 불사라고 할 수 있다.

법당을 크게 짓고, 탑을 높이 세우는 불사도 필요하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중생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보살도의 실천이 대승불교의 근본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 장애인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불자들은 장애인들과 고통을 함께하는 자비정신을 발휘하여 장애인 포교에 등불이 되자.

현 대 만 평 박 구 원



장애인에게 빛을…

열린마당

장애인 포교

소외받는 이들 감싸는 일 불교도 사명
특수 시설 법당 지역마다 설립 되어야

원 상 스님



〈화엄경〉 여래출현품에 "일체중생에게는 여래와 같은 지혜덕상이 본래 갖추어져 있으나 다만 망상 집착 때문에 속박이 있다. 만약 이를 여의게 되면 부처님의 일체지·자연지·무애지가 현전하리라" 하였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은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보이시고 증득케 하고자 함이니 반야바라밀다의 심오한 바른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게 널리 전파시켜 모든 중생을 요익케 하는 것은 불제자의 사명이다. 특히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포교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자비의 종교라 하여 미물중생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불교가 그동안 갈 곳이 없거나 의지할 데가 없는 외롭고 병들어 소외된 자들에게 소홀하고 냉대했음을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새삼 장애인 포교의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첫째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설을 갖춘 법당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개인의 원력으로 장애인포교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종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방법은 수많은 사찰 가운데 지역별로 하나씩만이라도 장애인 특수법당으로 지정해 사용케하는 것이다.

둘째는 일반대중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핑안을 보면 재수가 없다느니, 혹은 지체장애인을 무슨 전염병 환자처럼 여겨 회피하거나 꺼려함이 없어야겠다.

선천적으로 신체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장애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즉 후천적 장애인들이 요즘에는 더욱 많다.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을 유별난 시선으로 본다거나 특별한 대접을 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그들 나름대로 갖고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게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마음의 장애를 앓고 있는 동업중생이다. 장애인을 물질적으로 도와줄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과 애정을 나누는 도반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 장애인 포교는 활성화 될 것이다.

〈혜광맹인불자회 지도법사〉

교계 수용시설 불과 10여곳… 확충절실
동정보다 부처님 통한 자유찾는 길을

방귀희 법사



불교계는 아직도 장애인포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장애인 수용시설면에서도 타종교의 장애인 수용시설이 70여개가 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교계의 수용시설이 10여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도 그동안 장애인들에 대한 포교의 현황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대상으로서의 포교가 아니라 '일체중생 실유불성'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불성을 지닌 동등한 존재로서 장애인을 적극적인 포교의 대상으로 삼아달라는 것이 장애인들의 희망이자 요구사항이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도 자신의 삶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장애다 정상이다 하는 분별심을 떠나 장애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세상에는 육신은 성하지만 마음이 비뚤어지고 비정상적인 마음의 장애자들이 더 많다.

비록 육체적인 장애로 생활에 불편함은 있지만 그 마음만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불심으로 가득한 장애인 불자들에 대한 종단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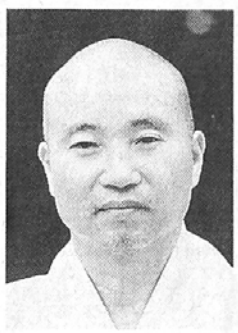
당장 어떤 가시적인 관심보다는 진정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불교계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감상적 동정보다는 장애를 보완하는 구체적인 방법의 모색이 불교를 통해 제시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한국장애인문인협회장〉

시 론

'참 일꾼' 뽑는 감시자 되자



법 산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부처님의 법 안에서 세상의 모든 일을 상황에 따라 적용하며 대중을 유익하게 할 수 있으며, 부처님의 실상묘법을 수행하고 체득하고 사회 대중을 위하여 회향하는 것이 불제자의 의무이다. 따라서 불교는 사회의 상황변화에 재빨리 적응하고 대처하여야만 마니보주의 불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당시 인도사회의 모든 상황과 변화를 잘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여 교화하였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부처님의 설법이 당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수기설법(隨機說法 수용능력에 따라 설법)'이라 하고, 부처님의 처신이 사회를 적절하게 지도하였으므로 '수류응신(隨類應身 계층에 따라 알맞게 처신)'이라 한다.

불교가 근본법인 불변의 진리에서는 실상상주(實相常住)가 원칙이지만, 교화법인 수연(隨緣)의 방편에서는 다양한 적응을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무소유나 무소득의 의미는 아만과 고집을 버리고 시기와 편견을 떠나 보편적이고 타당성있는 자유평등의 반야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불자가 부처님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해 개혁의 바람으로 불교계에는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지만, 아직 타성과 편견으로 고정관념의 껍질을 깨뜨리지 못하는 출가나 재가불자들의 두께가 두툼하게 남아 있다.

대중에 유익한 역할 찾기

이제 불교는 정부의 시녀노릇도 그만해야 하며 타종교의 비아냥도 그만 받아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 사회적 역할을 상기하는 불자라면 어찌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할 수 있겠는가.

한국불교의 범종단연합체인 종단협의회에서는 현실사회의 제 문제에 대한 대책과 실용적이고 타당성있는 방안을 연구수립하여 전국불교의 한 목소리와 하나의 모습이 국가사회의 발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불교의 종가집이며 대명사격인 조계종은 개혁사업이 순조롭게 되어가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당면과제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정책과 21세기 불교발전을 위한 연구가 보다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혁과정에서 부정과 결탁에 연루되어 불교의 면모를 망가뜨린 조계종 전국신도회가 해체되어 있으나 이후 신도회도 없는 종무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목전에 닥친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불교신도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물론 각 사암의 주지스님들의 시선이 크게 주목되겠지만, 이대로 무심히 앉아서 볼 수 만은 없는 일이다.

총무원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도조직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기초 사찰의 신도조직을 필두로 각 행정단위별 사암연합회 및 신도연합회를 구성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조직이 곧 중앙으로 연결되며, 나아가 종단협의회에 모아져 한국불교의 총합체를 이루어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감시와 계몽에 앞장 서야할 것이다. 또한 기회주의적이고 정실에 치우친 인물보다 공정하고 덕행이 원만한 인사가 당선되도록 지도하는 적극적 모습을 보인다면 극성스런 타종교의 횡포와 정치적 억압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옥석가려 사회정의 실현

근래 젊은 불자들이 불교의 새로운 대사회적 대응을 모색하는 각종 모임으로 사회단체를 구성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참 제자 노릇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아직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는 불교의 오랜 관행이 이들을 수용하거나 뒷받침 하지 못하는 점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이번 실시되는 지자제선거에서 불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미래 한국불교가 지방화시대의 주역이 되느냐, 사회의 뒷전으로 밀려나 종전보다 더 낙후되느냐의 기로에 섰다고 본다.

불교계의 발빠른 변신과 행보만이 불교의 앞날을 예측해 줄 것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덤벼들라는 것은 아니다. 선정으로 이성을 찾고, 지혜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다.

앞으로 연속 닥쳐올 각종 선거와 제도의 변화에 대비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각계의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종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준비하지 않은 초목은 겨울을 견디고 봄날에 화사한 꽃을 피울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따라서 각 사암의 신도단체와 승가의 단체, 그리고 환경·지자제선거·교통문제·통일·경제 등 각종 사회단체는 부처님 정신을 현실속에 구현하여 대중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그러므로 현실정토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사회적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는 것이 절실히 요망된다.

공사상이 그냥 있으라는 것이 아니요, 자비사상이 멀거니 당하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적적(寂寂)의 선정은 엄정을 의미한다면, 성성(惺惺)의 지혜는 밝은 판별을 의미한다. 옳고 그름에 옥석을 가려 사회정의를 실현케 하는 불교가 될 때 불국정토 실현의 날은 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6월 실시되는 지자제는 불교인의 사회정의감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담 화 문

— 4. 10, 1주년을 맞이하여 —

2천만 불교도와 국민 여러분!

4.10 승려대회가 치뤄진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종단은 참으로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사람들이 불교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때, 우리 불자들은 현실에 절망만 하지 않고 보살의 원력으로 일어서서 어려운 종단 현실을 새로운 문명을 제시하는 불교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은 다른 10년보다 더욱 알차고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작년 4월 10일의 승려대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범승가 종단 개혁 추진회'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제방의 납자들과 학인 스님들, 신심으로 굳게 뭉친 불자들이 함께 모여 온갖 어려움을 딛고 새 불교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원로 스님들의 용단과 지지는 불교개혁을 이루는 데에 가장 중요한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사부대중은 종단의 민주적인 운영, 불교의 자주화를 염원해왔으며, 사회의 문제를 외면해온 운둔적 수행가풍에서 탈피하여 역사와 사회의 주인이 되는 불교이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염원의 총화가 조계종 개혁회의로 그리고 현재의 종단으로 건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혁회의는 종단의 바람직한 미래상 설계에 전 종도의 참여를 유도하며, 그에 부응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개혁회의가 더욱 값진 평가를 받는 것은, 스스로 획득한 종단 운영권에 안주하지 않고 전 종도들의 뜻을 받들어 종단 운영권을 이양하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8개월의 한시적인 시한은 사실 제도개혁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에도 벅찬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개혁회의는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종헌과 종법을 바꾸고 만들어 민주적인 종단운영의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개혁회의가 출가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그를 출범시킨 4월 10일의 승려대회가 있었기 때문이며, 정말로 순수하게 불교와 종단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개혁회의를 둘러싸 외호하고 성원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종단은 전 종도들의 뜻이 담겨 있는 합법적인 선거 절차를 거쳐 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개혁회의가 일구어 놓은 제도적 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친애하는 불교도와 국민 여러분!

현재의 종단은 결코 개혁회의의 성과를 그냥 받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혁회의가 개혁의 기초를 닦았다면, 현 종단은 개혁의 완수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범종추로 시작하여 승려대회로 고양된 개혁의 열기를 제도의 틀에만 가두지 않고 종단을 바꾸고, 불교를 바꾸고, 나아가 우리 불교가 서있는 사회현실을 바꾸는 힘으로 이끌 것입니다.

종단의 해묵은 문제와 교육, 역경, 사회복지, 가람불사 등 현안 과제를 차분히 풀어나가고 근본적인 종도들의 의식 개혁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종단이 펼치고 있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도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향도하는 의식개혁의 하나인 것입니다.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마음의 근원을 깨닫기 위하여 수행정진하면서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과 민족과 인류와 자연이 나와 하나임을 알고 자비심으로 이타적인 보살행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믿음과 실천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전 불교도들이 앞장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민족의 소망인 통일을 위해 앞장서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생태계를 지키고,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여성, 어린이,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켜가는 불교가 되는 것이 깨달음의 사회화입니다. 이것이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는 불교의 역할입니다. 인간존중의 부처님 가르침을 이 사회에서 생생하게 되살려내는 불교야말로 대립과 분열로 가득한 인류를 지키는 보루요, 파수꾼인 것입니다.

2천만 불교도 여러분!

종단 내적으로는 별원으로 승격한 교육원과 포교원의 활동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청정한 수행가풍을 진작하는 과제는 잠시도 늦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육불사의 과제가 올 한해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스님들을 육성하는 문제는 몇몇 개인이나 사찰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모든 불자들의 원력과 정성이 모여야만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승가대학 이전이 원만히 회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되는 과제를 종단이 바로 행한다면 4.10의 열기는 종단을 지원하는 굳센 힘이 될 것이지만, 혹시라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엄한 감시와 채찍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4.10 승려대회 1주년을 맞이하여 개혁불사를 더욱 힘차게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사부대중 모두에게 드리며,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불조(佛祖)의 가피가 항상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39년 4월 10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⑫

땅 되살리기

부처님은 상응아함경에서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수행자 또는 성직자들일지라도 땅의 세계(苦)를 알고, 땅의 세계(苦)의 원인을 알고, 땅의 세계(苦)의 소멸을 알고, 땅의 세계(苦)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알면, 수행승들이여, 그들 수행자 또는 성직자들은 나에게 수행자로서 올바른 수행자이며, 성직자로서 올바른 성직자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미시적으로 땅, 물, 불, 바람과 생명현상의 상호의존적 연기관계로 이루어진 거시적인 땅의 본질에 관해 살펴보았고, 또한 그러한 땅이 어떻게 인과적으로 다른 거시적인 땅, 물, 불, 바람 및 생명현상과 관계를 맺고 생성되는가를 공해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땅의 세계(苦)는 그 미시적 세계와 거시적 세계가 공진화하면서 잘 조화되어 가지만 본질적으로 무한한 생명공동체가 살고있는 생사고해의 세계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엄청난 것은 현대산업사회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토양의 산성화, 원시림의 파괴, 사막화, 폐기물오염 등으로 조화로운 땅의 세계(苦)를 파괴하고, 생사고해의 땅의 세계에 인간의 탐진치 삼독을 더하여 불모의 땅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땅의 세계(苦)의 소멸과 땅의 세계(苦)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찾아보아야 할 때이다.



◇인간의 탐진치 삼독이 불모의 땅을 만든다. 그러나 자연과 인간은 공동생명체이기에 공존할 수 있는 자비스런 해결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인간탐욕 줄이고 자원 재활용 긴요
유기농법 확대·쓰레기 감량 바람직

경전에 의하면 땅의 세계의 소멸이란 있는 그대로의 땅의 세계(苦)를 지혜로서 통찰해서 그 괴로움을 알아서 원리(遠離), 이탐(離貪), 지멸(止滅) 시키는 것이다. 땅의 세계(苦)의 소멸로 이끄는 길은, 소멸이란 완전한 조화 궁극적으로 열반을 의미하므로, 쉽게 말하자면 과거 수많은 겁을 통해 우리 자신이었던 땅이라는 생태공동체를 되살려 조화롭게 하는 자비스러운 방도를 점진적으로 모색하는 데 있다.

첫째, 토양의 산성화와 중금속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인 대기오염을 줄여서 산성비의 피해로부터 토양을 보호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방도가 있을 수 있다. 예를들어 가정이나 회사에서 난방온도를 조금씩 낮추거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거나 자동차를 덜 사용해서 산성비의 원인인 유황이나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퇴비를 사용해서 점차 유기농법을 확대해 감으로써 농토의 산성화를 줄여나가야 한다.

둘째, 원시림의 파괴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맞서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천적인 목재소비를 줄여나가고 나무를 많이 심는 일이다. 특히 열대림의 활엽수로 만든 가구, 목재, 합판 등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하며, 신문, 잡지, 서적 등의 종이류는 재생해서 사용해야 한다.

셋째, 토양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방지를 통한 기후의 안정화, 원시림 벌채의 중지, 초원지대의 과방목·과경작의 중지와 지하수의 보호, 그를 위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등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넷째, 토양의 폐기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통한 각종 쓰레기나 폐수의 방류를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독성이 강한 산업폐기물이 철저히 제거되어야 하며 야산이나 강, 호수에 무단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곧 땅의 세계(苦)의 소멸, 즉 적멸을 위해 노력하는 길이다. 그리고 땅의 세계의 본래적인 생사고해는 끝없는 무한편만의 자비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의 땅의 세계(苦)에 대한 수행자로서의 올바른 수행자의 길이며 성직자로서 올바른 성직자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틱낙한 스님 본사 초청 특별대담

19일 고은 논설고문과 함께



◇틱낙한 스님



◇고은씨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베트남의 세계적 불교지도자 틱낙한 스님은 한국에서의 바쁜 일정 가운데 19일 현대불교신문사 논설고문 고은씨와 특별대담을 갖는다.

대담에 앞서 틱낙한 스님이 현대인을 위해 구체적으로 구성한 오계를 통해 스님의 가르침을 살펴본다.

틱낙한 스님의 오계

하나 무릇 생명의 파괴로 비롯되는 고통을 자각하고,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광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나갈 것을 서약합니다. 나는 나의 생활이나 생각속에서도 살생하지 않으며 남으로 하여금 살생케 하지 않으며 이 세상의 어떠한 살생 행위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 착취와 사회적 불의, 도둑질이나 억압으로 인해 비롯되는 고통을 자각하고,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광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고 자애로운 마음을 키워나갈 것을 서약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힘과 물질적 재원을 곤궁한 이들과 나누는 관용을 베풀 것을 서약합니다. 내 것이 아닌 그 어떤 것도 훔치거나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되 인간의 고통이나 지구상의 다른 생물의 고통으로 부터 이익을 구하는 이들을 저지할 것입니다.

셋 음행으로 비롯되는 고통을 자각하고, 개인과 부부와 가족과 사회의 안전과 온전함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책임감을 키워나갈 것을 서약합니다. 나와 남의 행복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의 언약과 남의 언약도 존중할 것입니다. 어린이들

"생각속이라도 살생하지 말라"
기쁨·행복주는 진실한 말 나누도록

을 성적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부부와 가족이 음행으로 인해 깨어지는 것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넷 거짓된 말과 남에게 귀기울이지 못하므로서 비롯되는 고통을 자각하고, 남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진실된 말과 성실히 듣는 법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자신감과 기쁨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말로 진실되게 말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실을 퍼뜨리거나 확신할 수 없는 일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화나 분열을 야기시키거나 가족이나 지역사회를 깨뜨릴 수 있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모든 갈등을 화해하는 데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섯 무절제한 소비로 인해 야기되는 고통을 자각하고 조심스럽게 먹고 마시고 소비함을 실천하여 자신과 가족과 사회를 위해 심신양면의 건강을 키워나갈 것을 서약합니다. 나의 몸과 의식 그리고 가족과 사회집단의 의식에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보전해 주는 것만 섭취할 것을 서약합니다. 술이나, 취하게 하는 어떠한 것도 사용하지 않으며 음식, 일부 TV프로그램, 잡지, 서적, 영화, 저속한 대화처럼 독소를 지니고 있는 것들은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독소들로 내몸과 의식을 손상시키는 것은 나의 조상과 부모, 사회와 미래의 시대를 배반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신행수첩

첫발심이 바른 깨우침
부루나포교원 교리 강좌

인천지역 불자들의 불교교리 교육과 소양함양을 위한 기초교리강좌가 개설돼 주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90년 가을학기부터 불교교리대학을 개설한 부루나 포교원(원장 선일스님)이 18일부터 3개월과정 제10기 수강생을 모집하며 강의는 매주 수·목요일 오후3시,저녁8시 두차례 실시한다. (032)576-9741.

나이 잊은 새삶 새출발
설산스님 합동결혼식 마련

우리 주위에는 집안사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봄빛이 완연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15년동안 3백여쌍에게 주례는 물론 결혼비용 일체를 부담해 온 백련사 설산스님(한국불교사회봉사회 회장)이 5월1일 오후 1시 중구 구민회관에서 제2회 무료합동결혼식을 마련해 준다.

설산스님을 비롯 한국불교사회봉사회 회원불자들의 원력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료합동결혼식은 20대부터 60대 노인부부들까지 포함돼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동참해 새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일 것이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불자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좋은 인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 또한 이번 무료합동결혼식에 많은 불자들이 참석해 따뜻한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보자. (02)303-0025.

구도로 꽃피우는 부부애
삼천사 오대·치악산 순례

노오란 개나리가 한껏 멋을 내고 그 옆으로 시샘하듯 붉은 진달래가 자리한 사랑스런 이 봄날.

그 개나리 진달래 만큼이나 아름다운 부부불심을 뽐내는 자리가 마련됐다. 삼천사 부부가족법회는 봄을 맞아 성지순례구도법회를 떠난다.

오는 22일~23일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법회는 오대산 적멸보궁에서의 철야정진을 시작으로 중대사, 상원사, 월정사와 치악산 구룡사를 참배하며 구도애의 열정을 꽃피울 예정이다.

따뜻한 봄날 법향 가득한 산사에서 불심으로 하나되는 부부애를 다져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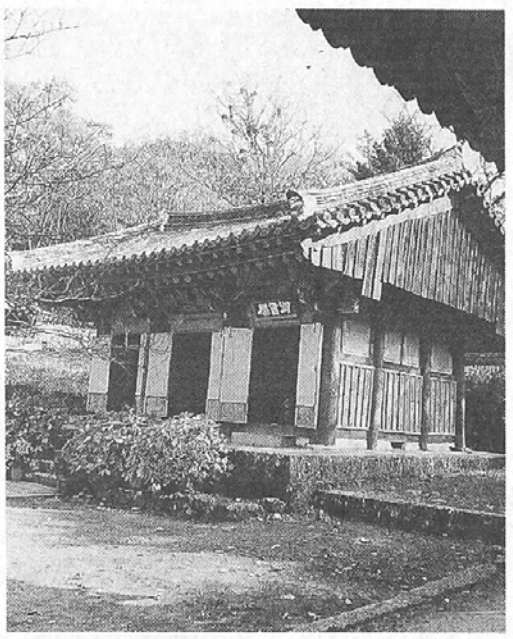
(02)359-7766.

서산대사 충혼 그윽
대둔사 나라사랑 글짓기

왕벚나무와 질붉은 동백꽃이 온산에 피어나는 화창한 봄날, 해남 대둔사(대흥사)에서는 오는 25일 서산대사 탄신 475주년기념 제1회 나라사랑 글짓기대회가 열린다.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나라와 향토사랑의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개최되는 이번 글짓기대회는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전10시 서산대사 유물관 앞에서 실시된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일으켜 공을 이룩한 서산대사를 기리는 뜻깊고 알찬 글짓기 대회에 동참하여 대둔사 동백꽃의 그윽한 향기를 맡아보자.

(0654)34-5502.



◇대둔사 표충사 사당. 서산대사의 위덕과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자들이 1669년에 건립했다. 현판은 정조대왕의 친필.

불자마음에 도는 자비심
등명 락가사 낙성식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강릉 불자들의 쉼없는 불심이 이 지역에 또 한분의 아미타 부처님과 약사여래 부처님을 오시게 했다.

조계종 제 4교구 등명 락가사(주지 청우스님)는 19일 오전 11시 등명락가사 극락보전·약사보전 낙성식을 봉행한다.

또 큰법당 개금불사와 함께 일광·월광보살 점안 법회도 열린다.

증명으로 참석하실 벽암스님(신원사 조실)과 현해스님(월정사 주지)의 면벽에 미소가 돌고 부처님을 우러르는 불자들의 마음에 자비가 돌 때 여기가 바로 부처님 세상, 자애로운 누리.(0391)44-5337.

진리캐는 명사 명강의
소림아카데미 석달간

겨울잠을 깬 나무가지마다 새움이 돋는 봄날, 우리의 정신도 새싹을 틔워 부처님 법을 따라야 할 때이다.

이 화창한 봄에 불자들의 정신을 풍성하게 해 줄 명사들의 연속 강좌가 마련됐다. 강남 소림불교아카데미(원장·지형)가 지난 12일 무진장스님의 강의를 시작으로 문을 연 강좌에 가면 교계 명사들의 명강연을 들을 수 있다.

앞으로 3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시작되는 이 강좌에서는 정락스님, 암도스님, 보각스님, 고은시인, 정병조교수, 류시화시인, 지형스님이 삶의 지혜를 일깨워 준다.

강연내용은 불교의 기초교리에서 생활불교, 참선, 명상, 건강, 금강경대의, 법화경대의, 자녀교육의 바른 방향 등이다.

(02)511-6210.

세대의 벽을 넘어서
봄과 함께 엄마 아빠와 함께
청소년 어울마당 23일 인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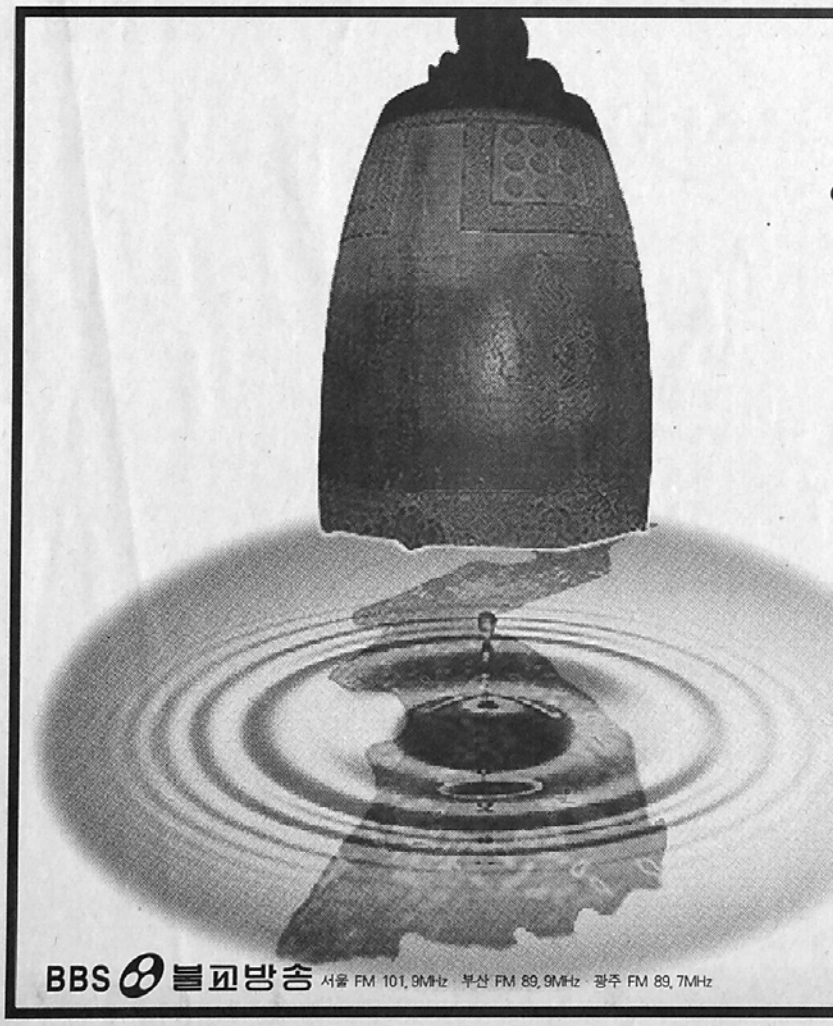
화창한 햇볕이 봄의 향취를 더욱 향기롭게 하는 날, 엄마·아빠가 자녀의 손을 맞잡고 뛰고 구르며 맘껏 웃어보면 어떨까!

아이들은 공부에 쫓기고 부모세대들은 삶에 쫓기면서 자녀와 함께 할 기회가 마땅히 없는 이 때, 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가 '부모와 함께하는 노래이야기'라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마련한다.

오는 23일 오후 3시 서구 구민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지역거주 청소년과 가족 2백여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가정, 따뜻한 이웃'이라는 주제아래 펼쳐지는 이날 행사는 세대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이해하며 즐길 수 있는 장으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노래를 통한 나눔, 다함께 부르는 노래, 이야기를 통한 나눔의 놀이가 다양하게 개최돼 부모세대와 청소년 세대간에 새로운 관계가 모색될 전망이다. (032)885-5593.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



불교방송 창사 5주년

"3천배를 올리는 정성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불교방송이 깨침의 범종소리를 울린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장엄한 소리가 온 산하에 더욱 넓고 깊게 퍼지도록
3천배를 올리는 정성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불교방송은 오는 5월 1일 창사 5주년을 맞이 합니다.
2천만 불자의 서원을 받들어 첫 전파를 발사했던 그 감동의 기억으로
더욱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최고의 방송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거울삼아 절차탁마의 자세로 정진할 것을 임직원 모두는 다짐합니다.
불교부산방송, 불교광주방송에 이어 경북, 충청, 강원 지역방송개국을 앞당겨
전국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삼보를 더욱 높이 받들고
불교계를 적극 대변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획을 펼치겠습니다.

- 불교방송 창사 5주년
  - 세계불교문화전
  - 한글 대장경 전산화
  - '95음악공양의 밤
  - 대공연(산, 비다, 가람의 하모니)
  - 인도무용극(사운드라 남만)
- 개화100주년, 광복 50년
  - 다큐멘터리(개화승 이동인)
  - 연속대담(해방세대는 말한다)
  - 한국속의 일본, 일본속의 한국
- 불교방송 전국방송 원년
  - 서울, 부산, 광주(24시간 3원 생방송)
  - 남산, 해운대, 무등산(라디엔터링)
- 연중캠페인
  (이웃속의 부처님을 찾읍시다)
  - 보살을 만난다
  - 자선음악회
  - 모금생방송 (온누리에 자비를)
- 불교방송 학술조사단 대탐사
  (남해분사도감 발굴)
- 보도특집
  (성보문화재의 오늘과 내일)
- 대토론
  (한국불교의 세계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연중기획
  (통일을 향한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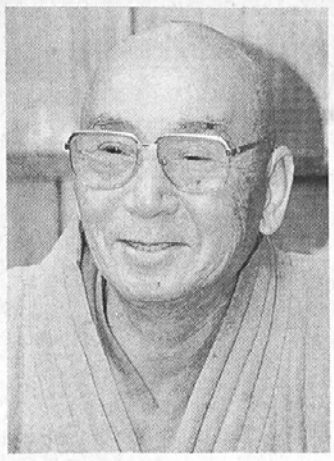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MHz · 부산 FM 89.9MHz · 광주 FM 89.7MHz



조계종 원로회의 불교 현안 논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혜암 스님)가 지난 7일 오후2시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상견례를 겸한 이번 회의에서 혜암 원담 고송 도견 성수 승찬 운경 도원 청하스님 등 아홉분의 원로스님들은 불교계 현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계종 前종정 **서암 스님**

칩거 1년만에 서울 나들이

종단 울타리 벗어나 자유롭게 전법

"쉴만큼 쉬었습니다. 앞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지 않은 이들이나 타종교인들에게 부처님말씀을 전하는데 남은 여생을 보내고자 합니다."

조계종 종정직을 사퇴하고 칩거에 들어간지 꼭 1년만인 지난 12일 서울 정토법당에서 대중에게 법문을 설한 서암스님은 "평생 받은 부처님 은혜를 갚기위해 불법을 접하지 못한 이들을 찾아 포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거제도에서 수행에 전념해온 서암스님은 "종단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대중과 만나게 됐다"며 "자리가 마련되면 어느곳이든 찾아가 부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만인은 평등하여 인간위에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며 "내면의 빛을 찾아 더 많은 이들과 진리를 나누도록 하자"는 봉축의 뜻을 전했다.

"마음의 거울을 닦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반성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는 스님은 "참다운 불자는 불교라는 울타리까지 벗어버리고 불법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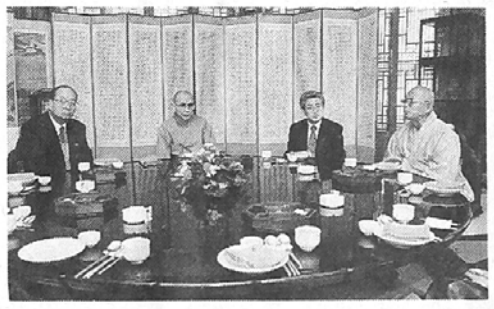
◇ 세계적으로 3억 신도를 보유하고있는 정교회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우스 1세가 지난 10일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을 방문, 조계사 대웅전에서 함께 참배드리고 있다.



◇ 맥 윌리암스 호주대사는 지난 10일 오전10시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한·호 문화교류에 불교계가 앞장 서 줄것을 당부했다.



◇ 오인환 공보처 장관은 지난 11일 유세준 기획관리실장, 서증한 신문방송국장, 유재웅 방송행정과장과 함께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 부처님 오신날 행사의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 서상목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오 필동 한국의 집으로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서봉 태고종 총무원장 지광 진각종 통리원장 등 종단 대표들을 초치 오찬을 나누며 복지사업에 불교계가 적극 참여해 주기를 희망했다.

보살계 수계법회 봉행



청화스님(태안사 조실)은 오는 20일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적문스님)에서 금륜불(법륜)접안 및 보살계 수계 대법회에 참석, 법회를 봉행한다.

불교언론 발전위해 1억기탁



규범스님(천중사 주지)은 지난 7일 태고종 월간불교와 한국불교신문의 발전기금으로 종단에 1억원을 전달하고 언론을 통한 포교사업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종립학교 포교현황 파악



정락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각 종립학교의 포교현황을 파악키 위해 이달 30일까지 현황파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지난 5일자로 보냈다.

미화원 초청 위문법회



고담스님(광덕사 주지, 노원불교사암연합회장)은 오는 28일 오후2시 노원구민회관에서 미화원 2백70여명 초청 위문법회를 개최한다. 한편 하루전인 27일 오전 9시 30분에는 노원경찰서에서 부처님 오신날 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02)936-5263

교차로

3군 사령부서 설법



지형스님(소립불교아카데미 원장)은 지난 2일 오전11시 3군사령부 법당 호국선봉사(법사 이치영대령)에서 장교와 사병불자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선의 세계'를 주제로 설법했다.

일본서 자료수집



혜봉스님(이천 지족암 주지)은 3월19일 자료수집차 도일, 일제의 한국불교침략에 관한 각종 문헌을 입수했다. 일본 국립문서기록보존소와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등을 방문후 지난 31일 귀국한 스님은 민단과 조총련이 합동으로 거행한 고베지진 희생자 위령재에도 참석했다.

대법당·자비관 개원



송묵스님(동원정사 주지)은 오는 21일 낮 12시 남양주군 화도읍에 자비관과 대법당을 건립하고 개원법회 및 주지 진산식을 봉행한다.

불교 꽃꽂이전 개최

보명스님(한국 불교 연화꽃꽂이회장)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오는 5월2일부터 4일까지 강남 봉은사에서 불교꽃꽂이전을 개최한다.

설악산 영시암 복원법회



여초 김응현 선생(서예가)은 지난 14일 오후3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내설악에 위치한 영시암(永矢庵)에서 '영시암 중건복원 법회'를 가졌다.

삼보선원 개원

조호정회장(삼보법회)은 23일 오전10시 삼보회 창립 31주년을 맞아 삼보선원 개원 및 삼보동문회 결성법회를 개최한다.

해양대서 명예공박 학위



조중훈회장(한진그룹)은 지난 8일 오후 부산 한국해양대(총장 김효중)에서 해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목정배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취임식

동국대 불교대학원 제4대 목정배원장 취임식이 지난 7일 오후6시 앰버서더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성료됐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주관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목정배 원장은 "열심히 학문하고 신행하여 대승보살의 바라밀 깃발을 높이 세우는데 있어 초석이 되겠다"고 인사했다.

이날 송석구 동국대 총장, 법산스님, 이재창·권기종교수등과 김성호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장 등 2백여명이 참석 취임을 축하했다.



전국교법사단 창단 4주년 기념법회

전국교법사단(단장 김종환)은 지난 8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종립학교장 및 전국교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 4주년 기념법회 및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서 권진영(동대부고)백미나씨(청담중·고)가 신임 교법사 품수를 받았다.

"회관건립·신도 배가 운동 펼칠터"

전국불교신도단체 협의회 김용직 회장



지난 12일 전국불교신도단체 협의회 새 회장으로 선출된 김용직법사(관음종 신도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재가신도들의 원활한 신행활동을 위해 임기내에 신도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또한 "2천만 신도들을 하나로 묶어 전신협을 명실상부한 신도 대표단체가 되도록 하겠다"며 "29개 종단의 신도회가 공동으로 신도배가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매일 새벽〈신묘장구다라니〉 경 독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김회장은 관음종 신도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대원회, 관음종 불교대학등에서 경전강좌를 펼치고 있다. 〈준〉

"이해심 깊은 한국인 형제되고파"

네팔인 노동자 해리씨



"이처럼 한국인들과 좋은 인연을 맺게해 준 부처님과 한국불교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일 외국인 노동자 마을 창립법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표해 인사말을 했던 해리씨(네팔·32).

교육인 네팔에서 고등학교 교편생활을 했으나 현재 성수동의 한 철강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해리씨는 "따뜻하고 친절한 분들도 많지만 이미 알려진 대로 부당한 대우는 물론 인권까지 무시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제법 또렷한 한국말로 13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설움을 대변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해리씨는 "서로 이해하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형제가 되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내비쳤다. 〈우〉

게시판

▲정신과학아카데미=한국불교사회연구소(소장 송희식)는 4월26일부터 매주 수(오후7시반)·토요일(오후3시) '세계의 여러 수행법을 찾아서'를 주제로 강좌를 연다. (02)573-6535.

▲무료 합동결혼식=구룡사가 제3회 무료 합동 결혼식을 오는 30일 오후2시 구룡사 결혼회관에서 연다.(02)571-2255

▲불교문화=불교신행연구원은 오는 23일 서산 개심사, 마애삼존불, 보은사지로 답사 기행을 떠난다. (02)587-6613

▲불교인권상 후보자 접수=불교인권위가 제4회 불교인권상 수상자 후보를 찾는다. 대상은 인권과 통일운동고양에 힘쓴 공로자로 단체나 개인 추천가능. 마감은 26일까지. (02)745-2852

이전 법보신문은 지난 15일 마포 다보빌딩에서 조계사 건너편 진우빌딩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새 전화 (02)725-7012

결혼 구자순회장(대한불교부인회)의 장남 양성우군이 오는 29일 오후1시 돈암동 태극당예식장 2층에서 결혼식을 갖는다. (02)736-5035

생활 속의 불교 ㉓

"양식을 주신 그분은 누구인가?"

음식 차려놓고 먹기 전에 합장하며 '감사합니다.' 할 때 어디에다 대고 감사하는 것인가? '부처님 감사합니다.' 인가? '부처님께 회향합니다.' 인가? 아니면 차려준 분? 농사 지은 분? 어느 쪽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분' 인가?

농사 지은 분도 감사한 분이고, 거둬다가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애쓴 분에게도 감사할 일이다. 맛있게 먹도록 차려준 분, 알게 모르게 일손을 보태준 분들도 감사한 분이다. 그러니 모두에게 감사할 일이다.

모두는 나를 위해, 나를 살리고 나를 먹이고 있다. 나 혼자 밭갈고 씨 뿌리고, 나 혼자 거두고 나르고, 나 혼자 끓이고 먹고, 혼자 입고, 혼자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가 서로를 먹이고 위한다. 그러니 모두는 나를 위해, 나는 모두를 위해 산다. 공생·공식이다.



그러므로 밥 한 그릇 지어놓고 고맙다, 감사하다 할 때 그것은 바로 전체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물 한 모금 마시고 밥 한 술 떠넣는 일은 그 순간 전체와 더불어 한 모금 마시고 한술 뜨는 것이 된다. 고로 내가 합장하며 예를 갖추면 전체가 다 그 예를 받는 것이요, 전체가 한마음임을 다짐하는 일이 된다.

누가 따로 있어서 나로 하여금 굶지 않고 먹게 하였으니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고 하는 게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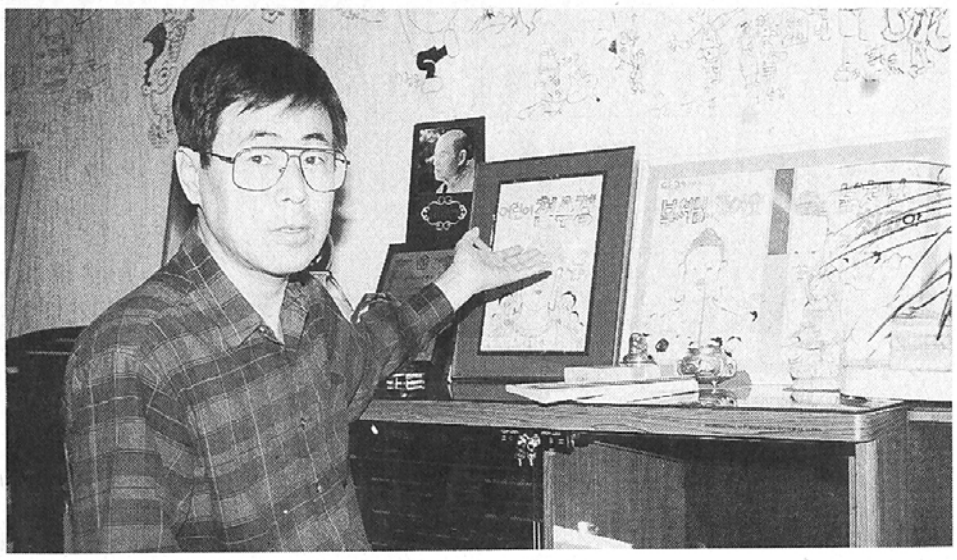
더불어 먹고 더불어 감사하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일부러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을 지어서 '회향의 도리를 다 하노라.' 하지 않더라도 공생·공식의 원리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으면 합장이 곧 일체 중생·일체 부처님과 같이 하는 것이요, 그대로 회향인 것이다. 부처님은 일체이지 '주신 그분' 이 아니다.

협찬 : 지일상·지애령

"이웃에서 '부처님 얼굴' 찾아요"

산문밖의 禪

만화가 **이정문** 화백



만화 그리면서 '마음 비우기' 수행…마감땐 왠지 원력 생겨

"경서 읽을수록 입에서 향기나고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달공거사·온돌보살·연주보살·목탁거사·손오공은 모두 나의 분신입니다. 내가 빚어낸 주인공과 일체가 되지 못한다면 그 만화는 생명력을 잃고 말지요. 나는 내 만화의 주인공을 통해 불교를 배우고 수행을 합니다."

만화가 이정문화백(55).

그의 집과 화실의 거리는 2.5km. 집에서 화실까지 가려면 올림픽공원 울타리 옆을 걷게 되는데 이 길에선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걷는 길로서는 최상인 이 길엔 춘하추동 4계절의 정취가 늘 가득차 있어 작품구상에는 최고의 산책로가 되고 있다. 아침 산책겸 출근길이 끝난 곳에 그만의 사색과 창작활동 공간인 화실이 기다리고 있다. 동쪽 창이 활짝 트인 10여평의 아늑한 공간에서 그는 창작의 고통과 외로움을 납자(衲子)처럼 즐기고 있다.

"완전히 절간이나 다름없죠. 하루종일 침묵으로 일관하다 보면 실어증이 오지는 않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창작은 항상 어렵지만 재미도 있어요. 스님들이 어려운 참선을 하며 무상(無上)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과 비슷하지요."

오랜 창작의 길을 혼자서 걸어 온 그는 다른 만화가들 처럼 기업형 만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작품구상에서부터 줄거리 구성, 만화화까지 전적으로 혼자만의 작업을 추구하는 그는 '제7의 미술계'를 앞서가는 프로 예술인이다.

"저는 오래전부터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곤 했습니다. 산속의 어느 절이었는데 왼쪽엔 샘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고, 스님 몇 분이 샘물가에서 서성이는 게 보였고 저 아래엔 대웅전도 보였습니다."

이화백은 자주 보이는 이러한 꿈을 근거로 자신이 전생에 스님이었다고 믿는다. 그는 '스님'시절 경내 청소를 게을리 해서인지 금세(今世)인 지금, 집안 청소는 도맡아 해오고 있고 '스님'시절 공부를 게을리 해서인지 오늘날 불교만화를 그리기 위해 온갖 불서들을 읽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인과응보(因果應報)라면서….

14년전 달공거사 탄생

59년 만화가 입문 이후 무수한 종류의 만화를 그려왔지만 불교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막연한 갈망이 자신도 모르게 생겨났다. 그러던 차에 14년전 어느날 우연반 필연반으로 당시 '불광'지 주간으로 있던 지범스님을 만나면서 광덕스님의 허락하에 '달공거사'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당시 저는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불심이 돈독한 불자들이 보는 책이라 그때부터 불서들을 구해다 읽고 보며 달공거사의 만화스토리를 꾸며 나갔지요. 경전에 꼭 찬 부처님의 진리를 읽으면 입에서 향기가 나고, 머릿속에 들어가면 광채가 나는 듯 했습니다."



불교만화를 시작하면서 그가 무척이나 고심한 게 하나 있었다. 부처님 존상(尊像)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 서울 조계사에 계신 부처님, 잠실 불광사, 마곡사 영은암의 부처님, 송광사, 불국사 등 곳곳의 산사와 말사에 계신 부처님들. 자비로 가득찬 넉넉한 존상에는 외경을 느끼게 하는 성(聖)스러움이 배어 있었으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부처님의 얼굴'을 만화로 표현하기가 난감했다는 것이다.

이화백은 시방삼세(十方三世)에 두루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부처님을 불자나 불자가 아닌 독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접근시키려고 그 나름대로 '만화화' 되신 부처님, 마음씨 좋은 동네 할아버지 같은 분으로 표현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으나 오랫동안 자족(自足)할 만한 성과를 이루진 못했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그의 만화 속에는 한동안 부처님의 얼굴이 등장하지 않았다. 잘못 표현하게 되면 경박스럽고 천박한 표정이 나와 마음에 드는 부처님 얼굴을 형상화할 수 없었던 것.

한국만화문화상 수상

하지만 불교만화 속에 '말씀'만 나오고 부처님 존상이 나오지 않으면 어색할 것 같아 그 나름대로 '부처님 얼굴'을 찾기 위한 작업은 계속됐다. 그는 보전(寶殿)에 계신 부처님보다 바로 내 이웃에 있는 많은 부처님들 얼굴을 찾기로 했다. 거리를 깨끗이 해주는 미화원 부처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운전기사 부처님, 공장에서 땀흘리는 근로자 부처님, 광부 농민 어민 등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부처님 얼굴을 찾아다닌 끝에 그만의 희화성(戱畵性)을 지닌 부처님 얼굴을 어렵게 완성했다.

'창작은 혼자서 공을 들이며 해야 한다'는 고집으로 36년간 숱한 어려움을 견디며 만화가의 삶을 걸어 온 그는 93년도에 제3회 한국만화문화상을 수상, 오랜 창작활동의 보람을 맛보기도 했다.

"원고마감이 다가오면 이상한 원력으로 작품을 무사히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린 부처님 존상을 향해 아침 저녁 삼배를 올리지요."

화실에서의 그의 작업은 선방에서 참선에 몰두하는 선승(禪僧)의 '마음 비우기' 작업과 다를게 없다. 묵언(默言)수행에 열중인 수도자처럼 그의 머릿속엔 부처님의 말씀과 온갖 그림이 화두(話頭)처럼 이어지고 있다.

'전법(傳法)은 최상의 보시'라는 신념으로 불교만화 불모지에서 14년간 묵묵히 창작활동을 해 온 그는 좋은 만화의 소재가 경전 속에는 무궁무진하다고 말한다. 이웃의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며 신심깊은 불제자가 된 그는 불교만화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정신세계가 아직 메말라 있을 것이라고….

"이제는 등산할 때도 등산로에 기어다니는 벌레가 살 수 있게 등산화 대신 짚신을 신고 올라 가고픈 마음입니다."

이화백의 선취(禪趣)는 화실의 안과 밖에서 다를 수 없다.

〈김재경 기자〉



삽화·이기선

'요익중생'이 바로 '홍익인간'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㉓

일연스님의 용어선택 감탄할뿐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의 보배이다. 많은 역사책이 있지만 삼국유사처럼 돋보이는 고전보서는 없다. 이 책은 일연스님이 저작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다. 왕통이나 정사를 기록한 삼국사기는 왕조의 역사를 적기하였으므로 민초의 애환이나 수난이 별반 없다.

사실 역사는 제왕 장상만의 생활이 아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공간사와 시간사에 있었던 모든 인물이 종합적으로 공개기록되는 것이어야 한다. 한 부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상세하게 표현을 하는 것은 역사기록에 있어서 편협성을 면하기가 어렵다.

거시적 안목 '발군'

그 시대에 누구가 살았던 무슨 일을 하였던 간에 하나 남김없이 수장하고 기록한다면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역사가 될 것이다. 만약 그러한 역사서가 있다면 그 시대의 사람을 통시적 안목으로 조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총체적이고 통시적 사실을 감안할 수 있는 역사서가 없다. 왕조 중심의 편년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왕들의 치적은 헤아릴 수 있지만 서민, 농민, 장인의 고난사, 수난사, 일상사가 모두 묻혀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일연의 삼국유사는 남겨진 이야기, 남아 있었던 이야기, 주어 모아야 할 이야기를 하나하나 건져내어 구슬을 끼어 온 것이다. 왕력, 흥법, 의해, 탑상 등으로 엮어진 삼국유사 이것은 민족사서로 손꼽힐 책 임에 틀림없다. 불교적인 색채가 짙기는 하지만 사실 그 당시의 문화가 불교 이외의 총체적 종합문화가 있었던가.

종교가 심화되게 신행되면 자연히 그 종교를 여러 형태로 상징하고 표상하게 된다. 그것은 건물, 탑상, 회화, 조각, 공예, 장엄 등으로 상징되고 조형되는 것이다. 이러한 종합문화예술을 창의 창도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 모두가 미상으로 되었으니 안타깝기 한이 없다.

여기서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유사의 역사적 의미성을 부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연스님이 人間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한다.

오늘날 우리들이 인간이란 말은 상용으로 쓰고 있지만 천여년전에 인간이란 어휘를 선택하여 삼국유사에 적기한 일은 대단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이 인간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단군왕조에서 나온다. 단군왕조에 대한 여러형태의 비판이 높지만 일연은 분연히 단군조선을 역사에 남겼고 또한 단군은 광명이세 홍익인간으로 나라와 겨레를 다스리는 이상을 삼은 것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불교가 국교이다 싶이 한 시대이므로 '요익중생'이 제일 쉬운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일연스님은 과감하고도 용감하게 언어구사를 변혁시켰다. 저술의 천재였거나 아니면 시대적 거시안으로 내다 본 깨친 이의 형안이 아닐 수 없다.

요익중생 이 말은 불교경전에는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생을 널리 이익되게 한다는 보살정신이다. 보살은 고통받는 일체중생을 하나 빠뜨리지 아니하고 건져내는 구원자이다. 이를 요익중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연스님은 불교적 언어표현을 과감하게 전용한 것이다. 요익(饒益)을 홍익(弘益)이라고 중생을 인간으로…. 요익은 무거운 감이 든다. 널리 구원한다는 의미가 함장되었다하더라도 그 당시 고려인의 가슴에 울리는 말,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말은 '홍익'이였는지 모른다.

아무튼 일연스님은 요익을 홍익으로 바꾸었고 또한 중생도 인간이라고 환치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단군의 정치이념이 종교사상이나 철학이 아니였기 때문일 것이다. 종교가 내포하는 사상은 일체중생을 포함한다. 그러나 정치는 인간에게 한한 범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일연스님은 종교의 다의적 의미와 정치의 일의적 의미를 잘 선별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말들이 맞고 안맞고는 비평자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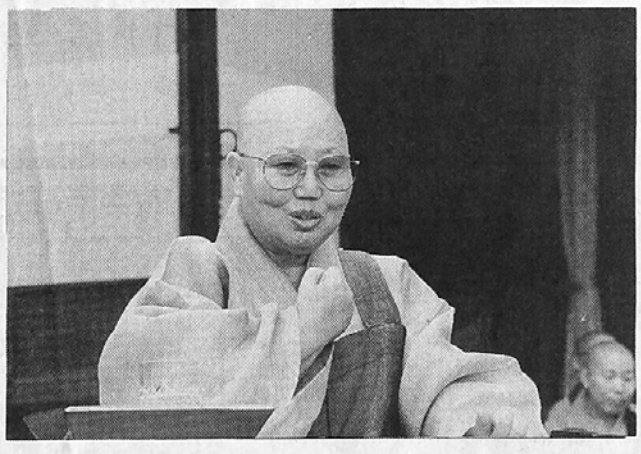
보살정신 결정체

그러나 일연의 의도는 바로 쉬운 말, 민중이 접근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려고 애쓴 흔적이 돋보인다.

역사기록은 종합적이고 통시적 기록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문화생활 전반에 땀흘리고 피맺힌 서민, 천민의 기록도 편수되어야 한다는 의미부각이 뚜렷하다.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인간이란 용어도 일연스님에 의하여 고려시대의 한 시대적 용어로 채택되어 상용되었다는 것은 한 스님이 언어문화의 영원성을 내어 놓은 상징적 신앙성이 아닌가 한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준공법회



일시 : 불기 2539년 4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법당

마음의 등불을 밝힐
도량이 신축되어
대행스님을 모시고
준공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뜻깊은 법연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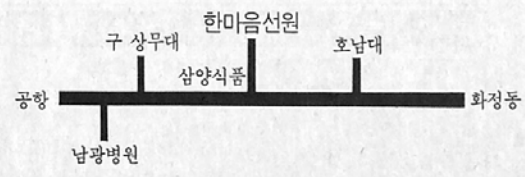
지 원 장 혜 월
신도회장 김희남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전화 : (062) 373-8801~3, FAX (062) 373-0174

불사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도일동—

상 호	대표자	전 화
현대부동산	박용섭	371-8866
진국개발(미장)	주영길	0685-92-3763
(주)해성기업(방수)	류수상	223-3163
풍진상사(동기와)	이승진	02-400-5760
동양물산(주)(유리블럭)	최원기	521-9854
금강조경	이종국	523-1055
금강석재	조왕기	0652-211-2882
광주문집	정해명	523-4384
동양정보통신(방송시설)	박내홍	0631-72-4555
대동벽지	강소형	528-7660
광명샤슈	임동욱	265-8068
순천골드륨	임영수	0661-741-7309

—무순—



유석질의론

"함허의 저서 아닐 수 있다"

신규탁교수 주장 佛·道·儒敎해석등 다른 저작과 차이 커



◇신규탁 교수

그간 함허득통(涵虛得通)의 저술로 알려져 온 〈유석질의론(儒釋質疑論)〉이 다른 저자에 의해 씌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과 함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사상사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연세대 신규탁교수(철학과)가 지난 7일 국학연구원(원장 박영신) 월례발표회서 '함허득통의 유·불 이해: 당나라 규봉종밀의 儒·佛 이해와 비교해서'란 주제의 논문을 통해 발표한 것.

신교수는 〈유석질의론〉에서는 〈주역(周易)〉의 상수(象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반면, 함허의 또 다른 저서 〈현정론(顯正論)〉에서는 전혀 이런 점이 보이지 않는 점과, 전자에서는 유·도·불 이론의 심오한 순서를 불·도·유의 순으로 하는데 비해 후자에서는 3교를 동일선상에서 논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유석질의론〉이 함허의 저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폈다.

또 당의 규봉종밀(圭峰宗密)이나 함허(1376~1433)가 모두 호교(護敎)적인 입장에서 유교를 비판하고 있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종밀이 당시의 유교나 도교를 비판하는 초점은 유교나 도교를 신봉하는 자들이 인간의 삶에 관한 문제를 인간 이외의 요인(天命이나 氣)에서 찾는 점에 있어 차이가 난다.

반면, 함허의 논의는 유교의 윤리의식이나 가치체계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불교를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 신교수의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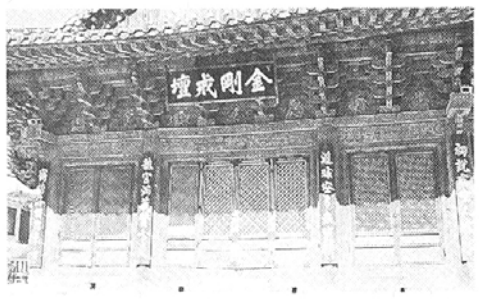
신교수는 '고려조는 불교이고 조선조는 유교'라는 도식적이고 단절적인 사상사 인식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반성할 때라며, 당나라의 경우 불교측의 당시 유교 비판이 새시대를 여는데 일조를 했다면 함허에 의해 제기된 불교측의 유교비판은 오히려 근세로 향하는 조선사회의 반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같은 주장은 그간 호교론적 입장에서 진행돼 온 함허사상 연구와는 다른 시각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면 양헌규씨(전북대 철학과 강사)는 94년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己和의 사상에 관한 연구'에서 "함허는 당시 여말선초의 역성(易姓)혁명을 정당화시킨 성리학적 배불론을 이론적으로 방어함으로서, 불교가 배격의 대상이 아니라 성리학과 조화공존할 수 있는 종교임을 밝혔다"고 설명,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여말선초의 대표적인 불교학자였던 함허는 체관(諦觀)·의천·보조지눌·태고보우의 뒤를 이어 한국불교의 정통적 학풍을 당시의 학풍에 맞게 현실화시켰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역사적 사상적 평가는 아직 미미하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함허의 사상을 조명한 논문으로는 △조선조에 있어서 儒佛對論/송석구 △함허의 禪觀과 삼교회통론/한종만 △함허의 금강경오가해說誼/고익진 △함허당巧/김창규 △己和의 사상/송천은 △유불선 조화론의 한 모습; 得通의 현정론/최신호 △함허당 득통의 현정사상 연구/박호남 등이 있다.

〈김재경 기자〉



◇통도사 금강계단 전경.

통도사

〈금강계단〉
初說有空人盡執
(초설유공인진집)
後非空有衆皆損
(후비공유중개손)
龍宮滯藏醫方義
(용궁만장의방의)
鶴樹終談理未玄
(학수종담이미현)

처음에 설한 유(有)와 공(空)에 모든 사람 집착하더니
뒤에 공도 유도 아니라 하니 사람들 모두 버리네.
용궁에 가득한 경·율·론 모두가 의사의 처방이요
학수(鶴樹)에서의 마지막 설법도 현묘한 이치는 못되네.

해설 금강계단은 통도사 대웅전의 바로 뒤 북쪽에 있다. 이곳은 통도사의 근본정신이 집결된 최상의 성지이며 가람배치의 중심이기도 하다.

금강계단은 맞쪽이 전각(법당)이고 뒤쪽이 계단이다. 그러니까 전각으로서의 금강계단과 석단으로서의 계단이 같이 금강계단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금강계단 법당 맞쪽에 걸린 주련의 내용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갖는 위대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유(有)와 공(空)의 사상이라면 지나친 관단일까.

있음과 공함의 개념과 그 실체를 푸는 것이 불교사상의 중핵을 이루고 있다는데는 이의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 있음과 공함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집착하던 사람이 그 둘 모두를 부정하니 버리더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에 대한 해답찾기를 원한다면 용궁에 가득한 장경들을 참구해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을 뛰어 넘는 이치를 깨달으라는 지엄한 당부가 이 싯귀의 내용일 것 같다. 끝 귀절의 학수란 부처님 입멸 장소인 사라쌍수 숲을 가리키는 것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있음과 없음' 실체 알라는 가르침

철원·화천일대 문화유적 학술조사

불교유물 계성리사지등 7건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는 지난 7일부터 5월11일까지 철원·화천군 일대 군사보호구역내 문화유적학술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학술조사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불교유물·유적은 철원군의 금학산 마애불상사지 석탑·석천암지(石泉庵址)·오신산수태사(五申山水泰寺)사적비·검제정사(儉齊精舍) 등 4건과 화천군의 위라리(位羅里)칠성석탑(지방유형문화재 30호)·계성리사지·계성리석등(보물 496호) 등 3건이다.

氣·초자연현상 밝힌다

정신과학회 2차 학술대회

한국정신과학학회(회장 이충웅)의 제2차 학술대회가 지난 15, 16일 이틀간에 걸쳐 동국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氣의 과학화 및 우주시대의 미래통신수단으로 텔레파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행해진 텔레파시 실험의 결과들을 발표하는 '氣와 21세기 미래과학'/이충웅교수(서울대 전자공학과) 등 11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조선시대 불화' 특집

불교미술 12집

동국대 박물관(관장 홍윤식)이 〈불교미술〉 제12집을 발간했다.

'조선시대 불화'를 특집으로 꾸민 이번 호에는 △불화와 한국문화/홍윤식 △조선조 후반기 불화양식의 고찰/문명대 등 6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중국간행 추정 보조저술 발견

'수심결' 발문·단락 다른 '계초심학인문' 2편

최연식씨 규장각서 찾아



"최근에 규장각에 소장된 불교관계 서적들의 해제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보조저술에 관한 자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최연식씨(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사진)가 발견한 이 책들에는 〈보조전서〉에 수록되지 않은, 〈수심결(修心訣)〉의 발문(跋文) 1편이 들어 있고 또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단락지어져 있는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이 수록되어 있다.

최씨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충익(李忠翊) 전래본을 송광사에서 간행(1799)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체제의 〈수심결〉이 간행된 예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 규장각 소장본 들은 중국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고덕선사진심직설〉에 합본되어 있는 〈계초심학인문〉도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해된 것과 다르게 단락지어져 있는 것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즉 일반적으로 셋째 단락이 '사당에 머무를 때에는…(住社堂…)'으로 시작되는 것과 달리 이 판본에서는 33글자 뒤인 '종사가 법좌에 올라 설법을 할 때에는…(若遇宗師陞座說法…)'의 부분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 최씨는 이러한 단락 구분이 내용상 보다 합리적인 해석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규장각을 비롯, 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국립도서관·동국대도서관 등의 불교고서(古籍)를 목록화하고 해제하는 작업이 불교학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성보관리의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부처오심을 파도에 비유한 의미

문 선가귀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부처님과 조사가 세상에 나오심이 마치 바람없는데 물결 일으킴과 같다. 대지대비로 어리석은 중생 건지심이지만 한 물건으로 본다면 사람마다 본래 면목이 절로 이루어졌거늘 어찌 남이 연지찍고 분발라 주기를 기다리리오. 고로 이 세상에 나오심은 진잔한 물결에 파도 일으킴이다」라고 했습니다.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 조사 오심이 큰 복인데 어찌 파도 일으킴이다 하였는지요.

〈차영환·서울 종로구 운니동〉

답 그런 말씀은 설명을 구하기보다 스스로 참구하실 일입니다만 이왕 질문을 하셨으니 설명드리지요. 실은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선사께서는 무척이나 자상하셔서 '어찌 남이 연지 찍고 분발라주기를 기다리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먹을 쥘 줄만 알고 펼 줄을 모른다면 병신이지요? 또 펼 줄만 알고 쥘 줄을 모른다면 역시 병신이구요. 들었으면 놓을 줄 알아야 하고 놓았으면 들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양면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쥘 줄만 알고, 들 줄만 안다면, 아니 쥐라고 했으니 쥐고 있으려고만 하고 들라고 했으니 매양 들고 있으려고만 하면 그거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 안하고 안들으니만 못하겠지요? 그래서 바람 없는데 물결 일으킴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서산대사다운 경책의 말씀입니다.

참기도와 기복기도의 다른점은

문 부처님 십대제자중 신통제일의 목련존자와 지혜제일의 사리불존자가 신통력 내기를 했는데 사리불이 이겼습니다.

사리불의 말씀이 '내가 이긴게 아니라 부처님이 이기셨다. 나는 내기를 하는 순간 부처님께 기도를 드려서 부처님의 힘을 빌어 이겼노라'고 했답니다. 그 기도와 저희들의 기복적 기도와는 어떻게 다른지요.

〈정동우·서울 노원구 공릉2동〉

답 사리불이 기도를 했다고 말한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부처님을 상대로 놓고 기도한 것으로 아셨겠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라 즉심(卽心)입니다. 부처님 마음과 한마음이라는 가르침이지요. 이름하여 주인공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목련은 자유롭게 빼고 끼고, 끼고 빼고 하질 못해서 진 것입니다. 하지만 내기를 했다는 것은 가르침의 방편입니다. 어찌 지혜와 신통이 뛰어났을까? 바로 즉심의 도리, 즉심으로서의 중용이지 '기도'라는 말을 붙여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세번죽어야 구경에 이른다' 뜻은

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어야 너를 본다'고 하셨고, 구경에 이르려면 '세번을 죽어야 한다'고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세번 죽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재일·대구 동구 신천4동〉

답 '죽어야 한다'니까 어떤 이는 이 육신이 죽는 것을 생각하고 때로는 죽음에 이를만큼 고행을 해야 한다는 말로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과 마음 내는 것과 육신의 움직임이 동시에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나'라는 것은 본래 공해서 내세울게 없습니다. 따로따로 떼어서 '이것이 나이다'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래 그렇게 돌아간다는 이치를 완벽하게 알고자 하면 '나'라는 것이 쑥 빠져야 합니다. '나'가 죽어야 하는 것이지요. 선도 놓고 악도 놓고 일체를 몰락 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디 놓을 장소가 따로 있고, 놓을 대상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나'가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따로 없는 반면 모두가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야말로 공생이며 공용(共用)이며 공체(共體)며 공식(共食)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점이 잘 이해되지 않거든 저 언덕의 나무 한그루가 살아가는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요. 아니 지금 활자 찍어서 신문 만드는 이 종이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엔 바람·비·구름·땅·인간 등 온갖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종이 한장에 구름도 보이고 흙도 보이고 미생물도 보이고 수많은 사람도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로 돌아가니까 한마음 속에서 들고 나는 만법이 더불어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 아니게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확철하게 알려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 나도 없고 종이도 없는 경지를 맛보아야 합니다. 두번째로 죽으라는 소리지요.

하지만 그렇게 나투며 돌아가는 것을 알았다 해도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 안다는 것까지 내려놓고 그냥 목마를 때 물 마시듯이, 졸리면 잠자듯이 그렇게 여여하게 나툴줄 알아야 합니다. 안다는 것까지 몰락 내려 놓으니 세번째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내가 죽지 않으면 전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모를 것이고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그 원리가 바로 공했다는 사실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죽고 두번 죽고 세번 죽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활천당 한약방
(대구 약전골목 중간)
한약의 명소
40년 전통
간염 간경화증
상담 요함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86-1
(053-252-8274)

연 꽃 방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738-3933
(자택)934-1748

당뇨
위장·변비·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02)552-1470(대) / 팩스: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우송
주소:강남구 역삼동 827-4 금성B/D 2층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02)735-6795·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 해 창

한남상사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1동 612-5
전화번호: 02)795-4083
팩스 02)792-9659

탈종공고
대한불교 미타종 종정 법하
주소:대구시 남구 봉덕3동 715-19호
사찰명:승덕사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함을 이에 공고함
1995년 4월 일 승덕사
주지 마혜중 합장

탈종공고
대한불교 미타종 종정 법하
주소:서울시 강동구 성내1동 421-24호
사찰명:신련사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함을 이에 공고함
1995년 4월 일 신련사
주지 이혜준 합장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02)279-2715
팩스:(02)275-3739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 농협억삼동지점 096-01-239051(서클상사)
전화:(02)556-3076~7 팩스:(02)556-3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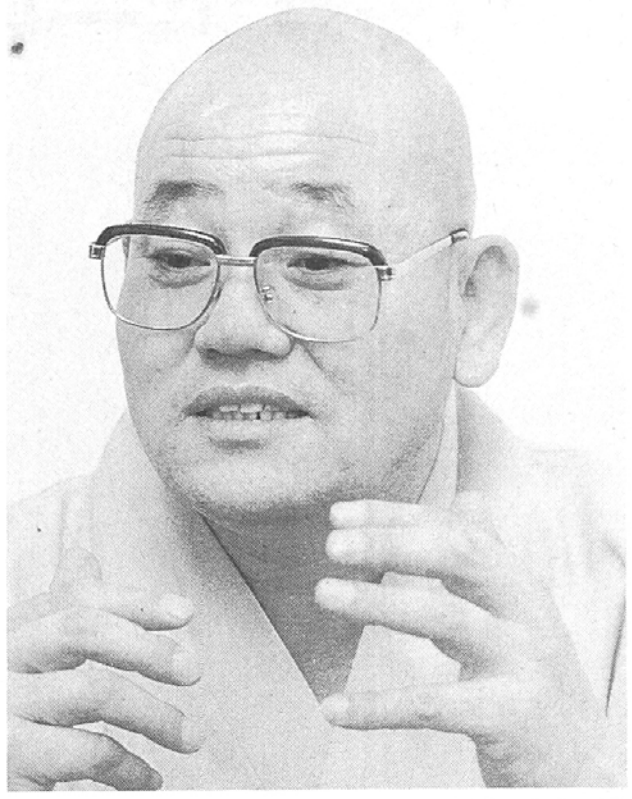
윤 조각실(불교미술원)
■ 부처님 조성
■ 청동불 조성
■ 대불조성
■ 천불전
■ 개금
제14회 불교미술전 우수상수상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16-1
전화 713-3560, 214-8963

오직 일념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조각의 명문 동양석재
·일찍이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전통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 제작을 일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사오니
·대덕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 바랍니다.
조각가 이 규 동 합장
대 표 이 규 영
동양석재 주간:(0357)541-4705 야간:(0351)847-2001

"육신보시야말로 으뜸 이타행"

수요 인터뷰

창립1주 생명공양실천본부 본부장 법 장 스님



▲보물급 부처님을 비롯 향로 탱화등 많습니다. 경허스님·만공스님·일엽스님 등이 주석해 있던 곳이라 거문고등 선사들의 유품이 많습니다. 한 300~400점 정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성보관을 짓는다니까 오픈하면 내 놓겠다는 분들도 여럿이지요. 전시관은 올해 골조와 누각을 완성하고 내년엔 전시관 내부공사를 마쳐 내년 가을쯤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현대사회의 새로운 인간방생불사인 생명공양은 이웃과 삶을 나누는 자비행이요 대승보살행이자 불교적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수행의 모습이다.

중생을 구하기 위해 수없이 육신공양을 해 보이셨던 부처님의 모습을 닮고자 「생명공양실천본부」가 출범한지 지난 8일로 어언 1주년을 맞았다.

「생명공양실천본부」가 창립되기 이전인 지난해 1월 뇌사시 안구·장기기증, 사후 시신기증까지 8여 생명공양운동 선봉에 선 본부장 법장(法長, 수덕사 주지)스님. 스님은 "지난 1년동안 생명공양운동에 관심을 갖고 기꺼히 동참해 주신 여러 불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좀더 많은 관심과 동참으로 생명공양이 범국민적운동으로 확산돼 남을 위한 이타행을 실천하는 장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완성하는 수행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창립1년의 소감을 피력했다.

약력
- 1941년 6, 15 충남 서산 生
- 1960년 원담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72년 동국대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
- 조계종 7·8·9·10대 중앙종회의원 역임
- 현재 학교법인 동국학원 감사, 충남 지방경찰청 경승실장, 한·태 불교협회 회장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교계에 장기기증이라는 인식도 안돼있고 기증도 거의 없던 때 시작하셔서 여러가지로 힘드셨을 줄 압니다. 생명공양실천본부의 1년 실적을 말씀해 주시지요.

"내가 필요하면 써먹어라"

▲안구기증 2명, 신장기증 1명, 시신기증 3명이고 최근 뇌사환자가 3명에게 각각 안구, 심장기증을 했습니다. 헌혈만도 1080명입니다. 또한 기증을 신청한 건이 1800여건으로 안구가 600명 뇌사시 장기기증이 620명 사후 시신기증이 430명 생전시 골수기증이 80명 생전시 신장기증이 70명입니다.

생전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마친 스님 4분 일반인 2분 등 총 6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불사보다도 가슴 뿌듯한 인간방생불사를 하고 계신데요. 가장 잊지 못하는 일이라면….

▲지난 2월말 수술을 한 정 근수행보살의 신장 기증의 일입니다. 그분은 정말 보살의 화현과도 같습니다. 손끝아 기다리던 기증을 위해 미국 땅에서 자비들여 귀국했고 숙박료도 본인이 물어가며 생면부지의 젊은이에게 신장을 주었습니다. 또 신장기증을 끝내고는 '세상에 진 빚을 조금은 갚은 것 같다'는 겸손한 모습에서 불자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원력들이 모여있는 모임인만큼 본부장으로서 부딪힌 점이 많으시겠습니다. 본부장을 맡으시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바쁘기도 했지만 제가 감당하기에 벅찬 일같기도 해 생명공양실천본부 창립 준비 발기인에도 안 들어가 있었는데도 당시 추진위원장인 진철스님과 각현·법타스님, 박광서교수 등이 강력히 권유했어요. 또 제가 평소 신도들에게도 '내가 필요하면 써 먹어라'는 말을 늘 하고 '나는 지옥에 태어나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옥에 가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 겠다는 생각에서지요. 아무튼 강력한 권유로 본부장이라는 모자를 썼는데, 바로 썼는지 거꾸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실무자들이 정말 보살들입니다. 저보다 그분들이 일을 다 했지요.

음으로 양으로 후원해 준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지난 2월 초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세 종교의 장기기증단체 모임을 주선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셨는데요.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시는 건가요.

▲생명을 살리는 데는 내 종교 네 종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생명공양실천본부가 가장 늦게 출발했기에 경험이 많은 기독교와 천주교의 장기기증단체들로부터 여러가지 노하우를 배우고 장기기증의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유대를 가질 생각입니다.

-지난 6일 만공스님 124회 탄신기념 다례식과 함께 수덕사에서 '근역성보관'의 기공식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도난된 송광사 영정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고, 전국의 사찰들이 성보의 보존과 관리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차에 마침 수덕사에서 전시관 건립이라는 불사가 시작돼 반갑게 느껴집니다.

성보전시관 이름을 '근역(槿域)'이라고 정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만공선사께서는 누구나 알다시피 한국불교의 선풍을 크게 진작시킨 대선사일뿐 아니라 민족정신을 각성시키고 외세를 척결하려 노력한 민족주의자이십니다. 그분은 근화궐로 '세계일화(世界一花)'를 쓰셨고 항상 강조하셨지요.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궁화 '근'자를 붙여 '근역'이라 이름했습니다. 만공스님을 기리고 동시에 우리나라를 연상시키려는 뜻에서입니다. 수덕사의 근역성보관에 소장되는 성보는 불교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민족 전체의 소중한 성보입니다. 이런 의식이 전 국민에게 확산될 때 '도난'이니 '훼손'이니 하는 말 자체가 없어지겠지요.

-수덕사에는 문화재가 얼마나 됩니까.

수덕사 '근역성보관' 기공

-지난 3월 스님 98명을 포함 태국불자 258명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스님께서는 공항까지 마중나갔고 불국사를 안내하는 등 태국불자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셨지요. 한·태불교협회 창립을 주도하시는 등 태국과의 불교교류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태 불교대회에서 △세계평화 위해 상호노력 △상호 불교이해 위해 승려 1인 교류 △신도 교류 △교민의 법적 지위 보장 노력 등을 협정맺었습니다. 태국스님들이 이번에 98분이나 온 것은 한·태 역사상 처음으로, 상호 불교교류를 위해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태국은 국민의 95%가 불자인 불교국가로 우리나라와는 부처님의 사상만으로도 합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태 불교협회를 이끌면서 양국의 교류를 활성화해 태국에 있는 6천여 교민의 영주권 문제 등 어려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경숙 기자〉

1천8백여 기증자들 참불자상 보여줘

'世界一花' 정신으로 범국민 운동 전개…타종교와 유대

나의 수행일기

서석재 〈총무처 장관〉 상



정수동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익살꾼이다. 그가 어느날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가 가득찬 시장으로 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북적거리는 시장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는 대뜸 장바닥에 주저 앉아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그 통곡소리가 얼마나 서럽고 애탔는지 왁자지껄 시끄럽던 시장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하나 둘씩 통곡하는 정수동을 힐끔힐끔 쳐다본다.

산에서 캔 나물을 좌판에 벌려놓고 하염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던 아낙네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정수동의 서글픈 통곡소리에 자신의 처지가 생각났는지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있었다.

정수동의 통곡소리는 사람들이 보던 말던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더욱 서러워졌다. 이제는 아예 장바닥에 엎드려 땅을 치며 곡을 한다.

시장사람들은 정수동의 통곡소리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무슨 영문인가 싶어 통곡하는 정수동의 주위로 모였다.

그 중에 인정많고 수다스럽게 생긴 아낙네가 용기를 내어 정수동에게 물었다.

"이보소. 누가 죽었소? 아니면 변이라도 당했소. 왜 그리 슬피 우는거요. 살다보면 슬픈 일이 한두가지요. 이제 그만 울고 까닭이나 들어봅시다"

아낙네의 말에 정수동은 대꾸도 안하고 계속 울기만 한다. 여기저기 사방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린다.

"애고 불쌍해라"

"얼마나 기막힌 일을 당했길래…"

"누가 좀 진정시켜 주지"

"저렇게 울다가 실신한다"

"쯧쯧…" 수군대는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통곡하던 정수동은 품 속인 고개를 들고 힐끗 주위를 돌아보더니 사람이 제법 많이 모인 것을 확인하고 이윽고 말문을 열었다.

"내가 우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요. 내가 들은 말이 있어서 그렇소"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리 슬피 우는 거요" 다시 울음을 삼킨 정수동이 정색을 하고 말한다.

"이곳에 있는 시장사람들이 모두 죽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 있겠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니 슬퍼도 이게 보통 슬픈 일이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쩔고… 아이고"

시장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아니 우리 모두 죽는다니…"

"이런 해괴한 일이 있는가"

"이봐요.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가 모두 죽다니, 무슨 변란이라도 일어났소. 아니면 돌림병이라도 생겼소"



그러나 정수동의 말을 들은 사람중 마음 약한 몇몇은 벌써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정수동과 같이 통곡을 한다.

"아이고 이게 웬 말이냐. 우리가 죽는다니"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아이고 고향에 있는 처자식을 어쩌나"

정수동과 같이 통곡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시장사람들이 모두 죽는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졌다. 놀라는 사람, 허둥대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좌판을 챙기는 사람들로 시장바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와중에 정수동과 같이 통곡하던 사람이 체념한 듯 정수동의 소매를 잡고 물었다.

"이보소. 죽을 때 죽더라도 이유나 알고 죽읍시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거요. 속시원히 말 좀 해주시오"

'정수동 일화' 수시로 떠올리며 생활
'본것은 보았다' 자세로 국정에 임해

"그래요, 이유나 알고 죽읍시다"

"얼른 말해보소"

정수동은 성화에 못이기는 척 하고 일어서서 말했다.

"일은 무슨 일이고, 변란은 무슨 변란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이들고 늙으면 모두 다 죽지 않소. 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거요"

정수동은 그리고는 한바탕 껄껄 웃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이라고 어느 스님한테 들었다. 그러나 중생은 삼라만상을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 것이니, 네 것이니 하고 분별을 한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노·병·사는 중생의 진리이다. 그러나 대부분 중생은 자신이 늙지 않고 병들지 않으며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착각 속에 산다.

정수동은 그 착각을 깨우쳐 준 보살이다. 내가 하는 수행은 특별한 것이 없다. 다른 신도들처럼 기도나 염불도 사실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저 산에 가는 길에 들러 부처님 전에 참배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나는 중생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진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본 것은 보았다고 하고, 보지 않은 것은 보지 않았다고 하면서 수행의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음호에〉

철사와 풀칠이 필요없는 더욱 간편해진 홍법등

홍법등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기존 홍법등의 단점을 더욱 간편하게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홍법등은 종전의 몸체 끼우개식의 결합 방식을 일체형으로 자동화시켜 하나씩 일일이 결합하던 방식을 역구도 방식으로 개선하여 몸체 부분의 결합이 필요 없이 상·하 테두리만 결합하면 완성되는 획기적인 제작방법으로 새롭게 탄생」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일일히 풀발이를 하던 등 제작이 「한 본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장엄한 팔각등이 1분내에 완성」되며 「기존 홍법등의 조립식을 더욱 개선하여 단 한번의 공정으로 보완 개발하여 신속하게 완성」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조선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과 문헌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장엄함과 전통 계승에 역점.

환경을 고려한 재사용이 가능한 등

부피가 적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되어 있으며 작금의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환경운동에 불교계에서도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어 사회적으로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순수 천연 펄프를 사용하여 재사용과 재처리를 통해 자원과 환경을 고려」하여 제작.

야외 장엄 및 점등의 효율성

「순수 천연 펄프를 사용하여 우천에도 관계 없이 행사 수일 전부터 점등하여 축제 분위기 장엄에 활용」「행사 당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점등 작업의 효율성」을 도모.

오직 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홍법 장엄등 영 가 등 실용신안:14461호 의장등록:38353호



천도 광명등

연등 초법등 종래 철골구조에 한장씩 속지를 바르고 건조 후 연잎을 붙이던 방식을 연등초벌웅을 이용하여 1분 내 조립 후 연잎을 붙임

영가등 봉축행사 및 각종 제의식의 영가 천도 등으로 겉지에 아미타불 변상도와 지방보살 만다라가 인쇄, 영가의 왕생극락을 발원

천도 광명등 선망부모님과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은혜의 지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겉지에 부모은중경의 그림과 경문을 사경

1분 완성 홍법등의 구조

■종래방식



철골 구조 조립 후 낱장으로 된 8장의 겉지를 일일이 풀칠로 붙인 후 건조

■홍법등

이중으로 접어서 공급합니다. 펼치면 팔각원통 모양의 등이 됩니다.



팔각원통 모양 한번의 공정으로 1분내 완성

접합

오직 불심으로 보답하는 **홍법기획**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호
전화:(032)613-4027~8 팩스:(032)665-0965

'95 어버이날 연예인 초청 효도 대잔치

백남봉



부처님 오신날 기념 어버이날 효도 대잔치가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열립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태국에서 백남봉 디너쇼를 기획하고 저렴한 경비와 알찬 여정으로 어버이를 초대합니다-

▌태국 5일	₩ 585,000	4회 한정출발
▌태국·홍콩 6일	₩ 695,000	5월 / 6일, 7일, 8일, 9일

▶ 상기 요금은 백남봉 디너쇼 포함 금액입니다.

● 방콕·파타야 5일 일정 서울→방콕/방콕→파타야/파타야(산호섬)/방콕/서울

● 홍콩·방콕 6일 서울→홍콩/홍콩→방콕/방콕→파타야/파타야→방콕/방콕/서울

(주)준항공 여행사 TEL:712-1113 협찬:태국정부 관광청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10〉

明覺禪師壁間遺文 (명각선사벽간유문) ②

永明禪師八溢聖解脫文 (영명선사팔일성해탈문)

死生未脫 業苦難逃 方其得志 亟思利正
사생미탈 업고난도 방기득지 극사리정
身如行則 利稱軟城
신여행측 리칭연적
百年非久 三界無安 可惜寸陰 當求解脫
백년비구 삼계무안 가석촌음 당구해탈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업고를 피하기 어렵나니 바야흐로 뜻을 얻을지면 재빨리 올바른 닦음을 생각하라

돌은 번소 가는것 같이 하고 (육신의 욕구는 더러운 것을 버리듯이 그렇게 하라는 뜻) 명리는 도적 (찰나에 나고드는 마음의 도적이라는 의미에서 연적이라함)이라 여겨라.

백년도 오래지 않고 삼계엔 안식처가 없나니 가히 촌음을 아깝게 여겨 마땅히 해탈을 구할지어다.

古先諸祖 擧有軌範
고선제조 거유의범

검약하면 잃는게 적고 사치하면 비난 얻고 겸손하면 시기함 없다

杖錫 一味喫土 丹破 只箇布裘
장석 일미끽토 단하 지개포구
趙州 再坂滿首 朗師 編草爲氈
조주 청회만수 랑사 편초위전
或深禪久修 或優誥不就
혹심선구수 혹우조불취
大都約則儉失 奢則招譏
대도약즉검실 사즉초기
謙則有光 退則無咎
겸즉유광 퇴즉무기
去佛途遠 行道有艱 觀時進止 無自辱也
거불유원 행도유간 관시진지 무자욕야

옛날 모든 선지식들이 훌륭한 본을 남기셨나니

장석선사는 평생 스스로 밭을 갈아 먹었고 단하선사는 평생 베옷을 걸치고 살았으며

조주선사는 푸른재를 뒤집어썼고(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수행을 했고 120세에 입적할 때까지 후학을 지도함) 랑 대사는 평생 풀을 엮어 이불을 삼았으며

혹 어떤 선사는 (두문불출하며)오래도록 참선했고

혹 어떤 선사는 임금의 부름에도 나아가지 않았다.

대체로 검약한 즉(욕심을 부리지 않음) 잃는게 적고 사치한 즉 비방을 초래케 되며

겸손한 즉 빛이 있고 물러 서면(하심 · 겸손의 뜻)시기함이 없다.

부처님 가신지 더욱 아득한지라 도를 닦음에 어려움이 있나니 때를 보아 나아가고 그치면 스스로 욕될게 없으리라.

禮佛者 敬佛之德也 念佛者 感佛之恩也
예불자 경불지덕야 염불자 감불지은야
持戒者 行佛之行也 看經者 明佛之理也
지계자 행불지행야 간경자 명불지리야
坐禪者 達佛之境也 參禪者 學合佛之心也
좌선자 달불지경야 참선자 학합불지심야
得悟者 證佛之道也 說法者 滿佛之願也
득오자 증불지도야 설법자 만불지원야

예불이란 (지극한 마음으로)부처님의 덕을 경배하는 것이요

염불이란 (지극한 마음으로)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요

지계란 (안팎으로 둘 아니게)부처님의 행을 따라하는 것이요

경을 본다함은(마음으로) 부처님이 설하신 참 이치를 밝히는 것이요

좌선이라 함은(마음으로)부처님의 경지에 통달해 들어가는 것이요

참선이라 함은 부처님 마음자리에 둘 아니게 계합해 들어가는 것이요

깨달음에 이른다 함은 부처마음 내 마음이 둘 아니게 들고 나는 것이요

법을 설한다 함은 부처님의 원력을 원만하게 이루고자 함이니라.

實際理地 不受一塵 佛事門中 不捨一法
실제리지 불수일진 불사문중 부사일법
然 此八事 猶如四方四隅 闕一不可
연 차팔사 유여사방사우 궐일불가

공에 집착한 사람들 불립문자 말하나 불경을 비방하는 것

前聖後聖 其揆(道)一也
전성후성 기규(도)일야
六波羅密 亦修兼行
육바라밀 역수겸행
六祖云 執空之人 滯在一隅 謂不立文字
육조운 집공지인 체재일우 위불립문자
自迷猶可 又謗佛經 罪障深重 可不戒哉
자미유가 우방불경 죄장심중 가불계재

실제로 진리의 자리에서는 티끌 하나도 용납하기 않으나 불사문중에서는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여덟가지 일은 마치 사방사우(동서남북, 서북서남,동북동남)와 같아서 하나라도 빠지면 옳지 않나니

먼저 성인이나 나중 성인도 그 법은 한가지라.

육바라밀을 또한 모름지기 겸하여 행함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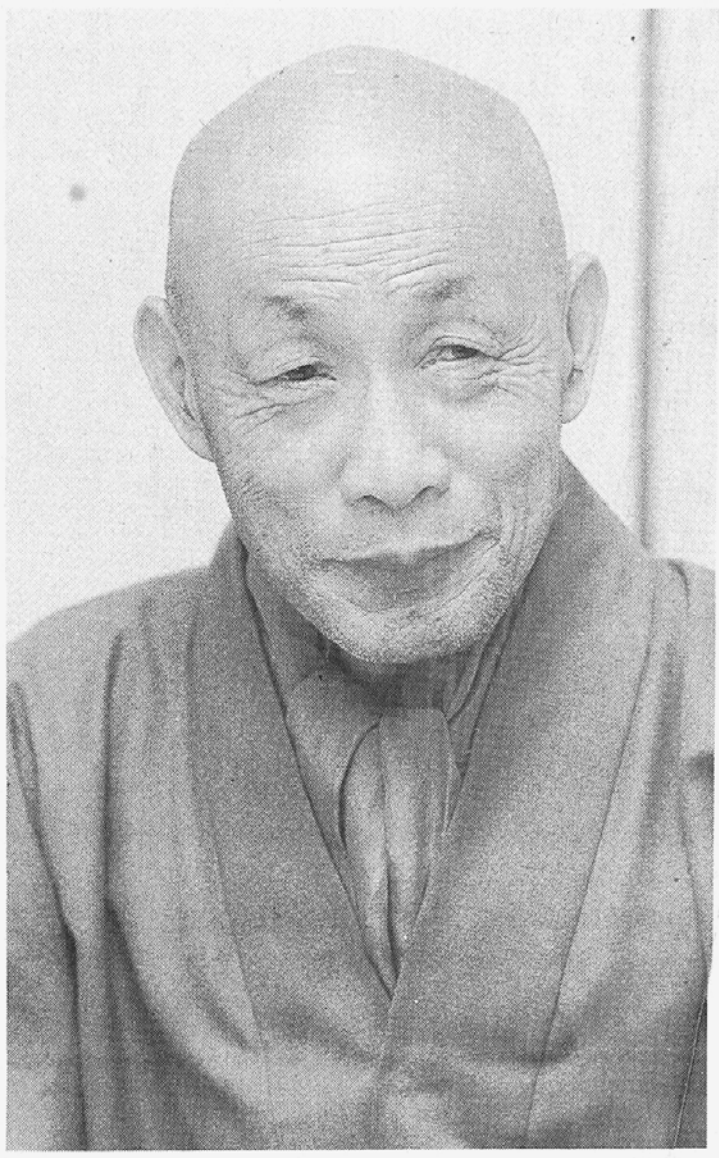
육조께서 이르시되 '공에 집착한 사람은 한 곳(방향)에 들어 박혀서 일컬어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하나니

스스로 미거한 것은 그렇다 하거니와 또한 불경을 비방함이 되는지라 죄장이 깊고도 무거우리니 가히 경계하지 않겠는가' 하셨다.

龍 眼

지상법석

"가르침 믿으면서 실천 안하면



운제스님 〈前 태고종 총무원장〉

약력
- 1922년 1. 25. 충북괴산 生
- 37년 한재순스님 은사로 득도
- 50년 동국대 사학과 졸업
- 조선대, 건국대 교수 역임
- 88~91년 태고종 총무원장
- 논문 〈원효의 인물과 사상〉외 40여편

불교는 다른 종교나 철학과 달리 세 가지의 명칭이 있으니 불교, 불법, 불도가 그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情)과 지(知)와 의(意)의 세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에는 아름다움을 찾는 심미적인 것이 있으니 이를 불교에서 부처의 가르침이라 이르며, 여기에는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겠다는 종교적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부처님이고 그 분의 가르침이기에 불교라 하며 아름다운 세계로 창조된 것이 극락세계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을 찬송하는 시에 '천상천하무여불(天上天下無如佛) 시방세계역무비(十方世界亦無比) 세간소유아진견(世間所有我盡見) 일체무유여불자(一切無有如佛者)라 하였습니다. 뜻을 풀이하면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 부처님이 가장 훌륭하고/모든 세계에 부처와 견줄 이가 없네/세간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보아도/일체가 부처님만한 분이 없네.

그러므로 우리 불교를 믿는 자는 부처님이 가장 훌륭한 분이어서 그 분의 가르침이 제일의 종교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깨달음에 구원 있어

불법이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이라는 말이니 이는 철학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다른 교에서는 종교와 철학은 영역이 다르다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철학없는 종교가 있을 수 없고 종교 없는 철학도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면에서는 불교라 하고 철학적인 면에서는 불법이라 하여 종교와 철학을 하나로 묶는 데서 불교의 묘미(妙味)가 있으니, 이는 참을 찾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는 밖으로 진리와 구세주를 구하는데 비하여 불교에서는 안으로 자기의 마음을 내놓고는 진리나 구원을 따로 말하지 아니합니다. 천경만론(千經萬論)이 지명일심(只明一心)이라 즉 모든 경론들이 다 마음 밝히는 도리를 말하였으니 이를 전미개오(轉迷開悟)라 합니다. 진리가 내 마음 안에 있고 구원이 자기의 깨달음에 있다고 보니 이것은 자력교(自力敎) 즉 자기의 힘으로 깨닫자는 종교입니다. 이를 간추려 말하면 인간 중에서 가장 완성된 분이 부처인데 부처란 마음을 깨닫은 분을 일컬기에 그분의 가르침에 의해 이루어진 세계가 가장 살기좋은 세계, 즉 극락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극락세계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쓰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를 이루어 극락세계를 누리는 것도 나를 내놓고는 따로 없으며 중생을 창조하여 괴로움을 받는 것도 나를 내놓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극락세계의 즐거움을 창조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지옥의 괴로움을 창조하는 것도 자기자신입니다.

그러기에 중국 선종의 개창자 달마대사는 형식불교를 타파하여 '조금도 공덕이 없다(小無功德)하였고, 양무제(梁武帝)가 계오(契悟)를 얻지 못하자 양자강을 건너가 소림사에서 9년동안 면벽을 하다가 마침내 제자 혜가(慧可)를 만났는데 그가 묻기를 "저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 편할 도리를 가르쳐 주소서" 하니 달마대사의 대답이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너라. 마음을 편하게 하여 주겠다" 하였습니다. 서양사람들이 불안의 요인을 환경에 있다고 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환경론은 외적으로 경계에 맡긴데 반하여 불교는 내적으로 자기 마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경계에 얽매여 자유 잃어

달마의, 마음을 가져오라는 말을 들은 혜가는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마음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사루기를 "마음을 찾아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覓不得)" 하니 달마대사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마음을 편하게 하여 주었네" 그 말에 혜가가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음에는 체(體)와 용(用)이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은 마음의 용 때문입니다. 마음의 체는 생(生)도 아니고 멸(滅)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을 마음으로 여기고 체를 보지 못하는 데서 환경에 끌려 나닙니다. 환경이 하자는대로 맡기는 데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용은 분명히 있는듯 합니다. 그러나 체는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言語道斷)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心行處滅). 여기서 마음을 찾을 수 없다 함은 마음의 체는 생이니 멸이니 있느니 없느니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혜가의 대답은 마음의 체를 본 것입니다. 마음의 용을 마음이라 함은 중생이요, 마음의 체를 마음이라 함은 부처와 조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용은 밖으로 환

중국구화산 신라승 肉身佛

지장보살 地藏菩薩

지장보살 신라승 김교각

중국 구화산 지장성지 현지 촬영 완성!
지장보살은 신라승 김교각이었습니다.
천이백년 동안 단 한번도 꺼지지 않은
김지장육신보전의 향불! 석가모니불로부터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 구제를
위해 삼생을 나투시는 무불시대의 메시아!
지장보살 신라승 김교각을 아십니까?

제1부 : 지장보살은 신라승 김교각
제2부 : 꺼지지 않는 김지장 깃발

비디오 구입문의 : 02-233-2830
우편판매 온라인 구좌번호 예금주
외환은행 : 139-13-05983-7 김행수
우 체 국 : 011213-0068986 김행수

명문대가집
현미먹는 비법
먹기어려운 현미 이렇게 먹으면 된다!

고향에 계신 어머님처럼 정성을 다하여 절구통으로 방아를 찧어서 먹던 쌀과 같이 원하는 분도로 즉석 정미한 저분도 쌀을 먹으면 됩니다.

절구통표 米壽米 – 현미저분도쌀

1. 현미의 문제점 : ① 먹기 어렵다.
② 영양섭취율이 떨어진다.
③ 묵은 현미를 먹을 가능성이 크다.
2. 왜냐하면 상인들이 현미의 먹기 어려운점을 악용하여 묵은 벼로 현미를 만들어 시중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먹기어려운 현미를 그냥 먹으라는 것은 먹지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4. 먹기엔 백미처럼 부드럽게 먹고 영양은 현미처럼 풍부하게 먹을수 있다면 완전한 해답이 됩니다.

2분도 현미(주식으로)+미강가루(없음)=현미(먹기 어렵다.)
3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쉽다.)
4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더쉽다.)
5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조금 더쉽다.)
6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아주 더쉽다.)

5. 변비에 특효인 미강가루는 거치른 쌀겨가 아니고 밀가루처럼 곱고 부드러운 분말로 생산하여 쌀과 함께 드립니다.
6. 회원이 원하는 분도별 쌀을 주문받아 생산하여 배달하는 것이므로 신선도, 맛, 영양가에서 뛰어납니다.
7. 회원의 집까지 배달됩니다.(20kg이상) 대리점모집중
8. 원하는 분도별 쌀 kg단가는 1,950원 입니다.

조상의 업을 지키는
쌀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 231-5421~2, 235-1846~7
正米食(쌀을 바르게 먹음)이면 米壽宴(여든여덟살이 되는 해에 베푸는 잔치)이다.

• 진정한 믿음은 확실한 앎에서 비롯된다!
• 알고있는 불교지식을 체계 있게 총정리할 유일의 기회

佛 敎思想강좌
Ⅰ. 대학 기본과정(2년 과정)
초기불교사상 : 1학년 전학기
대승불교사상 : 2학년 1학기
불 교 사 상 사 : 2학년 2학기
1. 강의 : 2539('95)년 4월 14일(금)개강, 1·3주(금 · 토)강의
※ (금) 오후 7:00~9:00 (토)오후 3:30~5:30
2. 장소 : 삼일선원 법당
3. 강사 : 최봉수 박사(불교원전번역연구소장, 동국대강사)
4. 수강료 : 1학기 10만원(대학생 특전부여)
※ 통신수강 : 기본교재 테이프 우송(1학기 3만원 별도)
5. 문의접수 : 삼일선원 사무국, 전화 237-4438~9

華嚴經대강좌
Ⅱ. 대학원 전공과정(6년 과정)
80화엄경 원전 및 통현화엄론 40권 종합강의
불교의 인생관 · 세계관 · 우주관을 구체적으로 밝힘!
일심이 일체를 창조하고, 전체와 개체의 조화원리 체득!
1. 강의 : 2539('95)년 4월 7일(금)개강, 2·4주(금 · 토)강의
※ (금) 오후 7:00~9:00 (토)오후 3:30~5:30
2. 장소 : 삼일선원 법당
3. 강사 : 각성스님(삼일불교교육원 상임지도법사)
4. 수강료 : 1개월 4만원(대학생 특전부여)
5. 문의접수 : 삼일선원 사무국, 전화 237-4438~9

재단법인 탄허불교문화재단
부설 삼일선원 · 삼일불교교육원
전철3호선 약수역 / 전화 : 237-4438 / 팩스 : 237-4439

공 고

대한불교 여래종 귀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비산1동 산 186-27호
사찰명 : 대한불교 일승종 불암사
주 지 : 황 옥 순

대한불교 일승종 불암사는 귀종단에 등록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불암사에 가해지는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대한불교 일승종 불암사
주지 황옥순

지상법석 ★

부처님 닮은 삶 못 얻습니다"

"전생에 일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받은 것이 그것이요 내생의 일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지은 것이 그것이라"

"극락세계는 자기마음속 자비심에 있어"

경에 매였으니 천차만별(千差萬別)이 달라지고 마음의 체는 안으로 일심(一心)이니 평등일여(平等一如)합니다.

이 마음의 체를 얻으려는 데서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경을 보는 등 정진이 계속됩니다. 이를 수행이라 이릅니다. 이는 밀음이나 느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수행을 요합니다.

불도(佛道)란 도(道)가 길이니 길을 가야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자비(慈悲)라는 말의 뜻은 알지만은 이를 실지로 행하지 아니함은 마치 배고픈 자가 입으로 밥 밥 하는 것과 같으니 이를 설식기부(說食飢夫)라 합니다. 부처의 길을 입으로는 말하나 몸으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부처는 되지 못합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보면 백월산 2대성인(白月山 二大聖)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월산 남쪽에 어떤 수행자가 수행을 하고 백월산 북쪽에도 어떤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두분이 다 열심으로 정진하는데 한분은 지혜는 뛰어나나 자비심이 부족하고 한 분은 자비심과 지혜를 갖추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두분을 돕기 위하여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처녀의 몸으로 나물 바구니를 들고 남쪽 암자에 이르러 말하기를 "이웃 동네 여자인데 날이 저물어 갈 길을 못 찾았습니다. 산중에는 호랑이 등 맹수들이 많으니 목숨이 위태합니다. 하룻 밤 재워주소서" 남쪽 암자의 스님이 대답하기를 "당신 같은 젊은 여자와 있으면 내 마음이 흔들리기 쉽소. 호랑이 등 맹수의 문제는 당신의 문제요. 나는 파계하기 싫소"하고 냉정하게 여자를 쫓아 버립니다.

참선은 '마음의 체' 얻는 것

관세음보살이 생각하기를 "이 수행인은 자기가 파계하지 않겠다는 수행은 대단하지만 사람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나만 온전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보아 자비심이 부족하구나" 하고 다시 여자의 몸으로 북쪽 암자에 이르러 똑같이 말하니 북쪽 암자의 스님이 생각하기에 "이 여인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를 구원해 주어야겠다"하여 그 여인을 방안에 들여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파계할 수 없어 방안에 선을 그어놓고 밤새도록 정진을 하였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그 수행인이 자비심 있음을 보고 한 술 더 떠서 밤중에 말하기를 "내가 아이를 낳으려 하니 산탕(産湯)물을 준비해 주시오"하니 그 수행인은 자비한 마음을 내어 산탕물을 끓여 주었더니 그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향내가 진동하였습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목욕물이 남아 있으니 당신도 들어와 목욕하시오"하여 목욕탕에 들어가니 몸과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전신이 황금빛이 되었으며 그 여인은 언제 없어졌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쪽 암자의 수행하는 이가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그 여자에게 파계될 뻔한 것을 면하였지만 북쪽 암자수행인은 틀림없이 파계하였을 것이니 내가 위로겸 놀려주어야겠다"고 북쪽 암자를 찾아가니 친구는 보이지 않고 누런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누렇게 부처가 된 친구가 자초지종을 말하고 이르기를 "목욕하던 물이 남아 있으니 들어와서 목욕하소" 하기에 그 목욕탕에 들어갔으나 물이 부족하여 반만 금빛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혜는 자리(自利)의 행이 주가 되고 자비는 이타(利他)의 행이 주가 됩니다.

이 설화는 자리의 행도 중요하지만 이타의 행이 더 중요하고 실행하기 어려움을 보인 것이요, 어려운 자비행이 이루어지면 부처 이루는 것이 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지도론(智度論)에 의하면 석가모니와 미륵의 관계에서도 지혜보다 자비가 부처를 이루는 중요한 길임을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이고 불법은 부처의 가르침의 내용이고 불도는 부처가 되는 길임을 말하였습니다. 이를 불(佛) 법(法) 승(僧) 삼보라고 일러 삼위일체, 즉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으로 말합니다.

불교에는 전기(轉機), 즉 마음을 돌리는 기틀과 전어(轉語) 즉 마음을 돌리는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불교를 배우기 위하여 절을 찾고 법회에 나가서 법사를 뵈옵고 법문을 듣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 교를 믿기만 하면 되지만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주로 하기에 전기 즉 이제까지 중생적인 생활에서 부처의 생활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전기가 필요하고 전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보다 자비가 더 중요

전기와 전어는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으니 보는 것으로는 절을 보고 스님을 보고 스님들의 몸을 보고 행위를 보고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요, 듣는 것으로는 법사의 말이나 고승의 이야기나 라디오 등을 듣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법회에 자주 나가서 법사의 말을 들으며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가 부처임을 자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교를 이론적으로만 알지 말고 자기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인류를 위하는 불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인이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 제일인 사리불은 본래 외도에 출가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성과 지혜가 뛰어났기에 외도의 가르침에 만족치 못하여 그의 친우, 목건련과 약속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지혜로운 좋은 가르침을 만나면 서로 권하여 그 가르침에 들어가자' 고 하였습니다. 어느날 사리불에게 마승(馬勝)이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와서 말하기를 "전생의 일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요 내생의 일을 알고 싶으면 금생에 지는 것이 그것이라" 함을 듣고 감탄하기를 "이 말은 신의 창조를 인정치 않고 내가 창조자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창조의 원리로서 인연론이 제시되었음을 알겠다" 하고 목건련과 함께 불교에 귀의하여 사리불은 지혜 제일이 되고 목건련은 신통 제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인과의 법칙입니다. 모든 일이나 모든 물건은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인연이 횡으로 말한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인과는 종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민족은 옛부터 인과론을 중요하게 보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한 것과, 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에는 동시(同時)인과와 이시(異時)인과가 있습니다. 동시인과란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되는 것이니, 예를 들면 가게에 가서 돈을 주는 것과 동시에 물건을 사는 것처럼 이를 동시인과라 합니다. 그러나 동시인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시인과가 많이 있으니, 예를 들면 봄에 꽃이 피었다 떨어지고 가을에 열매가 성숙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교는 삼세를 주장하기에 현재의 인과도 알기 어려운데 과거의 인과와 미래의 인과는 더욱 알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가 창조자임을 알아야

미래의 인과에는 금생(今生)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것을 순시(順時)인과라 하고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받는 것을 순생(順生)인과라 하고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을지 내생에 받을지 후생에 받을지 정하지 못하는 것을 부정(不定)인과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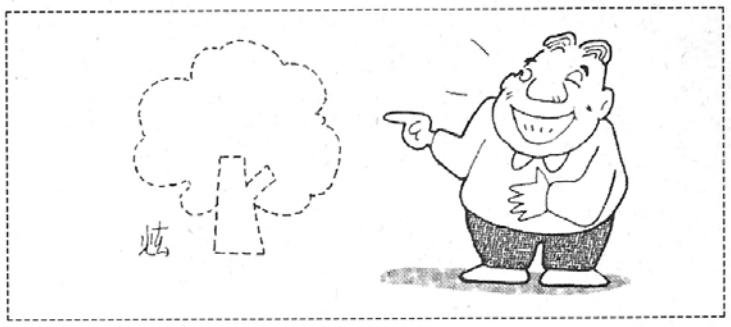
그러나 인연과 인과의 법칙은 없어지지 않아서 가사 백천겁(劫)이 지나가도 없어지지 않았다가 인연이 다시 만날 때에 인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假使百千劫 所作業不滅 因緣會遇時 果報還自受)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이 그러하기 위하여는 동체대비의 입장에서 다음 몇가지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첫째, 인연의 도리를 깨닫자는 것입니다. 인연이란 자칫하면 숙명론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그것은 길거리에서 옷깃 한번 스치는 것도 5백생의 인연이라 하는 것 등 입니다. 그런데 인연의 참 뜻은 숙명론보다는 창조론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는 神 창조론을 주장하지만 불교는 인연의 법칙에 의하여 모든 것이 창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연의 인(因)은 주체니 즉 자신을 말하고 연(緣)은 조연(助緣)이니 즉 인을 도와주는 환경을 말합니다. 인과 연이 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인과 연이 흩어지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은 반드시 인연의 법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흩어지는 것이지 우연이나 자연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삼세인연이라 과거와 현지와 미래입니다. 인연의 주된 세력은 업(業)으로서 과거에 지어진 인연을 말할 때는 숙명론을 들먹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를 말할 적에는 창조론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23

양 형 진

중도철학과 원자론

찰라생멸하는 무수한 미립자 본성 없어
중도철학은 양극단을 포섭한 空의 세계

데모크리토스 이래 서구의 원자론은 물질의 궁극적인 요소를 탐구하고자하는 것이었고,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이 물질의 궁극적인 요소를 원자라고 불렀다. 물질의 구성요소로서의 원자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는 주기율표가 완성되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접하는 물질은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해 보이지만, 이를 구성하는 원자는 1백여 종 밖에 안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 원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분자를 이루고, 무수히 많은 수의 분자들이 모여 우리가 보고 만지는 물질 즉 거시세계를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주기율표를 완성시키기는 하였으나, 그때 까지 원자 자체의 구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그 이후 원자 구조를 탐구하면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원자본이 본래 의미하였던 바와는 달리, 원자는 물질의 궁극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우선 이 원자의 구조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도록 하자. 가장 간단한 구조의 원자는 수소원자이다. 수소 원자는 하나의 양성자가 원자핵을 이루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은 전자 질량의 1천8백배 가량이므로 원자의 질량은 거의 대부분 양성자의 질량이다. 따라서 수소 원자의 경우 원자핵의 질량은 전자 질량의 1천8백배 가량이 되며, 다른 원자의 경우 이는 대부분 전자 질량의 3천6백배 이상이다. 그러나 원자핵의 반지름이 10^{-13}m 정도이고 수소 원자의 반지름은 5×10^{-11}m정도이니 그들이 차지하는 공간적 부피는 그들의 질량과는 오히려 반대이다. 워낙 작은 숫자들이니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양성자를 반지름이 1Cm 정도인 구슬로 부풀린다고 하자. 그러면 수소 원자의 반지름은 5백m정도이다. 이 모형에 의하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핵은 반지름 1Cm인 구의 작은 공간 안에 존재하지만, 원자 질량의 1/1,800 밖에 안되는 전자는 반지름 5백m의 구가 차지하는 삼차원 공간을 도는 것이 된다. 더우기 이 두 구가 차지하는 부피의 비는 1:125,000,000,000,000정도이다. 가령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전자를 다 떼어내고 원자핵 만으로 뭉쳐 놓는다면, 반지름이 0.01mm 쯤 되는 구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물체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 물체의 질량의 대부분은 100조분의 1이라는 작은 공간에 몰려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거의 텅빈 공간일 뿐이다. 우리는 사실 그 텅빈 공간을 보고, 만지고, 맛보고, 돌고 하면서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고 하고, 매끄럽다거나 거칠다고 하고, 맛있다거나 맛없다고 하며 깨끗하다거나 더럽다고 한다.

20세가 초의 과학자 일부는 원자의 구조를 알고 나서 자연의 궁극적인 모든 구조가 밝혀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탐구의 시작이었다. 원자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이것 역시 궁극적인 물질은 아니었다.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시 수없이 많은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미립자들의 수명은 불과 10^{-23} 초에 불과하니, 순식간에 이어지는 생과 멸은 분자 그대로의 생과 멸이 아니다. 생과 멸 서로가 서로에 대해 동인(動因)으로 존재한다. 생과 멸이 동시적으로 공존하며, 역동적으로 결합하여 있다. 바로 생즉멸이요 멸즉생의 세계이다. 이러한 존재 양식은 생이나 멸 그 어느 것으로도 온전히 표현될 수는 없으니, 이를 일러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월정(月正)스님이 불생불멸의 멸이 찰라멸이라고 해석한 것은 현대물리학의 관점과 연관된다 하겠다.

이처럼 순간에 생하고 멸하는 이 미립자들이 고정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자성을 가지지 않는 무수한 미립자들이 관계의 틀 속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하니, 이것이 곧 연기요 공이다. 우리 앞에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이 오직 연기일 뿐이니 공이요, 공이지만 연기에 의해 우리 앞에 현현하니 그것이 색이다, 그러므로 연기무자성공(緣起無自性空)혹은 색성공(色性空)이라 한다.

불생불멸만이 아니라 용수보살이 설한 팔불중도(八不中道)의 불상부단(不常不斷) 불일불이(不一不異), 불거불래(不去不來), 그리고 반야심경의 불구부정이나 부증불감 모두는 어느 한 극단이 아닌 중도의 철학을 나타낸 것이다. 성철스님은 이 양극단을 떠나 중도를 행하는 것이 반야바라밀이라 하였다. 이때의 중도란 양극단의 중간쯤에 위치한 어떤 것이 아니라 양극단을 여의면서도 양극단을 포섭하는 것이어서 공가중(空假中)의 삼제가 원융하니 천태의 기본교의와 연관된다. 또한 양극단을 여읜 중도의 깊은 이치는 생이나 멸등의 양극단의 문자가 의미하는 바에 의해서는 나타내질 수 없으니 언어나 문자, 관념의 한계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승의제와 세속제나 선불교에서의 언어도단(言語道斷)과 연관된다. 더구나 현대물리학에서의 원자는 미립자의 기본 단위들을 그저 단순히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미립자 상호간의 관계의 종합으로 파악해야만 하는 것이므로, 서로가 걸림없이 무한히 이어지는 중중무진 법계연기(重重無盡法界緣起)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고려대 교수 · 물리학과〉

불교성지순례

효도관광

태 국 5日
- 귄 일정: 방콕(아유타야 불교유적지, 새벽사원, 에메랄드 사원, 황금불사원, 대리석 사원, 왓포, 수상시장, 왕궁, 2박)-파타야(미니시암, 농눅빌리지, 산호섬, 2박)
- 귄 출발일: 4月 20, 26, 27 / 5月 3, 4, 10, 11, 17, 18, 24, 25, 31
- 귄 동참금: ₩ 595,000

미얀마 · 태국 8日
- 귄 일정: 양곤(1박)-파간(쉬에지곤 탑, 마누하 사원, 1박)-만달레이(백만불사, 보디타타웅, 마하무니 파고다, 만달레이 힐, 2박)-양곤(쉐다곤 대탑, 까바에 파고다, 1박)-방콕(새벽사원, 에머랄드사원, 왓포, 황금 불사원, 대리석 사원, 수상시장, 2박)
- 귄 출발일: 4月 26 / 5月 3, 10, 17, 24, 31
- 귄 동참금: ₩ 1,400,000

인도 · 네팔 10日
- 귄 일정: 델리(붉은성, 간디 기념비, 2박)-아그라(타지마할, 1박)-카쥬라호(카쥬라호 사원, 1박)-바라나시(갠지스 강, 사르나트 박물관, 2박)-카트만두(티벳사원, 쿠마리 사원, 2박)-방콕(1박)
- 귄 출발일: 4月 21, 28 / 5月 5, 12, 19, 26
- 귄 동참금: ₩ 1,990,000

대 만 4日, 5日
- 귄 일정: 일월담(1박)-고웅 · 불광사(1박)-화련(태로각, 장춘사, 1박)-타이페이(고궁 박물관, 충열사, 용산사 1박)
- 귄 출발일: 4月 21, 25, 28 / 5月 2, 5, 9, 12, 16, 19, 23, 26, 30
- 귄 동참금: ₩ 530,000 (4日) ₩ 595,000 (5日)

스리랑카 6日
- 귄 일정: 콜롬보(강가라마 사원, 1박)-캔디(불치사, 1박)-하바라나(시기리아성, 폴론나루와, 1박)-마힌탈레, 아누라다푸라(관광)-콜롬보(1박)-기내(1박)
- 귄 출발일: 4月 25 / 5月 2, 9, 16, 23, 30
- 귄 동참금: ₩ 1,070,000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9日
- 귄 일정: 카트만두(쿠마리 사원, 티벳사원, 2박)-델리(간디 기념비, 1박)-아그라(아그라성, 타지마할묘 1박)-기내(1박)-캔디(불치사, 폴론나루와, 1박)-콜롬보(1박)-방콕(에머랄드 사원)-기내(1박)
- 귄 출발일: 4月 22, 29 / 5月 6, 13, 20, 27
- 귄 동참금: ₩ 1,895,000

방콕 · 파타야	5日 ₩ 569,000	방콕(1박)-파타야(2박)-기내(1박) 4月/20, 23, 26, 27 5月/3, 4, 10, 11, 17, 18, 24, 25, 31
방콕 · 푸켓	5日 ₩ 649,000	방콕(1박)-푸켓(2박)-기내(1박) 4月/20, 26, 27 5月/3, 4, 10, 11, 17, 18, 24, 25, 31
동남아 3국	5日 ₩ 655,000	싱가폴(4박)-바탐 · 조호바루(관광) 4月/21, 22, 24, 26, 28, 29 5月/1, 3, 5, 6, 8, 10, 12, 13, 15, 17, 19, 20, 22, 24, 26, 27, 29, 31
대만 · 화련	4日 ₩ 495,000	타이페이(2박)-화련(1박) 4月/22, 23, 26, 29, 30 5月/3, 6, 7, 10, 13, 14, 17, 20, 21, 24, 27, 28, 31
홍콩 · 마카오	4日 ₩ 529,000	홍콩(3박)-마카오(관광) 4月/20, 25, 27 5月/2, 4, 9, 11, 16, 18, 23, 25, 30
홍콩 · 방콕 · 싱가폴	8日 ₩ 995,000	홍콩(2박)-마카오(관광)-방콕(1박)-파타야(2박)-싱가폴(2박) 4月/23, 30 5月/7, 14, 21, 28
방콕 · 푸켓 · 싱가폴	6日 ₩ 795,000	방콕(1박)-푸켓(2박)-싱가폴(2박) 4月/25 5月/2, 9, 16, 23, 30
하와이	5日 ₩ 699,000	호놀룰루(3박)-기내(1박) 4月/20, 22, 23, 26, 27, 29, 30 5月/3, 4, 6, 7, 10, 11, 13, 14, 17, 18, 20, 21, 24, 25, 27, 28, 31
지중해 일주	20日 ₩ 4,650,000	파리(1)-카사블랑카(2)-마라케쉬(관광)-탕기에르(1)-지브랄타(관광)-말라가(1)-그라나다 · 코르도바(관광)-세빌리아(1)-리스본(1)-마드리드(2)-바르셀로나(1)-아테네(1)-이스탄불(2)-예루살렘(2)-카이로(2)-취소(1)-기내(1) 4月/29 5月/6, 13, 27
중남미 일주	20日 ₩ 4,980,000	LA(1)-아카풀코(2)-멕시코시티(2)-리마(1)-쿠즈코(2)-리마(1)-상파울로(1)-이과수(2)-부에노스 아이레스(1)-리오데자네이로(2)-마나우스(2)-아이레(1)-기내(1) 4月/30 5月/14, 28

여행조건 10人 이상 출발, 전 일정 식사 제공,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 해외 여행자 보험 자동 가입, 현지 가이드 동행

21세기를 지향하는
불교 성지 순례 전문 (주) 아 태 관 광 국외 여행업 제 817 호 ☎ 732-3200 (代)

고은 불교 대하소설

수미산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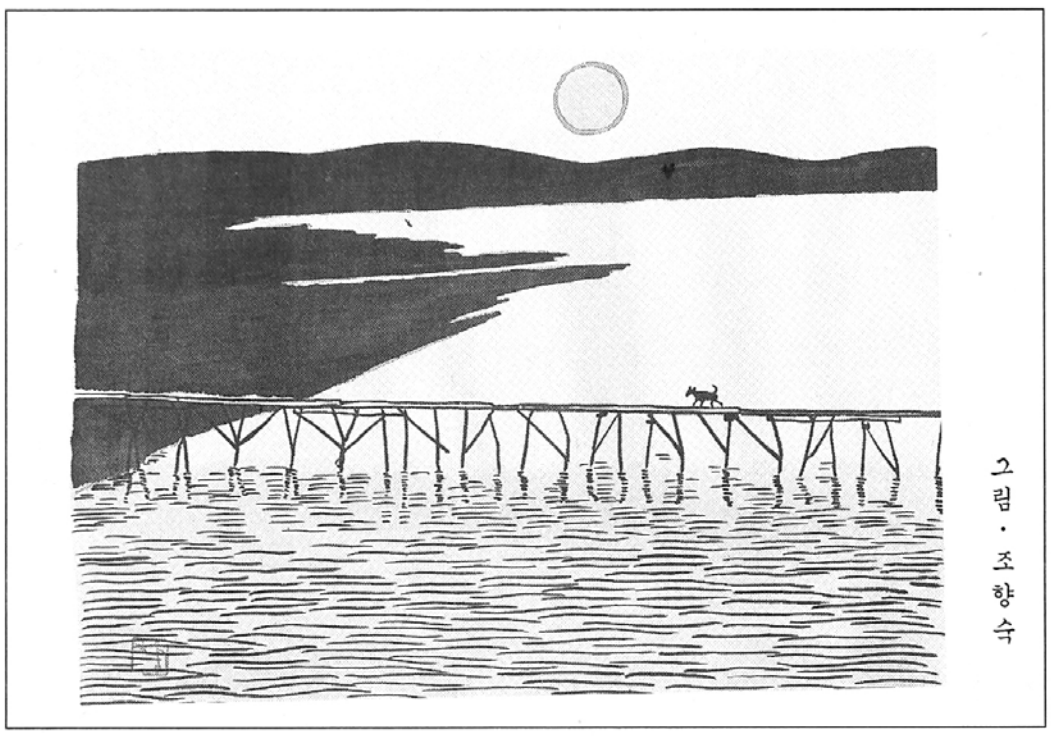


그림 · 조향숙

사나이들 돌아간 뒤

"여기 박동만이라는 사람과 장일순이라는 사람이 있을 터이요… 그 사람들을 내놓지 않으면… 이 섬의 갈대지붕 따위야 대번에 불질러 한 줌 재로 날라가게 할 터이요. 아니 섬 전체를 다 태워 민둥산을 만들어 버릴 터이요"

"…"

"여기에 샘이 서너군데 있다지? 그 섬에 독약을 넣어버릴 터이요. 자아 여기까지가 우리의 뜻인 줄 알아서 하구려"

"…"

"보아하니 중 행색인데… 무슨 계략(計略)을 꾸며 나라의 변방을 어지럽히려고 이렇게 모여들어 사람을 꼬득이는 것이오?"

"…"

우선 이곳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횃불 하나였으므로 한 사람인줄 잘못 알고 있었다. 아니 그것도 이 섬안의 누군가가 밝힌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아니었다. 낯선 세 사나이가 한 개의 횃불을 붙여 들고 있었다.

인담이 나섰다. 인담과 우녀 뒤의 어둠 속에 수원 수월이 숨어있었다.

새벽 예불이 난감하게 되었다. 인담의 말은 예불에 구실을 붙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수행자들입니다. 지금 예불시간이니 예불을 마친 뒤 손님들을 맞아 들일까 합니다"

"손님이라! 하하하…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 선단(船團)의 배 한 척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놈들을 잡으러 여기에 발을 디딘 것이오. 이렇게 점잖게 말이 나올 때… 그 놈들을 내놓기 바라오"

"허허 무슨 말씀이신지"

하고 인담이 시치미를 떼고 그들의 만만치 않은 댓거리에 맞섰다.

"우리는 저 남방의 제주도를 지나 유구국(硫球國)까지 다니는 무역선단 뱃사공들이오. 청나라 복주(福州)까지도 우리가 다니는 세상이란 말이요… 그런데 얼마전 이 일대를 한밤중에 지나다가 선단 끝에 있는 배 한척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오. 어서 아는대로 이실직고(以實直告)를 하기 바라오"

"허허 무슨 말씀이신지"

인담은 이 말만을 되풀이 하였다.

"아무래도 이래서는 안되겠구려… 저 안남(安南)의 수부(水夫)들이 행하는 용왕제를 지내야 하겠구려"

이곳을 상대하는 그 중년 사공의 말투는 전혀 뱃사공의 거친 성정(性情)이나 급한 폭행 따위와는 거리가 있는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같은 사실이 인담을 저으기 당황하게 만들었다.

필시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으리라.

우녀가 벌써 희뿜해지기 시작하는 먼동무렵에 더이상 방관할 수 없어서였는지 앞으로 나섰다. 그러자 그녀 뒤에 가려져 있던 수원 수월들이 슬쩍 몸을 돌려 얼굴을 숨겼다.

"대낮에도 얼마든지 여기에 올 수 있거늘 어찌 새벽에 들이 닥치지 않으면 안될까닭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손님 세 분께서는 그 투사람을 잡아다가 어찌할 생각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그 놈들이 있다는 말이겠지요?"

"아니오… 나는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숨이 희생되는 일을 막는 것이 우리 수행자의 본분(本分)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잡혀 간다면, 잡혀가서 죽게 된다면… 그것을 한사코 막아야 하는 일이 우리의 일 입니다. 수행이란 나 혼자 하늘로 올라가는 공부가 아니라 세상의 어긋나는 일을 멈추게 하는 공부입니다"

그때에야 세 사람 중의 맨 뒤에 서있는 나이 지긋한 사공이 나섰다.

"그들이 우리 선단의 선창에 둔 함농(函籠)을 열 수 있습니다… 그 함농으로 말하자면 청나라 연경(燕京) 회회로(回回路)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서역의 보물이 들어있고 바로 그것이 들어있는 름지막한 함농의 열쇠를 박가와 장가가 가지고 있음에 틀림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함농을 열쇠 없이 부수어 버릴 수도 없습니다. 함농 자체가 금은 마노 호박등이 박힌 보물로 된 상자이니까요"

한 사나이가 발 뒤끔치까지 닿을락 말락하는 긴 칼을 차고 있었다. 칼집에서 칼을 쓰윽 빼었다. 어둠 속에서도 어떤 빛이 그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수원이 숨어있다가 "앗!"하고 비명을 지르며 나타난 것이다.

그는 얼굴이 가득 피어있는 머리의 고통 때문에 시달리는 터인데 거기에 그를 잡으러 온 선단의 동료까지 나타났으니 더이상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관철하는 척할 수 없었다.

"박동만이요. 내가!"

그때 횃불이 그의 얼굴 앞에 디밀어졌다. 횃불 불빛에도 그의 충혈된 눈이나 온통 증기가 나있는 삭발머리가 징그럽게 보여졌다.

횃불 사나이가 얼른 횃불을 낮췄다.

흑시 그 박동만, 그러니까 수원이 문둥병이라도 걸린 것이 아닌가 하고 사나이들은 속으로 질겁을 하는 것이었다.

"나를 죽여주오. 지금 나는 지극히 몹쓸 병에 걸려있고… 나와 함께 여기에 온 장일순이는 이미 저승 사자가 데려가고 말았오… 그 함 열쇠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단 사령(司令)인 우공(愚公)이 가지고 있오… 우사령이 그 청나라 보물을 사사롭게 차지하려고 우리에게 누명을 들씌운 것이 틀림없을 것이오… 가서 우사령을 조져보시오… 나야 데려가도 그만 안데려가도 그만이나… 내 몹쓸 병이 옛 동료에게 전염될까 그것이 두렵구려… 흐윽"

그때였다. 맨먼저 나섰던 중년 사공이 한 발짝 물러서며 동행을 이끌었다.

"돌아가자. 이 놈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는 다음에 도모하기로 하고…"

우녀가 말하였다.

"다음에 이곳에 올 때는 이런 일로 오지 말고 공부하러 오시지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들은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 아래 바위너설에 매 놓은 배를 타고 파도 위에 떠 갔다.

그동안 수원은 문둥병으로 행세하는 꾀를 내었지만 수월은 우녀 뒤에서 허리를 굽혀 곱사등이 모양을 하고 있었다.

첫째는 아직 어둠 속이었고 둘째는 머리를 깎은 모습이었고 그것으로 모자라 얼굴을 문둥병으로 속이는 방편(方便)까지 내어서 그 세 사공을 아슬아슬하게 돌려 보낼 수 있었다.

더구나 선단 사령이 저 혼자 독차지하려는 함농의 열쇠를 핑계댄 사실도 밝혀졌으니 세 사나이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었다.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왔오? 문둥병이라니요?"

하고 우녀가 슬쩍 웃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 웃음으로 끌내지 않았다.

"장부가 설사 죽을 고비에 다다랐다한들 거기 한 오리 거짓으로 벗어나고자 해서는 안됩니다. 거짓이란 잘못 알고 있는 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을 죽이는 살생입니다"

수원, 그러니까 박동만은 갈대정사 모퉁이로 물러가서 어린 아이처럼 흠적흠적 울어댔다.

이런 무서운 훈계를 누구보다 인담이 그의 가슴속이 섬뜩해질 만큼 받아들여야 하였다.

'어디서 저런 조사(祖師)의 경책이 마구 쏟아져 나온단 말인가. 정녕 우녀스님의 입은 한 여인의 입이 아니라 사자의 입이로다. 다시 한번 두렵도다. 두렵도다'

만화가 수원을 달래러 갔다. 한동안이 지나갔다.

"스님!"

하고 그가 정사 뒤쪽에서 인담을 불렀다. 이 섬에서 인담이나 우녀에게는 굳이 법명을 불혀 부르지 않고 스님이라는 여느 이름씨만으로 불리어 졌다.

"스님! 수원스님의 눈이 붉은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과연 인담이 성큼 걸어가서 실컷 울고 난 수원의 눈을 살펴보니 사나운 충혈이 다 나아버린 맑은 눈이었던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그의 머리통에 채워진 증기에도 붉은 빛깔이 보라빛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이제 아침이었다. 아침의 바닷바람은 지난 밤내내 불던 그 바람이건만 그 바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이었다.

"바람이 씻어주신 것이겠지!"

인담이 수원을 지극히 아끼는 심사로 그렇게 말하였다. 그의 곁에 우녀가 와 있었다.

"오늘 예불은 수원스님이 혼자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녀도 매우 흐뭇하게 아침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먼 곳이었다. 마음 속에서는 멀고 가까움이 둘이 아니건만 그 마음 밖의 경계에서는 먼곳이 있다.

먼 곳을 바라볼 때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귀신에게나 가장 영혼적이다.

저 천축 제간고원의 사자나 조선 백두대간(白頭大幹)의 호랑이가 먹을 것을 먹고 난 뒤 바람에 꼬리의 터럭을 움직이며 먼 지평선이나 저 아래의 어떤 소멸 직전의 시점(視点)을 바라볼 때야말로 얼마나 의연한 정신의 기상을 표상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우녀의 깊은 눈 안에 달려오고 있는 아침바다의 그 정숙한 수평선의 일자(一字)야말로 세상과 자아가 온통 그 일자일 수 밖에 없는 궁극 직전을 그려주는 것인가.

인담과 우녀는 아침 공양의 죽을 먹기에 앞선 빈 뱃속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 둘 큰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아직 바깥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어느 때보다 축복의 감정에 에워싸여 있었다.

"스님이 이곳 도량을 열으셔서 우리가 이토록 환희의 나날을 이루어 갑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아니 우녀스님이야말로 이 도량을 열어서 한 회상을 이룬 것입니다"

"하기야… 어찌 우리 둘이나 열사람만의 일이겠습니까. 열사람은 열사람의 숙세(宿世) 만으로도 삼라만상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럴테지요"

"스님 감사합니다"

"우녀스님한테 나도 감사합니다"

그들은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느 순간들마다 가장 용기 있는 권화(權化)라고 믿고 있었다.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방에 들어갑시다. 한 종지 죽이 공부하는 법당(法堂)을 울긋불긋 단청(丹靑) 하겠지요"

마음속에서는 멀고 가까움이 둘이 아니건만 그 마음밖의 경계에서는 먼곳이 있다. 먼곳을 바라볼 때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귀신에게나 가장 영혼적이다.

"수행이란 나혼자 하늘로 올라가는 공부가 아니라 세상의 잘못을 멈추게 하는 공부입니다"



불교성지순례

백 두산·연길·북경 5일
· 출 발 : 5월 3일, 6월 3일
· 동참금 : 100만원
· 일 정 :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스리랑카 6일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출 발 : 6월 2일
· 동참금 : 118만원

■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보로부두르 사원-
· 출 발 : 5월 7일, 6월 4일
·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불광사 · 화련 · 타이페이-
· 출 발 : 5월 2일, 6월 5일
· 동참금 : 65만원

중 국불교유적지 13일
· 출 발 : 5월 30일
· 동참금 : 195만원
· 일 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실 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
· 출 발 : 6월 3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 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 벳 · 네팔 10일
· 출 발 : 5월 27일
· 동참금 : 230만원
· 일 정 :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장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인 도 · 네팔 · 태국 10일
· 출 발 : 5월 26일
· 동참금 : 150만원
· 일 정 :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 · 스와이앰부넛)-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사원)-서울 ■한국음식 제공■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 (代)

청소년 '불교 공부마당' 태부족

사찰학생회 자체프로 없고 성인법회 모방

관심 · 재정지원 절실…중등부 · 고등부 이원화도 필요

서울 사천왕사 선재학생법회 양선혜(창일중 1학년)법우는 지난 2월 꽃누리어린이회를 졸업하자마자 선재학생법회에 입학했다.

국민학교 2학년때부터 언니와 함께 법회에 참석해온 선혜는 "어린이법회보다 분위기도 엄숙하고 스님의 설법도 어려워 졌어요"라고 말했다.

선혜의 말처럼 각 사찰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학생법회의 대부분이 청소년기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채 성인법회의 모방 또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실정이다.

대로 된 프로그램하나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청소년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계종 포교원내에 어린이 청소년 포교전담기관의 설치도 시급한 문제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체육대회 등 만남의 자리로 어린이 · 청소년 · 청년들에게 자연스런 소속감과 유대감을 심어주는 것도 지속적인 신행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 포교의 현장에서 만난 불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이은자 기자〉



◇ 체육대회를 통한 어린이 · 청소년 · 청년의 만남의 자리도 중요한 포교의 한 방법이다.

'학생회 조직관리' '지도자 양성' 제안

전국 교법사단 '청소년 교화방안 세미나' 우인보 · 박영동법사 발표

조계종 포교국내에 청소년 분과를 제도화하고 전국 사찰 불교학생회와 학교불교학생회 연합회 결성, 조직 관리를 법제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지난 8일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열린 전국교법사단 창단 4주년 기념 불교 청소년 교화방안 세미나에서 동대부속중학교 우인보교법사는 '불교학생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우법사는 이와함께 효율적인 불교학생회 운영을 위한 통일된 불교학생회 운영지침서 발간등을 발전을 위한 중요 과제라고 밝혔다.

종단차원의 조직관리와 지원을 바탕으로 불교학생회를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전문화된 포교적 성격의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우법사는 불교학생회의 자치적인 능력 배양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동대부속고등하교 박영동교법사는 '불교청소년 지도자 육성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년1회 이상의 정기적 연수 실시, 단계별 교육이수 방안등을 발표했다.

또한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와 교구본사간의 상호협조가 필요하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지도자 자격연수에 더많은 사람이 참여토록 유도 홍보할 것등을 제안했다.

이은후 건강칼럼 <22>

집착버리면 황홀 · 우울등 극단적 감정 해소

정서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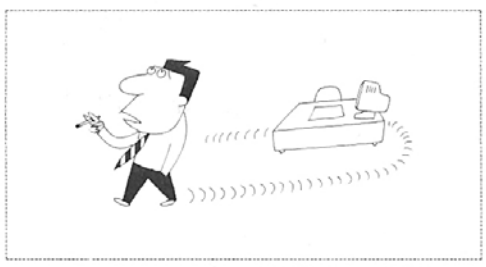
사람들의 감정을 대표하는 말로 희로애락이란 말이 있다. 기쁨과 노여움 그리고 슬픔과 즐거움을 이르는 감정의 대표적인 내용이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라거나 아니면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상대방에게 인사를 할때가 있다. 이럴때 우리들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얼굴 표정등을 살펴 그로 인한 자신의 느낌을 담아 보내는 메시지가 바로 인사가 된다. 한 부인은 외래진료실에 들어온지 10분이 지나도록 말이 없다. 어디가 불편하여 왔느냐고 문진을 해도 도무지 대답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내어쉰체 말이 없다. 표정으로 보아 이세상을 살기 조차 싫은 표정을 짓고 있다. 슬픈 표정이 역력하다.

어떤 중년 신사 한분은 외래진료실을 찾아들기가 무섭게 자신의 감정을 들뜬체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 놓는다. 치료자가 자신의 말을 듣고 있거나 말거나 자신의 느낌을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경우는 물어보나 마나 자신의 기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말이 많아진것이다.

앞서 말한 환자는 슬픔 때문에 말이 없고 뒤의 환자는 기쁨 때문에 말이 많다. 평소의 자신의 말수를 기준으로 말이 적고 많음에 따라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정신의학적으로 대표되어지는 환자의 정서는 극단적인 쾌락정서와 우울정서가 문제가 된다. 지나치게 기쁘거나 슬프다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증상을 일으킬수 있다는 뜻이 된다. 자신이 경험한 극단적인 정서를 자신의 신체적인 기능이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병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정서의 극단은 기쁜 것이건 슬픈 것이건 매 마찬가지다. 쾌락정서에는 정서의 기분 좋은 정도에 따라서 다행증, 의기양양, 고양, 황홀감등의 용어로 표현하는데 쾌락정서의 극단은 황홀감이라고 할수가 있다.

이 황홀감은 황홀한 느낌은 물론 신비로운 힘을 느끼며 거대한 우주의 힘을 가진 느낌이다. 우울감의 극단은 단연 슬픈 기분인데 이 정서는 정신과 환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정서이다.

오지 않는 것을 분노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집착하여 매어달리면 슬픔이 깃든다. 정서의 극단은 신체적인 증상을 일으키고 신체적인 증상의 지속된 상태 바로 그것을 우리는 병이라고 부른다.

지나가 버린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닦는다면 적어도 정신과적 질병을 앓지 않을 것이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어리석음의 장 *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에게 원수처럼 행동한다



이향원



효림의 책에는 깨달음의 향기가 있습니다.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쉬운 불교책



읽기 쉽습니다. 배우고 행하기 쉽습니다.
일타 큰스님의 가르침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불교 초심자들이 배워야 할 수행생활의 기본정신 『초발심자경문』. 일타 큰스님의 해설로 세 권이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죽음 뒤의 세상……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가는 인생……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저절로 얻게 된다.

Ⅰ. 큰스님 주변 이야기
Ⅱ. 유명인이 실증한 윤회와 인과
Ⅲ. 민간에 전해지는 인과 윤회담
Ⅳ. 축생으로 태어나기까지
Ⅴ. 부처님도 순응한 전생업보
〈총 53가지 이야기 수록〉

신국판 / 242면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 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이 책을 펼쳐들면 누구나 알기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작하는 마음≫과 함께
진리를 향한 첫걸음을 옮겨 보자.
자유롭고 깨어 있는
나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신국판 / 342면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간

후회없는 구도자의 삶으로 이끄는 열가지 보배경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 큰스님께서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알기 쉽게 설명한 이 책은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불교신행의 나침반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바로 이 속에 복된 삶과 성불의 비결이 있다.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환희롭고 평화로운 삶의 길잡이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 줄 것이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법공양문

신간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

72년 초판 발행 이후 끊임없이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수많은 불자들에게 전해져 읽혀온 책.
불서가 귀하던 시절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렵사리 구해다 놓고
두고두고 읽었던 책.
이제 그 책을 효림에서 새롭게 증보
발간하여 불자님들 앞에 선보입니다.

시원시원한 편집, 읽기 쉬운 가로찌기,
한글 번역문과 함께 실린 원문으로
초심자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친근하게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발심 · 수행 · 구경(究竟)의 길을
「법공양문」과 함께 여행하며
참다운 법공양의 기쁨을 느껴 보십시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02)587~6612 · 6613 팩스:(02)586~9078

윤회관련 서적 '스테디셀러'

서구에서도 과학적 입증등 시도…독자층 확대

환생사례·비교연구등 다양한 주제 20여권 나와

윤회사상이 서구사회에서도 보편화되고 있다. 지난 81년 갤럽이 실시한 미국내 종교실태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인구의 23%인 3천8백만명이 윤회사상을 믿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인구의 23%가 사후에 다른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고 있어 윤회사상이 서구에서도 보편적인 사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서구에서는 윤회사상 연구와 함께 윤회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작업이 대단히 활발했다. 〈윤회·환생의 실례〉〈윤회의 비밀〉 등으로 윤회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으며, 최근 프랑스에서 발간돼 화제가 되고 있는 〈윤회사상탐구〉〈맥그리거〉를 비롯해 연구논저 목록만도 단행본 1권 분량에 이를 정도로 관심이 높다.

그만큼 윤회는 종교 철학 사상에서 건너뛸 수 없는 주제이다. 일반적으로 윤회는 '한 인간이 죽은 후에 그가 전생에 지은 행위에 의해 결정된 새로운 모습으로 땅 위에 다시 오는 것'으로 설명된다.

현재 서점에 나와있는 윤회관련 서는 20여종에 이른다. 최근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20위권에 오르며 인기를 얻고 있는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브라이언 와이스, 정신세계사)는 미국 정신과의사가 한 정서장애 여인을 치료하는 일상보고서로, 이른바 '전생요법'을 통한 치료과정의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와 환자가 겪는 영적인 변모 그리고 환생에 대한 확증은 삶의 신비에 대한 성찰의 기록으로도 읽혀진다.

불교적 윤회관을 밝히고 있는 책으로는 〈무아·윤회문제의 연구〉(호진, 민족사) 〈업사상〉(사사키 겐준, 대원정사. 이 책은 〈업연구〉〈업이란 무엇인가〉란 제목으로 경서원과 홍법원에서도 펴냈다)〈윤회설과 후천세계〉(승암, 촛불)를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무아·윤회문제의 연구〉는 이 분야에 대한 본격연구서로, 호진스님의 박사학위논문을 책으로 펴낸 것이다. 이 책은 인도의 고대문헌인 〈베다〉〈브라흐마나〉〈우파니샤드〉와 〈아함경〉〈나선비구경〉 등을 통해 윤회사상의 기원과 구조 기능 그리고 양립될 수 없는 무아-윤회이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경전속의 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윤회의 구체적인 표현의 하나인 환생에 대한 사례보고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는 〈그리하여 나는 환생을 보았다〉(비키 메킨지, 장경각) 〈환생〉(프란시스 스토리, 〃) 등이 있다. 84년 입적한 티벳의 불교지도자 라마 툽텐 예쉬의 환생을 비롯해 8건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환생〉의 저자 프란시스 스토리에 따르면, 환생사례는 대체로 △불교 및 요가의 명상과 △최면 및 무의식에서 떠오른 전생의 기억 △영매자(靈媒者)에 의한 전생의 서술 등으로 유형이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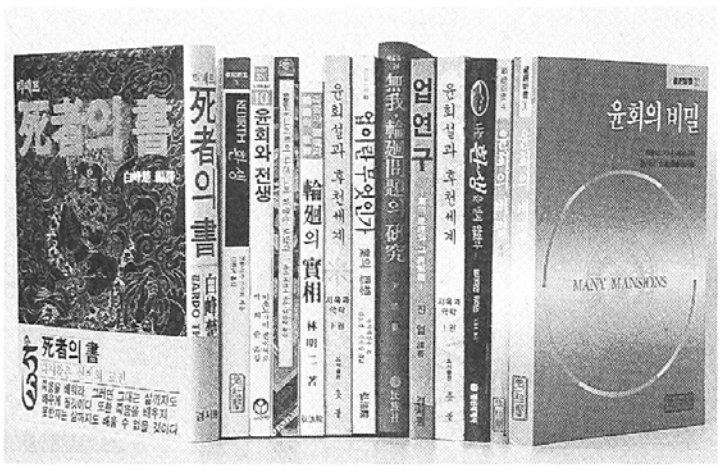
〈윤회의 실상〉(임명상, 홍법원) 〈윤회와 전생〉(이소노가미, 고려원)은 불교 기독교와 세계 각지역의 전통신앙에 내재한 윤회이론을 비교하고, 삼국유사에 나타난 윤회 기록, 이안 스티븐스(버지니아대 정신의학교수)의 환생사례를 통해 윤회 및 환생의 보편성을 입증하고 있다. 〈사자의 서〉(백봉초역, 경서원)는 티벳에 비전되어 오던 진언밀교의 성전으로 죽음과 재탄생(전생·환생)으로 생을 바꿔가다 이승을 떠난 자의 49일간의 중음기간에 겪은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들 책들은 독자들의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사자의 서〉의 경우는 17쇄를 찍어내기도 했다. 이에대해 정신세계사 김철호 편집부장은 "삶에 대한 원초적 의문을 풀려는 독자들의 욕구로 풀이된다"며 "현재의 생활에 충실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윤회이론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윤회관련서가 모두 불교의 윤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종교와 학파들이 말하는 윤회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는다. 서구의 종교 또는 사상이 말하는 윤회와 불교에서의 그것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호진스님(동국대교수·불교학)은 "불교의 윤회이론은 서구의 것과는 달리 업(業)사상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서구사회에서의 윤회사상 보편화를 곧 불교에 대한 호응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검증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정성운 기자〉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려는 독자들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윤회관련서가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들 책이 모두 불교의 윤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大道直指



유교의 주요경전인 〈대학〉과 그 가르침의 핵심인 명덕(明德)을 불교의 시각으로 정리한 책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책은 '큰 진리를 곧바로 가리킨다'는 뜻을 담은 〈대도직지(大道直指)〉(통화총서간행회 펴냄). 이 책은 〈논어〉〈맹자〉〈중용〉과 함께 유교의 4대 명저로 꼽히는 〈대학〉을 중국 명나라 때의 고승 지욱대사가 풀어쓴 책인 〈대학직지(大學直指)〉를 다시 각성스님이 강해한 것이다.



"핵무기와 폭력, 무분별한 섹스의 위험으로부터 현대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본연의 마음, 즉 명덕을 되찾고 밝혀야 합니다. 도덕성을 회복하고 마음을 바로세우기 위한 '깨닫기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뜻에서 〈대도직지〉를 강의하게 됐고, 이것을 책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성스님은 해인사에서 득도한 후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 백양사 은해사 강원에서 화엄경 도덕경을 강의했다. 탄허스님 이후 최고의 화엄학 강사로 추앙받고 있다. 현재는 동국대 역경원 역경위원과 화엄학회 회주로 우리사회의 새로운 좌표설정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은 明明德·親民·止於至善·格物·致知·誠德·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대도를 체계적으로 밝힌 대명저. 그러나 조선조에서는 〈대학〉의 내용을 잘못 이해해 이전의 시대보다 문화발전이 뒤떨어졌으며, 불교를 억압했다는 것이 각성스님의 지적이다.

"혼돈에서 벗어나 밝은 덕을 밝히는 〈대학〉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우리도 세계의 지도국이 될 수 있으며, 인류를 도덕으로 지도할 대도(大道)종주국의 사명이 우리민족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대도직지〉의 핵심주제라고 밝힌 각성스님은 "현재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순수하고 밝은 양심의 본체인 명덕, 즉 불성을 밝히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도직지〉를 펴낸 통화총서간행회는 바른 깨달음과 도덕성의 회복, 사상과 종교의 통일 및 민심의 순화를 위해 그동안 화엄학회에서 각성스님이 강의한 〈화엄경〉〈금강경〉〈금강삼매경론〉〈중용〉〈주역〉〈도덕경〉〈남화경(南華經)〉등 불교 유교 도교의 경전을 차례로 간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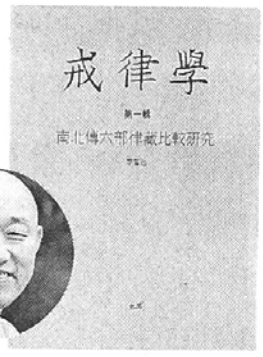
大學'을 불교시각으로 풀이

본연의 마음 밝혀 불성찾는 안내서

각성스님 강해통해 펴내

"가르침 근본 튼튼하게 세워야죠"

성우스님, 계율 논문 1차 6권 출간 무료배포





석성우스님이 최근 〈계율학〉을 도서출판 토방에서 펴냈다. 이 책은 계율관계 박사학위논문을 묶은 것으로, 지관스님의 '남북전 율부율장 비교연구'를 비롯 '신라불교 계율사상 연구'(인환) '의적(義寂)의 보살계본소 연구'(목정배) '신라 보살계사상 연구'(최원식) '불교율장의 정립과 대승율의 발달 연구'(박호남) '열반경의 계율사상 연구'(신성현)등 6권을 1차로 발간했다.

성우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근원적인 데서 튼튼하게 살아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계율관계 논문을 한자리에 모았다"고 밝히고 "많은 분들이 불교의 근본정신에 따라 수행하고 계율관계 연구자가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우스님은 이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02)722-4588 토방)

한편 경(經)과 논(論)에 대한 연구논문은 많이 발표되었으나 계율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은 여섯편, 석사논문까지 합해 50편에 불과하다. 성우스님은 계속해서 중국과 일본의 논문을 포함, 모두 70권으로 펴낼 계획이다.

대학의 탐욕·오만 해부

소설 '무' 미국서 호평

순수한 학문과 이상을 추구하는 대학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어느 곳보다 탐욕과 오만이 가득한 장소라는 것을 풍자한 소설〈무〉(원제 Moo·Knopf)가 최근 미국에서 나와 호평받고 있다. 제목 'Moo'는 동물의 울음소리를 표현한 의성어.

학계를 둘러싼 인간의 부조리를 해부한 이 책은 무게가 7백파운드나 나가는 흰 돼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대학과 학문의 허상을 빗대 흥미를 모으고 있다. 대학 캠퍼스 중앙에 버려진 한 낡은 건물의 지하실에 갇혀 있는 하얀 돼지 버츠는 대학을 구성하는 여러 사람들을 대변하는 상징물로 제시된다. 바로 인간의 고독·소외·우둔함 그리고 욕망등을 한몸에 구현하고 있는것.

물질욕에 사로잡힌 현대 미국인의 실상을 우화적으로 비꼰 이 소설은 그들의 무상한 삶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역자	출 판 사
1	나를 보게하소서	현 장	민 족 사
2	불교이야기	지 묵	우 리
3	작은 솔씨가 낙락장송되니	윤 청 광	언어문화사
4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5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브라이언	정신세계사
6	마음로 간 미륵	주 강 현	대원정사
7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권 영 한	전원문화사
8	법공양문	원 효 외	효 림
9	능엄경	김 두 재	민 족 사
10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	원 의 범	시 공 사

구입문의:(02)737-0695

'고승열전' 출판기념회

'고승열전' 1차분 10권 완간 출판기념회가 4월 19일 오후6시30분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다. 효봉 만암 동산스님등 근대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스님들의 삶을 방송작가인 윤청광씨가 소설로 재구성한 것으로, 지난 2월 용성스님의 일대기를 펴내 1차분 10권을 완간했다. 이 시리즈를 펴낸 언어문화사는 계속해서 구산 탄허스님등의 일대기를 발행할 예정이다.

출판화제

'초발심자경문' 해설서 일타스님, 3권 펴내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에 대한 해설서가 일타스님(조계종 전계대화상)에 의해 교계에서는 최초로 세권으로 묶여 완간됐다. 도서출판 효림펴냄.

〈초발심자경문〉은 보조국사의 〈계초심학인문(戒初心學人文)〉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야운비구의 〈자경문(自警文)〉 등 세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6백여년 동안 우리나라 불자들의 입문교과서로 읽혀왔으며, 불교전문강원의 학인들이 입산해 처음으로 배우는 책이기도 하다.

일타스님은 93년 〈계초심학인문〉을 풀이해 〈시작하는 마음〉으로, 94년에는 〈발심수행장〉을 풀이한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을 펴낸 바 있다. 이번에 〈자경문〉을 풀이한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을 발간함으로써 3년만에 〈초발심자경문〉에 대한 완전한 해설서를 내놓았다.



완결편에 해당하는 〈자기를…〉에서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공부방법을 상세히 밝혀놓았다. 특히 야운비구의 가르침을 생활속에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49개의 에피소드를 섞어 청소년과 불교를 어렵게 여기는 사람들도 불교의 세계속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꾸몄다.

책방 여시아문이 마련하는

저자와의 만남



저자약력

1916년 평남 평양에서 출생.
현 약학박사, 서울대 명예교수.
미국 퍼듀(purdue) 대학교 대학원 졸업.
서울대 약학대 학장.
국립보건연구원 원장.
서울대 천연물화학연구소 교수.
대한 약사회장, 대한 약학회장.
아시아 약학회(FAPA) 의장.
한국과학지술인 협회장 등 역임.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수상.

전공 서적 외에

「신 동의보감」
「신역 동의보감」
「약이나 독이나」
「한국의 상약」
「약과 건강」
「건강하게 사는 지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
「홍문화 박사의 건강교실」
「홍문화 박사의 건강장수법」 등 다수.

책방 여시아문은

그동안 성원해 주신 고객에 대한 사은으로
저자와 독자가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건강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요즘,
현대인 특히 도시인이라면 누구나 귀기울일 만한
저자의 육성을 직접 들어 보십시오.
생명에 대한 외경으로부터 출발하는
저자의 건강관을 통해
건강에 대한 그릇된 통념, 미신에 가까운 건강 상식,
육체에만 국한된 기계적 건강관리,
약물에 대한 과신이 빚어낸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진지한 성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책방 여시아문의 정신

책과 세상의 마주 보기,
독자와 저자의 거리 좁히기,
진지한 독서 분위기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고품격 독서 문화의 거름이 되겠습니다.

행사안내

- 때 : 1995년 4월 26일(수), 오후 3시
- 곳 : 녹수청산(현대불교신문사 사옥 지하 1층)
- 주최 : 도서출판 여시아문, 현대불교신문사
- 협찬 : 도서출판 한강수, 불광 출판부
- 참가방법 : 책방 여시아문에서 '저자와의 만남' 초대권을 배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오후 2시 30분까지 입실해 주시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 후 저자 사인판매와 건강상담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홍문화 박사와 건강을 이야기 합시다(도서출판 한강수)
홍문화 박사의 건강장수법(도서출판 한강수)



오느름 대표 김회경씨



"국악선율에 불법 담을터"

"불교음악의 현대화는 언젠가 풀어야할 과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불교 음악인들이 해내야 할 당면과제인 것입니다."

26일 공연을 앞두고 오느름 실내악단과 연습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김회경씨의 말이다. 그는 서양음악 작곡을 공부했으나 어릴때부터 가슴 속에 쌓여진 우리 가락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 없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는 국악의 선율이 최상이란 신념으로 다양한 찬불가를 작곡했다고 말했다. 그가 이번 공연에서 선보일 곡목중 특별히 주목받는 것은 바로 '전통불가조'다.

"전통불가조는 범패의 바깥채비 소리와 화청, 축원, 그리고 보렴(보시와 염불곡의 준말)입니다. 그간 구음으로 전해진 이들 곡목을 정확히 채보했습니다. 박송암스님의 가락을 오선보로 옮긴 것인데 음가의 정확한 보존과 불교음악의 대중화란 측면에서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김씨는 악단을 이끌며 불교음악 작곡에 몰두해 오다가 꼭한번 이런 무대를 갖고 싶었는데 기획사 두메로우노와 인연이 닿아 공연을 하게 됐다며 '훌륭한 무대'를 관객에게 선사하겠다고 다짐.

오는 29일 여의도에서 봉행될 봉축법요식에서 연합합창단을 지휘하게 될 김씨는 그간 조계사등 많은 사찰 합창단의 지휘를 맡아 왔었다. "이번 연주회를 계기로 불교음악이 보다 다양화되고 전통계승의 방향이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는 김씨는 자신의 음악적 재량이 닿는한 계속 불교음악에 몰두할 계획이라고.

〈태〉

불교음악 새지평 여는 무대 '기대'

오느름 실내악단 봉축음악제 찬불국악가요·동요등 다수 첫선

본사초청 26일 국립극장

우리 국악을 바탕으로 새로 작곡된 찬불가요와 동요 불가조곡들을 선보이는 봉축 음악무대가 오는 26일 오후7시30분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열리는 이 음악회는 국악실내악단 오느름(단장 김회경)을 본사(本社)가 초청해 마련한 것. 이날 무대에서는 김회경씨가 새로 작곡한 찬불 가요 '홀로보낸 겨울' '연꽃피어 오르리' 등 9곡과 동요 '육근'을 공연한다. 특히 범패소리중 바깥채비 소리를 채보해 정확한 음가를 메겨 편곡한 '전통불가조' 화청, 축원, 보렴도 덕신스님과 준인간문화재 안숙선 명창에 의해 소개될 예정이다. 이날 소개되는 '전통불가조'는 그간 구전에만 의존해 오던 범패의 선율을 오선보로 옮긴 것으로 원형의 음가를 가장 정확히 살려낸 것이어서 불교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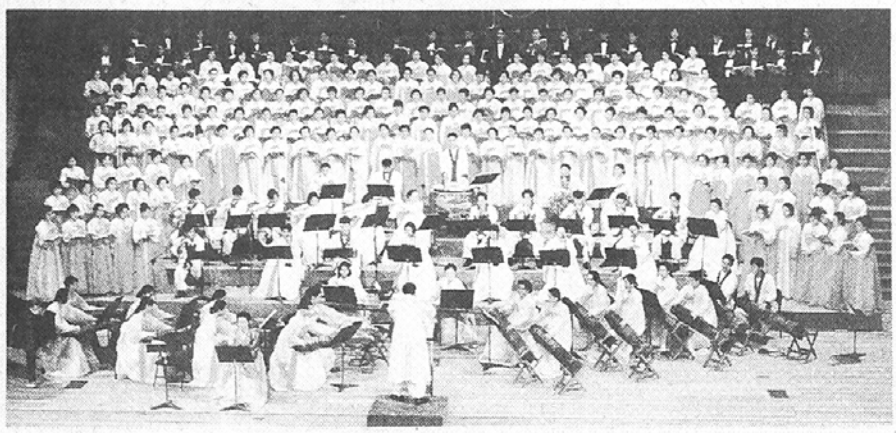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될 이날 음악회에서는 승무·법고춤(김현숙·국립무용단)과 경북예천 지방과 경기도 고양지방의 들노래(조주선 관소리 명창)도 들을 수 있다. 또 남성복사중창(8명의 중창)과 찬불가 '초파일송가' '연등'등도 공연된다. 이날 공연된 곡들과 김회경씨의 신작곡들은 5월중에 CD로도 제작돼 보급된다.

이번 무대는 새로 창작된 신곡과 기존의 찬불가를 함께 들을 수 있으며 전통 불교음악의 현대적 계승을 가능케 하는 무대란 점에서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공연을 필칠 국악실내악단 오느름은 91년 7월에 창단, 수차례의 연주회와 세미나를 개최해 온 악단으로 국립국악관현악단과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등 유명 악단의 젊은 악사들로 구성돼 있다. 주로 국악기를 연주하지만 기타나 신디사이저등도 과감히 무대에 올리며 국악과 불교음악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오느름의 특징이다.

한편 이번 공연은 최근 설립된 이벤트 업체 두메로우노가 야심을 가지고 기획해 무대연출등 음악회의 내용적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문의=544-4782)) 〈임연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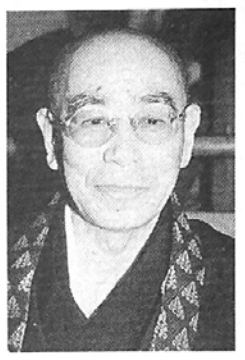
관음송으로 통일염원

「광복 50주년 기념 민족통일기원 한라에서 백두까지, 천수천안관음송가」 공연이 지난 8일 오후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장엄하게 펼쳐졌다.

'목련송' '만생령을 위해 오신님' 등의 찬불가와 가곡이 관음사등 사찰합창단과 테너 엄정행씨의 노래로 엮어진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지원스님 시에 변규백씨가 곡을 붙인 '천수천안관음송가'가 삼보사 국악 관현악단, 부용단, 삼보사합창단에 의해 공연됐다. 이날 공연에는 4천여명의 불자와 불교음악인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인 터 뷰

'천수천안…' 공연 참관 日 선흥사 아스카 스님



"한국 찬불가 日보다 월등"

음악통한 한·일 불교교류 기대 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며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대형무대를 직접 보게돼 기쁩니다. 이같이 감동적인 무대를 반주자와 합창단, 지휘자, 관객이 혼연일체가되어 창출해 내는 것이야말로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잘 보여주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천수천안관음송가'를 지켜본 아스카스님(일본 선흥사·불교음악가)의 얘기다.

이날 공연을 보기 위해 노구를 이끌고 한국에 온 스님은 일본, 한국, 동남아지역의 불교음악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공연을 관람한 스님은 "한국의 가락으로 관음보살님을 찬탄하는 대형무대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용과 합창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기획도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일본의 불교음악에 비해 한국의 불교음악이 한 발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스님은 "음악을 통한 한일 불교문화의 교류가 더 활기차게 진행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스카스님은 찬불가 작곡가로 중요한 활동을 했던 故 김용호 선생과의 인연으로 한국불교음악에 관심을 갖게 됐다.

지금도 김용호 선생의 제자들로 구성된 합창단 목련회와 매우 긴밀한 교류를 가지며 목련회의 일본 공연을 매년 후원해 주고 있다.

"목련회등을 통해 한국의 찬불가가 일본에 소개되고 있으며 일본내의 사찰 합창단도 한국 찬불가를 즐겨 부른다"고 소개한 스님은 "찬불가 보급을 위해 애쓰는 한국의 음악가들이 존경스럽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태〉

한바탕 춤판 '자비의 나라로' 공연

내달 7일, 불국사 대웅전 앞마당

불국사를 무대로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한바탕 춤판이 벌어진다.

불국사(주지 설조)는 다음달 7일 오후 6시30분부터 장장 3시간 30분동안 이애주(서울대)교수의 춤 「자비의 나라로」를 공연한다. 대웅전앞과 청운교, 백운교를 무대로 삼아 펼쳐질 이 날 공연은 사물과 예불로 들어가는 마당을 장식하고 이애주씨와 대구시립국악단, 김영동씨, 굿패 노름마치가 음악과 춤의 무대로 본마당을 꾸민다. 이 본마당에서는 제천과 진혼, 천도의 순서에 따라 「수제천」 「영산회상」 「굿음악」등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교수의 춤사위가 하늘과 땅에 부처님오신 뜻을 찬탄하며 화려하게 연출된다. 이어지는 나가는 마당의 주요 장면은 탑돌이. 출연진 전체와 관객이 한시간동안 석가탑과 다보탑 연화교 칠보교를 돌게되는 이 순서에서는 참가대중이 합창으로 '석가모니불과 도세도세'를 합창하게 된다.

불국사측은 광복50년을 기리고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해 이 무대를 마련 했다고 밝혔다.

신민송·장경호씨 선정

한국불교아동문학상

한국불교아동문학회(이사장 박용열)는 제13회 한국불교아동문학상에 동화작가 신민송씨와 장경호씨를 각각 선정했다.

지난 8일 최종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씨의 작품은 '용감한 히덕이'이며 장씨의 작품은 '잠꾸러기 금붕어'다. 시상식은 다음달 27일 오후3시 삼청동 칠보사에서 갖는다.

'무제', 주제 작품 전시

정남영씨, 미술회관 등 두곳서

서양화가 정남영씨가 「무제」를 주제로 그린 근작들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과 금산갤러리에서 동시에 전시한다. 지난 14일 문을 연 정씨의 전시회는 19일과 28일까지 각각 열린다.

정씨는 이번 전시회에 센드페이퍼로 갈고 송곳으로 상처를 만든 화면에 물감을 바른 작품들을 내놓는다.

홍문화 박사와 함께 건강을…

여시아문 제1회 저자와의 만남



◇ 홍문화 박사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장과 아시아약학회 의장등을 역임한 약학계의 거두 홍문화박사(서울대 명예교수)를 초청, 제1회 저자와의 만남을 개최합니다.

이미 「신 통의보감」 「약이냐 독이냐」 「건강하게 사는 지혜」등 여러 건강서를 펴내 화제를 모으고 있는 홍문화박사는 성인병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바른 건강법과 식생활의 지혜를 알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가 안내 ❖

- 일시·장소 : 4월26일 (수) 오후3시 녹수청산
- 선착순 1백명에 한합니다.
- 강연 후 작가 사인회를 갖습니다.
- 문의 : 737-0695(여시아문) 737-8881(현대불교신문사)
- 협찬 : 불광출판부

주최 : 책방 여시아문 / 현대불교신문사

다채로운 문화 행사로 부처님 오신뜻 기린다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리는 각종 문화행사가 이달과 다음달까지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 기간중 음악, 연극, 전시행사는 물론 '미술의 해'를 맞아 한국불교미술의 현실을 진단하는 세미나도 열리게 된다.

올해 봉축문화행사들 중 일부는 규모면에서 전래없이 크게 기획되거나 일반인을 겨냥한 경우도 있어 봉축분위기를 포교의 기회로 삼으려는 노력도 더해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웅변대회, 백일장, 사생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서울을 비롯한 지방에서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어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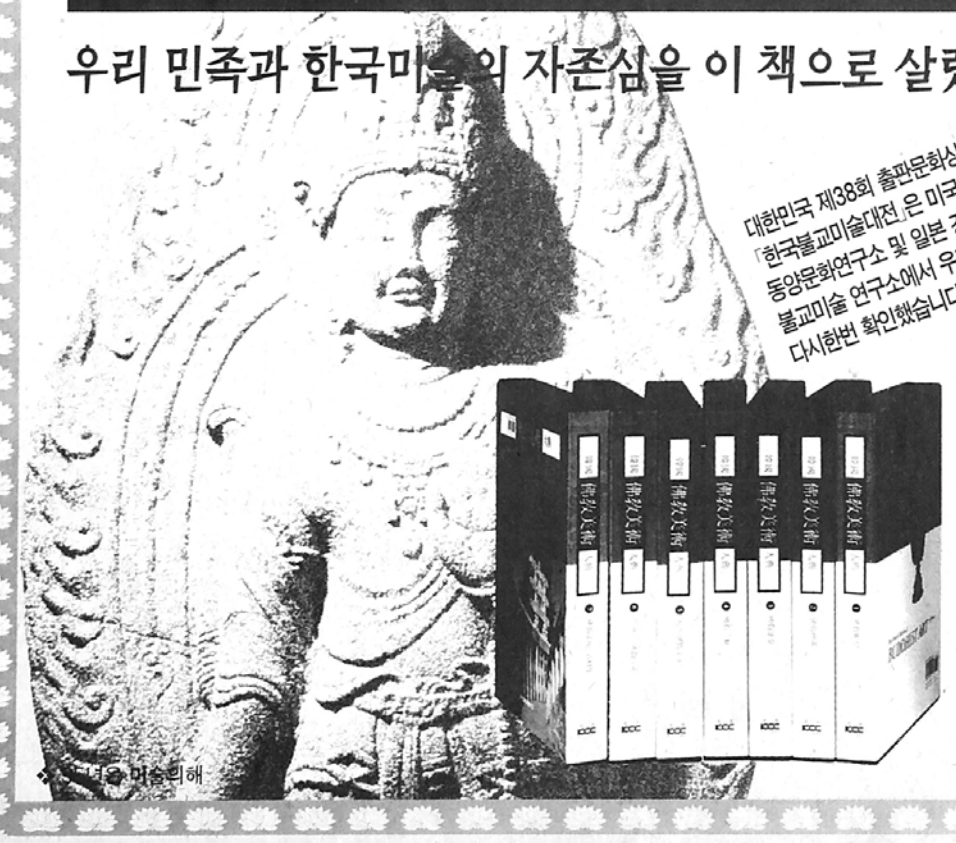
〈필〉

날 짜	행 사 명	장소 및 시간	주관단체
4/21~5/7	· 아동극공연(1일3회)	목동 청소년회관	봉축위
4/22	· 시낭송회	조계사 문화회관 오후4시	현대불교문학회
	· 만등만화행사	정동 문화체육관 오후3시	연화불교합창단·연화정사
	· 전도 초·중·고서예백일장	제주 남녕고교체육관	제주불교법우회
4/25	· 제1회 나라사랑 글짓기대회	대문사 오전10시	전남 대문사
	· 불교미술세미나(참교미술재조명)	프레스센타 오후2시	봉축위
4/25~4/31	· 큰스님 선선화전	대전생활불교회관	백련장학회
4/25~5/15	· 전통불교공예전	국립민속박물관	동국대박물관
	· 전통불교의식기구 전시회	경복궁 민속박물관	봉축위
4/26	· 불교음악의 밤	국립극장소극장 오후7시30분	오느름 국악실내악단
4/28	· 찬불합창제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오후4시	부산불교합창단협의회
4/30	· 연꽃노래잔치	동국대 중강당 오후1시	대불장
	· 불교웅변대회	조계사 대웅전 오후2시	봉축위

날 짜	행 사 명	장소 및 시간	주관단체
5/1~5/8	· 전통등 전시회	조계사 경내	불교문화연구소
5/2~5/4	· 봉축꽃꽂이전	풍은사	연화꽃꽂이연합회
5/3	· 대구경북불교합창제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구경북불교인협의회
5/5~5/11	· 한국불교미술인협회전	공평아트센타	한국불교미술인협회
5/6~5/7	· 심상사진전시회	석왕사	석왕사 신도회
5/8	· 관소리불타전	도피안사 경내 오후8시	도피안사
5/13	· 청소년 음악회	파리공원 오후7시	봉축위
5/13~5/14	· 아동극 '난군함아버지'	동숭아트센타 동숭홀 오후3.5시 오전11시, 오후2시	봉축위
5/14	·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	동국대 중강당 오후2시	청교련
	· 어린이 백일장	목동청소년회관 오전10시	봉축위
5/21	· 연꽃 백일장 및 사생대회	부산 범어사 탑전, 시간 미정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5/22~5/31	· 불심전	대구함제예식장 1층	대구 자비의전화
5/26~5/28	· 서울인형제(국제인형극제)	목동청소년회관 오후2,4시	봉축위

韓國佛教美術大典

우리 민족과 한국미술의 자존심을 이 책으로 살렸다!!



대한민국 제38회 출판문화상에 빛나는 「한국불교미술대전」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및 일본 경도대학 부설 불교미술 연구소에서 우리문화의 역량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 한국 불교미술 집대성.
- 팔만대장경 이래 한국불교문화사 최대의 불사.
-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 불교미술
- 국문판에 이어 일어판, 영문판도 곧 이어 발간.
- 한국출판사상 보기드문 대기획에 최고급 인쇄.

○ 8절판(26.5×36㎝)의 초대형크기
○ 각권 312~376페이지의 올컬러 인쇄
○ 본문 180g의 스노우화이트지 사용
○ 호화양장제본에 낱권케이스, 금박 포클로스
○ 정가 630,000원(전7권)

韓國佛教美術大典 중요내용

① 佛教彫刻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불교조각사와 함께 컬러도판을 싣고 도판해설을 하였다.
② 佛教繪畵	한국불교회화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컬러도판과 함께 도판해설을 실어 이해를 도왔다.
③ 佛教建築	사찰의 건축과 함께 불탑, 부도, 불비등 불교건축을 논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④ 佛教工藝	불교의 공양구, 의식구, 사리기, 기와등의 불교공예품을 서술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⑤ 現代佛教美術	오늘날에 제작된 대표적 불교미술품을 게재하고 대표적인 불교미술가를 작품과 함께 소개하였다.
⑥ 世界의 佛教美術	우리나라와 함께 불교미술이 발달된 인도, 중국, 일본, 몽고, 동남아 제국의 불교미술의 컬러도판으로 소개하였다.
⑦ 佛教美術資料集	불교미술에 필수적인 불교미술용어사전과 함께 불교미술품의 실측도와 각종 문양을 실었다.

현대불교 구독자 사은행사로 선착순 100명에 한하여 전권 630,000원을 490,000원에 현금 및 할인 분할해 드립니다.
법보시용으로 최적입니다.

주문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부
TEL:(02)737-0695
FAX:(02)737-0696

공급처
(주) 한국색채문화사
TEL:(02) 333-0051
FAX:(02) 338-7781



故권오철교수 기념 장학기금

미망인 강숙자보살 東大에 1억전달

종립 동국대에 동문교수의 따뜻한 자비행이 전해져 새 학기를 맞은 학내에 훈훈한 화제를 던져 주고 있다.

자비실천의 주인공은 지난 2월말에 타계한 고 권오철교수(경제학과).

지난 12일 고 권교수의 미망인 강숙자보살(51)은 평소 고인의 간절한 뜻이 담긴 1억원의 장학금을 동국대에 전달했다.

'권오철교수 기념 장학기금'으로 명명돼 어렵게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연차적으로 지급될 이 장학금은 권교수가 20여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연료, 원고료, 방송출연료 등은 물론 용돈까지도 헛되게 쓰지 않고 후학육성을 위해 한푼 두푼 모아 왔던 것.

권교수는 동국대 법학과를 68년에 졸업했으며 교수로 재직중에는 〈경제학 원론〉〈살아가는 경제 이야기〉〈포켓속의 작은 경제학〉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 서적 20여권을 출간할 정도로 전공에 대한 강한 집념도 보여 후학들의 존경을 받았었다. 〈근〉

"佛音 연금술사 자부심으로 일해요"

불교 구성작가 37명 활동

'피안을 향하여' 이윤수씨
'무명을 밝히고' 김자경씨
'한국의 명찰' 김금희씨
'그곳에 부처님…' 배정화씨


◇이윤수


◇김자경


◇김금희


◇배정화


◇유승희


◇정형수

'최고의 방송은 우리 손에 달렸다.' 불교텔레비전과 불교방송에서 일하는 구성작가들의 신념이다.

산뜻한 아이디어로 방송의 줄기를 엮어내는 불교텔레비전과 불교방송의 구성작가는 현재 37명. 불교방송에는 개국때부터 방송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피안을 향하여'의 이윤수씨, '무명을 밝히고'의 김자경씨등 2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불교텔레비전은 '한국의 명찰'의 김금희씨와 '그곳에 부처님 오셨네'의 배정화씨 등 17명이 불교전문작가시대의 첨병 역할을 구축하고 있다.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자부심과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한다는 신념으로 기량을 다지고 있는 작가들은 프로그램의 특징살리기와 시청자·청취자의 마음붙들기가 자신의 손끝에 달렸다는 책임감도 크다.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생활속의 부처님 법을 도출해 쉬운 언어로 전달하는 불교구성작가들은 방송의 특성상 문필력과 아울러 정확성, 시기성, 정보성, 창의성등과 독창적 아이디어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작가들은 전문성을 넓혀가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있다.

불교방송 작가들의 경우 지난 2월25일~26일 1박2일로 과천 청계사에서 자체 수련대회를 갖고 방송역량과 불교적 정서의 노하우 교류를 갖는 등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수련대회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불교텔레비전의 경우도 각 프로그램들이 갖는 특성과 작가 개인의 역량등을 감안, 작가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작가들의 역량강화에 대해 불교방송 작가 이윤수씨는 "불교전문작가라는 자부심과 신심을 지니고 불교적 심성이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활동중인 구성작가들은 많지않는 고료로 경제적인 부담감을 갖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성작가의 90%가 프리랜서라는 특수성은 있으나 방송을 통한 불법홍포의 출발점은 작가에게 있는만큼 불교계 작가들의 모임체와 교류의 장을 마련, 타 방송사에 못지않는 경제적 조건으로 이직률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작가 스스로 방송의 전문성과 불교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방송국 차원에서도 전문작가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 질 때 방송포교의 효과는 보다 높아질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얘기이다.

〈김원우 기자〉

승려교육 강화안 마련

신도조직활성 · 공 · 사유사찰 개념정립도

태고종 발전특위 내달 종회 상정키로

태고종이 종단중흥의 기치를 내걸고 본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태고종 종단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금담스님)는 지난 11일 총무원 설법전에서 제2차 합동회의를 가졌다.

특위원 6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분과위원회별로 추진해 왔던 종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 오는 5월에 개최될 임시중앙종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대전종무원 신도회 조직

태고종 대전종무원은 지난달 25일 대전불교연수원에서 제8회 지방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회에서 △신도회 결성 △연수교육 실시 △예수재 봉행등 95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불교회관 기공식

천태종 삼산사

천태종 삼학 삼산사(주지 오안산)는 지난 4일 전운덕 총무원장을 비롯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교회관 기공식을 거행했다.

삼산사 불교회관은 지상3층규모로 법당 기도실 종무소등의 시설을 갖추고 96년 6월 완공하게 된다.

'심인정법 구현' 주제로

진각종 춘기강공 개최

진각종(통리원장 최지광)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진기 49년 춘기 스승강공회를 전국 각 심인당 스승과 종립학교 정교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인원에서 개최했다.

심인정법의 시대적 구현이란 주제하에 열린 이번 춘기강공은 최지광 통리원장의 증정보고, 김도흔 교육원장의 주제강론, 종의회 의원 선거 등으로 진행됐다.

'충·효·예 고취' 법회

천태종 전국청년회

천태종 전국청년회(회장 이문수)는 지난 8,9일 대전광수사에서 충·효·예 사상 고취를 위한 단합법회를 개최했다. 전운덕 총무원장을 비롯 청년회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단합법회는 김유혁 중앙신도회장(우리나라 충 효 예 사상과 청년불자의 자세)과 권탄준 동국대 교수(불교에서 본 충효 예)의 강연도 마련됐다.

보살계 수계식 봉행

태고종, 전북 26일 · 제주29일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오는 26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대승보살계 수계식을 거행한다.

갈마아사리 영산스님을 비롯 3사7증을 증명법사로 봉행될 이번 수계식은 1부 수계식에 이어 국악연예인들의 축하공연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제주종무원에서도 오는 29일 제주종단협과 연합으로 부처님 오신날 봉축 대승보살계수계식을 거행한다.



이와나미 불교사전 전자북 출시

불교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최근의 학문적 성과까지 정확한 해설을 담고 있어 1989년 초판 이후 높은 평가를 받아 왔던 이와나미(岩波)불교사전이 이번에는 전자북으로 나왔다.

이번 전자북판에서는 표제어 약4천5백항목을 수록하는 것 이외에 독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동의어 1천2백 항목, 소표제 1천항목을 부가시켰다.

불광산 심평스님 입적

대만 불광산 제2대 주지 심평(心平)스님이 지난 7일 새벽 입적했다.

심평스님은 세수 58세 승랍 33년으로 불광산 제 49대 전법 임제정종을 역임했다.

다비식은 지난 15일 봉행됐으며 불광산 제3대 주지에는 심정(心定)스님이 추대됐다.

등신불 지난 91년 입적한 중국 구화산 화성사의 자명스님 육신이 4년 후인 지난 3월말 개응식과 함께 공개됐다. 탈수가 되어 경화된 스님의 육신에는 옻칠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개금불사도 추진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우봉규씨(극작가)〉

종회결의 관철키로

불교방송대책위

조계종 불교방송대책위는 지난 13일 오후3시 회의를 열고 20일부터 조계종스님의 불교방송 출연 및 협찬금지와 취재금지, 불교방송 이사회 소집 등의 조치를 취하고 종회결의 사항을 양보없이 관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불교방송 이사회는 21일을 전후로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불교방송 대책위는 지난 11일, 12일 양일간 불교 부산·광주방송을 방문하여 부산·광주의 개국과정에서의 문제를 진상조사했다.

불방사태 성명서 발표

언론대책위 · 보현도량

불교언론 대책위원회(위원장 진관스님)는 지난 11일 '불교방송 정상화를 바라며'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교방송 사장의 용퇴와 불교방송 임직원과 불교신문 직원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밝혔다.

또 보현도량(회장 재홍스님)도 지난 11일 '불교방송사태와 조계종의 대응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불교방송의 조계종단화는 범종단, 범불교적 방송의 취지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선사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교방송 이사회는 이번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교방송 경영진을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btn 광주개국 설명회

지난 12일…대구는 내달 개최

불교텔레비전은 지난 12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3백여명의 지역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국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이텔 btn방 개설

프로그램 · 각종행사 안내

불교텔레비전은 지난 18일 하이텔통신에 btn방을 개설했다. btn방에는 프로그램 안내, 시청자 참여, 게시관, 행사안내 등이 서비스된다. btn방은 하이텔을 이용하여 'Go btn'으로 들어가면 된다.

목탁소리

부쩍 늘어난 내방객

이 경 숙 〈취재1부 차장〉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요즘 부쩍 늘어난 내방객들 맞이하기에 몹시 바빠졌다.

지난주 초 세계 3억 신도를 가지고 있는 정교회 세계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우스 1세가 방문(10일 오후5시)한 것을 비롯 같은 날 오전10시에는 맥 윌리암스 주한 호주대사가 다녀갔다. 또한 11일 오전에는 오인환 공보처 장관이 기획관리실장 신문방송국장 방송행정과장을 대동하고 월주 총무원장과 환담을 나눴으며 오후 4시에는 환경부 장관을 지낸 황산성변호사가 예방, 주위사람을 배제한 채 30분간 밀담을 나눠 관심을 모았다. 독실한 기독교신자인 황산성 변호사의 방문은 그가 오는 6월 민선 서울시장으로 나올 것이라는 말과 관련해, 지지 요청이 아니겠는가란 추측을 낳기도 했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3일에는 황인성 전 국무총리, 이철승 전 자유총연맹 총재, 진념 전 통자부장관, 이연택 전 총무처장관 등 정·재계 인사들이 다녀갔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보건복지부 서상목장관이 사회복지정책실장 가정복지심의관 복지자원과장 등을 동석시킨 채 3대 종단 총무원장 스님들을 초청 오찬을 나누며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정·재계 인사들이 다녀가고 있다.

그런데 만남의 자리를 지켜보다 보면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불교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처의 장관과 실무 국장·과장들이 동석해 있는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다. 자랑 비슷한 이쪽의 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쪽의 애로점이나 요구사항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노련한 대화의 기술이 아쉽다.

6월까지 견지동 45번지 총무원장 접견실은 몹시 붐빌 것 같은 예감이다.

방송 하이라이트

btn ch32

적멸보궁 정암사

한국의 명찰(17일 11:00~12:00) 태백산 기슭의 월정사의 말사 정암사는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로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수마노탑이 있다.

온가족 병앓고 있는집 사연

자비의 천수천안(18일 11:00~12:00) 월남전에 참전했던 남편 김상두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근육마비증세로 세상을 떠나고 부인 조막순씨는 백내장과 녹내장으로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다. 아들 김용석군 역시 아버지처럼 근육이 뒤틀리는데 김군가족의 사연은….

김용림·남일우 부부 초대

김병조의 스타쇼(19일 11:10~12:00) 방송인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김용림·남일우 부부를 초대한다. 억척스럽고 강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편안하고 소박한 김용림씨의 연기입문과 장난기어린 프로포즈등 부부의 애정과 불자로서 부처님 공덕에 감사하는 생활담을 들려준다.

현장스님, 부다가야 도착

실크로드(20일 21:00~21:50) 현장법사는 장안을 떠나 인도로 향해 장장 13년이 걸린 구법의 여행길에 오른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득도했다는 부다가야, 오아시스의 도시 모발레케에 다다른다.

BBS FM 101.9MHz(서울) FM 89.9MHz(부산) FM 89.7MHz(광주)

공옥진씨 딸 진여성보살

피안을 향하여(17일 14:10~14:45) 공옥진씨의 외동딸인 광주 원효사 진여성보살. 어머니에게 불교적 정서를 전수받은 진여성 보살의 신행이야기를 듣는다.

범종·목어 유래 해설

무명을 밝히고(18일 17:10~18:00) '다시 보는 불교문화재' 코너에서는 문화재 전문위원인 유문용씨의 해설로 범종, 목어의 유래를 알아본다.

조선시대 스님 주제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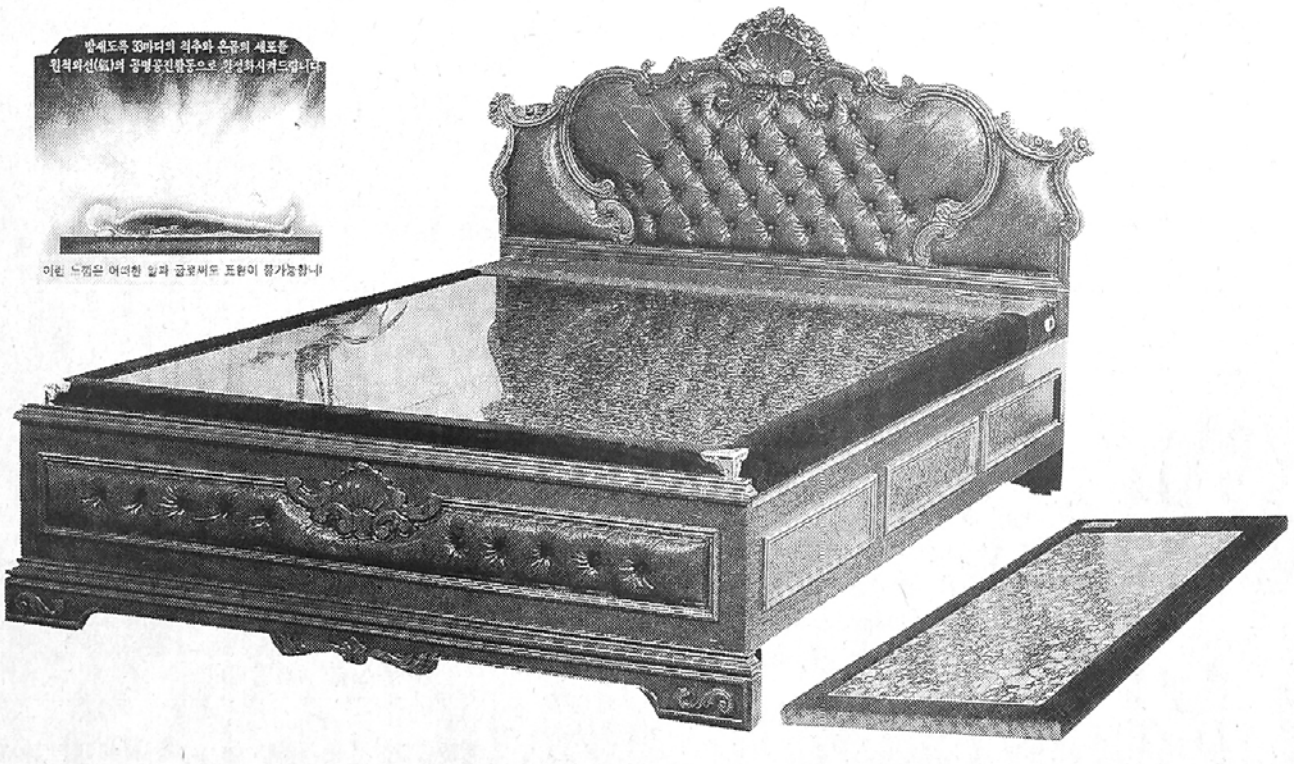
퀴즈 대장경(20일 15:05~15:55) 조선시대 스님들을 주제로 퀴즈 대결이 열린다. 불교역압의 조선시대에 한국불교의 맥을 이어온 보우, 서산, 사명, 부휴, 편양, 초의선사를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

관음손

우리 시대 최고의 수맥방지 온돌침대

병이 있는 사람은 병세가 호전되거나 치유되고 허약한 사람은 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태어난다

전기용품 Q마크 획득 품질보증



왜! 많은 분들이
수맥방지 온돌침대의
효능에 만족하실까요?

게르마늄(Ge-32)의 효과

온돌침대는 확실한 효과로 선택하십시오!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의 활성화 ●통증의 경감 작용과 조직의 재생작용으로 신경통·류마티스·관절염·디스크·고혈압·당뇨병·중풍·냉대하증·산후조리 교통사고 후유증 등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피로회복·불면증·비만 미용 등에 효과 있습니다.

민영실업 (02)208-7974~5 부산 (051)412-9351
건강 상담실 운영

전국에서 난치병의 개선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시던 침대를 수맥방지 돌침대로 개조해 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안내서 및 팸플릿을 보내드립니다.

신도조직 결성 "늦출 수 없다"

신행단체 화합 우선…재가등 여론수렴해야

조계종 총무원 실무기획단 한시운영

조계종 총무원이 새로운 신도 대표기구로 중앙신도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재가단체와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총무원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가불자 개혁차원으로 중앙신도회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도법에 의거해 6월경 중앙신도회 결성준비발기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무원은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 포교원 기획실 총무부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기획단을 결성, 중앙신도회 창립까지 한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총무원의 중앙신도회 결성에 대해 전국신도회, 재가연합등의 재가단체들은 "신도단체는 재가가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해야 한다"며 "재가불자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한 신도법만 내세워 중앙신도회를 결성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신도회 구성 자체에 냉소적인 분위기.

재가신도단체들은 신도법의 재적사찰 갖기, 신도 교무금 납부, 사찰주지스님이 신도입원임명 등의 조항이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렵거나 신도회 자율운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개혁불사 과정에서 중앙조직이 와해된 전국신도회가 14일 이사회를 갖고 대의원회의 개최등 조직정비에 나서 자칫 조계종 신도단체가 새로 결성될 중앙신도회와 기존의 전국신도회로 양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 무성하다.

특히 시·도별 지역신도회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전신회는 30여년의 역사와 조계종대표 신도기구의 정통성을 갖고있어 총무원의 지원없이도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가연합 관계자들도 "총무원측에 중앙신도회 결성에 따른 재가불자들의 뜻을 전달했다"며 "재가불자들의 여론이 무시된 채 총무원이 독자적으로 신도회를 추진할 경우 대토론회를 개최해 여법한 신도회가 구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중앙신도회 결성에 대해 여론이 들끓자 "1년이상 공백상태인 중앙신도단체 결성이 더이상 밀쳐져서는 안된다는 여론에 밀려 총무원 집행부가 밀어붙이기식 무리수를 두고있기 때문"이라는 불자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신도조직을 위해서는 총무원 집행부와 신행단체가 화합해 빠른 시일내에 중앙조직의 신도단체를 결성해야한다는것"이 불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전신협 조직 정비

조계종 중앙신도회 결성이 난항을 겪고있는 가운데 종단협 산하 범종단 '전국 불교신도단체 협의회'가 지난 12일 이사회를 갖고 신도 대표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의했다.

전신협은 이날 공석중인 회장단에 김용직(관음종 신도회. 인터뷰 4면)대표회장과 김철회(태고종 신도회)회장을 선출, 2년내에 불교회관 설립, 전국 신도단체조직, 신도배가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신협은 명실상부한 신도대표기구로 거듭나기위해 중앙위원제도를 신설, 전국 신도단체를 하나로 규합할 예정이다. 한편 전신협은 6월 8일 대법회를 개최한다.

〈이준엽 기자〉

청년보살대 육보시

대불련 포교사업 일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곽상인)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5월5일 외국인 노동자 권익옹호를 위한 '청년보살대 육보시'를 거행한다.

청년보살대 육보시란 대불련 회원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을 돕는 대불련 포교사업의 하나다.

대불련이 내달 5일 거행하는 육보시에는 대불련 회원 30여명이 동참, 불자기업체 등에서 수익금 확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펼친다.

생활한복발표회

여불련 13일 동방프라자

정신대위령탑 건립기금마련 '생활한복발표회'가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의 주최로 지난 13일 오후2시 동방프라자 지하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여불련이 주최한 생활한복발표회.

이날 발표회에는 주부불자 30여명이 모델로 등장, 50여벌의 생활한복을 선보였다.

관람료 1% 연구비 활용

국립공원 및 관람료 사찰 현안개선 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열려 관람료 사찰의 관람수익금 1%를 대책위원회 사업추진 연구조사비로 활용키로 했다.

또한 관람료 인상 자율화에 따른 인상율은 국민의 정서에 맞는 선에서 추후 결정키로 했으며 내부적으로 심의 결정기구를 설치키로 결의했다.

베트남 불교지도자 석방 촉구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지난 13일 도무오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한국방문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인권탄압국가인 베트남의 경제지원 반대와 후엔 콩스님(베트남 종정)등 불교지도자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0일 산중다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전향 장기수 가족의 서신을 공개하는 한편 성명을 통해 비전향 장기수들을 고향에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다.

경향신문 불자회 창립

경향신문 직원들로 구성된 경향신문 불자회가 창립됐다.

경향신문에 근무하는 불자 47명은 지난 16일 서울 북한산 노적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불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금융단 불교합동법회

제13회 금융단 불교합동법회가 22일 오후4시30분 서울 신탁은행 본점 강당에서 봉행된다.

매년 봄, 가을에 실시되는 금융단 불교합동법회는 서울소재 13개 금융기관 불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여주불교사암연 창립

여주불교사암연합회가 창립된다. 여주지역 37개 사암과 신행단체들은 오는 26일 오후2시 여주 군민회관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정식 출범한다.

이날 법회에는 손현심(명불사 주지)스님이 초대회장으로 취임한다.

마·창 불교연 봉축행사 다채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한지안)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20여차례의 봉축기념행사를 봉행한다.

23일 시민 탑돌이 법회를 시작으로 기념행사의 막을 여는 연합회는 30일에는 경남도단위 행사로 1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마산·창원불교연합회는 이날 연합봉축 대법회를 개최하며 경로잔치, 소년소녀가장위문, 불교어린이 백일장 및 사생대회, 교통안전기원 염주달아주기등 다양한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 마을이 개설, 외국인 노동자들이 축하연을 펼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마을 문열어

인권보호·법률상담·의료알선등 전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권익옹호를 위해 불교인들이 마련한 '외국인 노동자마을'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경불련을 비롯한 승·재가자들이 대거 참여한 외국인 노동자 마을(운영위원장 김동흔)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조계사 총무원 1층 강당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노동문제 해결과 법률상담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주력하게 될 노동자 마을은 의료기관 알선, 법회장소와 쉼터제공, 한글 및 한국문화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도 전개할 방침이다.

김동흔 운영위원장은 창립취지 설명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불교인들의 마음이 모아졌다"고 밝히고 "법률과 제도 마련등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창립된 '외국인 노동자마을'에는 불교자원봉사회, 전승련, 정토포교원, 무애원, 군포 광명의원등이 후원단체로 참여했으며 스님과 재가불자등 사회 각계각층의 불자들이 참여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스님)는 지난달 31일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개소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쉼터제공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

포교사 4백명 배출

동대불교대학원 연수 후 시험거쳐

동국대 불교대학원(원장 목정배)은 5월27일부터 28일까지 포교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연수교육은 동대 불교대학원 수료생 4백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해 포교사증을 재발급한다.

포교사 연수교육 일정은 27일 '세계불교의 현황과 21세기의 전망'이기영교수 '불교사회 복지사업의 실태와 문제'손준규교수 '한국불교의 법맥'윤청광씨 의 강연과 28일은 '미래불교의 포교'목정배교수의 강의로 실시된다.

교계 장애인 행사 잇따라

조계종 22일 자선 큰잔치…관심 지속돼야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종단, 신행단체별로 장애인을 위한 행사가 줄을잇고 있다.

조계종 문화사회부(부장 시현)는 22일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환으로 장애인 자선 큰잔치를 조계사 앞마당에서 펼친다.

수용시설 장애인 초청으로 열리는 자선큰잔치는 법회, 성금전달, 공연으로 진행된다.

부천 석왕사 법륜회(회장 김용수)도 지난 16일 과주 공능유원지에서 '제3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날' 행사를 가졌다. 부천지역 택시운전 불자들의 모임인 법륜회는 이날 휠체어 및 .뇌성마비 장애인 40여명을 초청, 야외나들이를 했다.

이밖에도 연화복지학원등 교계 장애인 단체도 부처님오신날 합동법회와 야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행사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2면〉

열차사고 유족 위로

화순사암연 위령재 계획

전남 화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산스님) 소속 스님 10여명이 지난 11일 화순 열차-버스 충돌사고로 숨진 사망자 유족들을 방문하고 이들을 위로했다.

화순사암연 스님들은 사고직후 현장을 둘러보고 사망자들이 안치돼 있는 전남대, 조선대, 보훈병원을 차례로 방문 사망자들을 위한 독경과 영가천도를 실시했다.

정타스님(화순사암연 총무)은 "지역민의 아픔을 같이하는 것은 불제자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유족들과 상의한 후 합동위령재를 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주 법우회 22일 법회

경북 상주 법우회(회장 박용식)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상주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부처님 오신날 기념 정우스님(구룡사 주지)초청 대법회를 봉행한다.

영탑공원 준공법회

제주 한마음선원 23일

제주 한마음선원(지원장 혜묘스님)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선원에서 영탑공원 준공식 및 대행스님 초청 대법회를 개최한다.

조상을 바르게 모실 수 있는 영탑공원 조성으로 효심을 회향코자 마련된 이번 대법회는 준공식에 이어 대행스님의 법문이 있을 예정이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조성되는 영탑은 서탑식 유골함이 있어 16구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다.

60억 투입 등산로 유적 정비

문화재관리국 서울근교 중흥사지등 36건 훼손 밝혀

문화재관리국은 올해부터 99년까지 5년간 60억원을 투입, 북한산 인왕산 도봉산 관악산 남한산성 등 서울 근교의 5개명산 등산로변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정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문화재관리국은 이를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20개 주요 등산로변에 있는 사찰, 석물(石物), 옛건물터, 성곽, 독립운동가 묘소 등 62개 문화유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북한산의 중흥사지(重興寺址·지방기념물 136호), 화계사 대웅전(지방유형문화재 65호), 도봉산의 천축사부도 등 36건의 문화유적이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고 건물지의 유구(遺構)인 주춧돌과 기단석등이 흐트러져 있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북한산 상운사, 관악산 용운암 마애승용군(磨崖僧容群), 남한산성 동림사지 등 21건의 경관지해 유적을 서울시, 경기도,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안에 정비키로 했다.

또 96년에는 고려때 창건되어 조선 숙종때 중건됐던 중흥사지, 북한산 승도절목(僧徒節目), 연주암의 전신인 관악산 관악사지·일명사지(逸名寺址) 등 13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전국 강주·교육관계자 연석회의

조계종 교육원 오는 25일 개최

조계종교육원(원장 원산스님)은 지난10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교육원 회의를 갖고 「전국 강주 및 교육관계자 연석회의」를 오는 25일 오전11시 개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학연구소 주최로 한국사상사 및 교육관계를 주제로 내부 세미나를 매주 정착 시키기로 했다.

또한 지방승가대의 개선과 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 위해 설문조사를 추후 실시키로 하고, 사집과 아함경을 (재)편집하고 번역해 주를 달아 교재를 만들기로 했다.

틱낙한 스님 행선수련회

22~23일 청주 공림사서

불교지도자 틱낙한 스님이 지도하는 행선(行禪)수련회가 22~23일 양일간 충북 청주 공림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선수련회는 백련불교문화재단의 초청으로 방한한 틱낙한 스님이 직접 수련을 지도한다.

행선으로 평화로움을 추구하는 틱낙한 스님은 "우리가 깨어나는 것은 깨어있는 성실한 걸음을 걷는 것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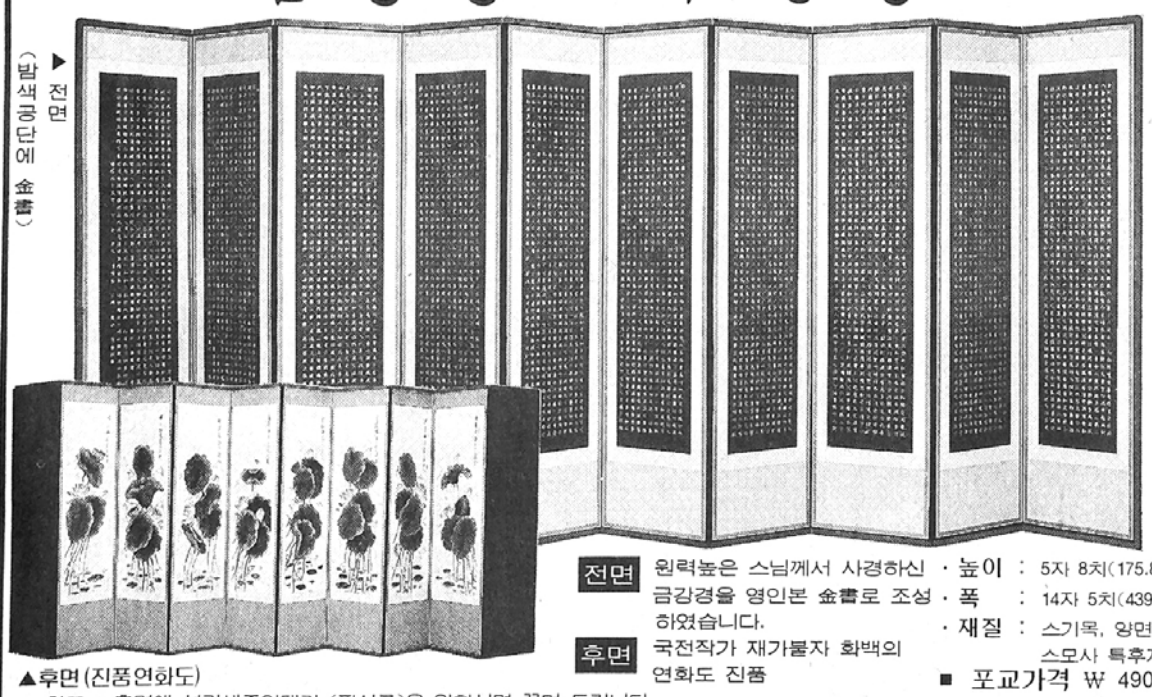
행선수련회 참석을 원하는 이는 22일 오후5시까지 공림사에 도착하면 된다. 동참금 5만원.

(02)277-2676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기념 금강경 특별제작

봉 불자님들에게 한정 수량 특별 보급합니다 축

금강경 10폭 병풍



▶ 전면 (남색공단에 金書)

▲후면(진품연화도)

전면 원력높은 스님께서 사경하신 금강경을 영인본 金書로 조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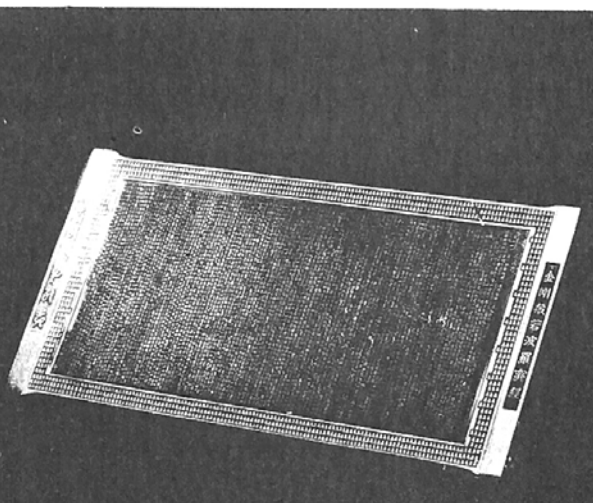
후면 국전작가 재가불자 화백의 연화도 진품

· 높이 : 5자 8치(175.8Cm)
· 폭 : 14자 5치(439.5Cm)
· 재질 : 스기목, 양면비단, 스모사 특후지

■ 포교가격 ₩ 490,000

※ 참조 : 후면에 석가세존일대기 (팔상록)을 원하시면 꾸며 드립니다.

秘經 천불금강경 경판



※ 경판테두리에 부처님 천 분을 입체조각으로 조성하고 가운데 금강경을 양각하였습니다.

· 경판규격 : 505×255×8(m/m) · 재질 : 주석(99.9%) 순금(24K) 양표면처리 ■ 특별가격 ₩ 480,000

(클로버써비스)전화 080-023-1101, 지방에 계신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클로버써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기획 제작 三田佛事 (조계사 후문)
■문의처 : (02)732-6095~6

불교전통표구, 각종 불교행사기념품, 사찰인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여 드립니다.



만인송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제 모습·제 향기 지닐 때 아름다와

세상살이에는 분명 자신만의 길이 오롯이 있다. 분득 혼돈에서 깨어나 잠시 제 영혼에 귀 기울여 보면 어쩌면 그렇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영겁(永劫)의 세월이 있어야 했는지를.

따라서 시대나 세기의 물음조차 철저히 자신의 외부와 밖으로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의 희열에 감응하게 되는 것이다.

진정 하늘은 만인에게 제 모습을 주었거늘 우리는 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오로지 물질시대에 생사의 굴레에서 무엇에 기여하기 보다는 소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비록 저마다의 가치추구가 다르다 해도 본질의 성정(性情)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조화속에 존재하는 법주인 까닭이다. 따라서 사람답다는 것은 저다운것이고, 저다움은 아름다움이요, 아름다운 것은 곧 생명의 질서에 융합하는 삶인 것이다.

우리는 마치 조화로운 꽃처럼 대자연과 생태계의 순리 속에서 저마다의 빛깔과 제 향기를 지닐 때 비로소 자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자의 노래는 그저 소리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수행자의 깊처럼 냉엄하면서도 천연해야 하고, 제 노릇과 세상살이의 조응이 함께하여 시대에 가위눌린 아픔의 부재와 기쁨의 희열까지 수반하여 만인의 노래속으로 녹아들어야 하는 것일 테다.

나 또한 그 앞을 찾아 떠나고 싶다. 그것은 오로지 비바람속에 부침하며 영욕을 불살라야 했던 세월 속에도 끝내 '이 흙에 새길'의 의미를 잃지 않는 꿋꿋한 만남의 연(緣)을 그리워 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자신을 성찰하기에 펼쳐 일어나기 보다는 내가 앉을 빈자리를 둘러보고 싶다. 그 자리를 찾아 내 임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본성과 노래를 찾는 일이요, 궁극적으로 자신을 실현하는 길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호신 〈동양화가〉

세상의 손발 되어 ①

주부신행담

불교와의 귀중한 인연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낸 나는 어려움과 가슴 태우는 아픔을 당하고서야 무엇인가 잘못 되었음을 느꼈고 비로소 발심을 하게됐다

나의 친정은 언니가 시집을 할 적한 기독교 집안으로 가면서 결국 기독교로 동화되어 버렸다. 나또한 기독교계통의 대학을 나오면서 젊은 시절 기독교적인 감성을 지니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일년에 한번씩 세례 의식이 있었고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와서는 설교를 하고 "여러분 세례 받으실 분은 모두 일어서시요" 하면 강당에 앉은 몇천명이 우루루 일어서면 일제히 세례를 주곤 했다.

번번히 참석은 하면서도 항상 나의 뇌리속에는 일생을 두고 지켜야 될 약속인데 가볍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한번도 일어서지 않았다.

꼽은 기분에 친구들 성화에 한번 쯤 시늉만도 하건만 끝까지 일어서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내 마음속에 불법과 인연이 깊었기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1남 8녀 집안의 외며느리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할머니같은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같은 시누님들이 계시는 서울 토박이 완고한 집안이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는 부처님께 정성들인 기도 덕분에 얻은 아들이라고 늘 말씀하셨다.

결혼이 여자의 일생을 어떻게 좌우하고 얼마나 참으며 살아야 될 남들인지도 까맣게 모른 채 행복과 꿈에 부풀어 나의 결혼생활은 시작했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여자형제들 속에서 과보호를 받으며 자란 남편은 나보다도 더욱 세상을 몰랐다. 또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최고의 대우와 내조를 원했고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자기만을 위해 주기를 바라는 외동아들 특유의 모습을 모두 갖췄다. 나이 많은 시어머니께서는 일년에 한번 정초면 내가 절에 가기를 원했지만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잘 다니지는 않았다. 가끔 한번씩 가보아도 절만 덜번 하고 염불소리는 알아듣지 못하니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부처님 말씀과 교리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였고 오직 기복적 의식뿐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런 서원조차 가지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불교와의 귀중한 인연의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보낸 나는 어려움과 가슴을 태우는 아픔을 당하고서야 무엇인가 잘못 되었음을 느꼈다.

손귀한 집에서 나는 딸 둘을 낳은 후에 아들을 낳았다. 온집안이 축복해 주고 기뻐한 아들이었다. 아들은 건강하고 착하게 잘자라 주었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다. 그런 나의 아들이 고 3에 와서 잘못될 줄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언제나 자신이 할 일을 알아서 잘하고 있을 줄만 알았던 아들이 이민가는 친구에 휩쓸려 함께 놀며 술마시다 보니 시험준비를 소홀히 하였던 것이다.

어느날 문득 무엇인가 잘못돼 가고 있음을 느낀 나는 학원으로 달려나갔다. 교실 어디에도 아들은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이리저리 동네를 뒤져서 오락실에 가 있는 아들을 간신히 발견하고는 야단을 치고 사정도 해보고 눈물로 호소도 해보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맛보아야 했다.

"엄마,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돼 버렸는지 스스로도 미워서 견딜 수 없어요"라고 울먹이는 아이와 함께 나도 울었다. 착한 아이였는데…

그러면서 속고, 또 속고, 남편의 아들에 대한 실망은 삶의 의욕마저 잃게 했다. 나 또한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힘든 시간들을 견뎌야만 했다.



내 잘못으로 아들이 잘못 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 또한 컸었다.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나는 부처님께 의지하여 기도를 해야겠다고 발심하게 됐다. 나를 발심하여 정진의 길로 들게한 동기 제공자는 바로 나의 아들이었다. 아들은 나의 선지식이었던 것이다.

동 여래성 〈구룡사 진리의 전화 회장〉

영어로 배우는 경전 — 선생경 ⑭〈끝〉

In this way ministered to as the zenith, recluses and brahmins show their love for the members of the family in six ways. They keep them from evil. They exhort them to do good. They love them with kindly thoughts. They teach them what they have not learnt. They correct and refine what they have learnt. They reveal to them the way to heaven.

이렇게 상방으로 봉사받은 수도자와 브라만은 여섯가지 방법으로 재가자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다. 그들은 선행을 권한다. 그들은 다정한 생각들로써 재가자들을 사랑한다. 그들은 재가자들이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쳐 준다. 그들은 재가자들이 배운 것은 교정하고 다듬어 준다. 그들은 재가자들에게 천상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다.

When the Blessed One had thus spoken, Sigala the young householder said this. "Excellent, sir, excellent! It is as if one should set upright what had been turned upside down, or reveal what had been hidden away, or show the way to a man gone astray, or bring a lamp into darkness so that those with eyes might see things there. In this manner the Dhamma is expounded by the Blessed One in many ways. And I take refuge in the Blessed One, in the Dhamma and in the Community of Bhikkhus. May the Blessed One receive me as his lay-disciple, as one who has taken his refuge in him from this day forth as long as life endures."

축복받은 이(부처님)가 이렇게 설하자 젊은 장자 시갈라가 말했다. "부처님, 훌륭하십니다. 마치 전도된 것을 바로놓는 듯하며 숨겨졌던 것을 내보인 듯하며 길잃은 자에게 길을 보여주는 듯하며 눈가진 자들이 사물을 보도록 어둠에 등불을 가져오는 듯 하나이다. 이렇게 축복받은 이는 여러 방법으로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저는 불법승에 귀의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오늘부터 제삼이 계속되는 한 저를 귀의한 재가신도로 받아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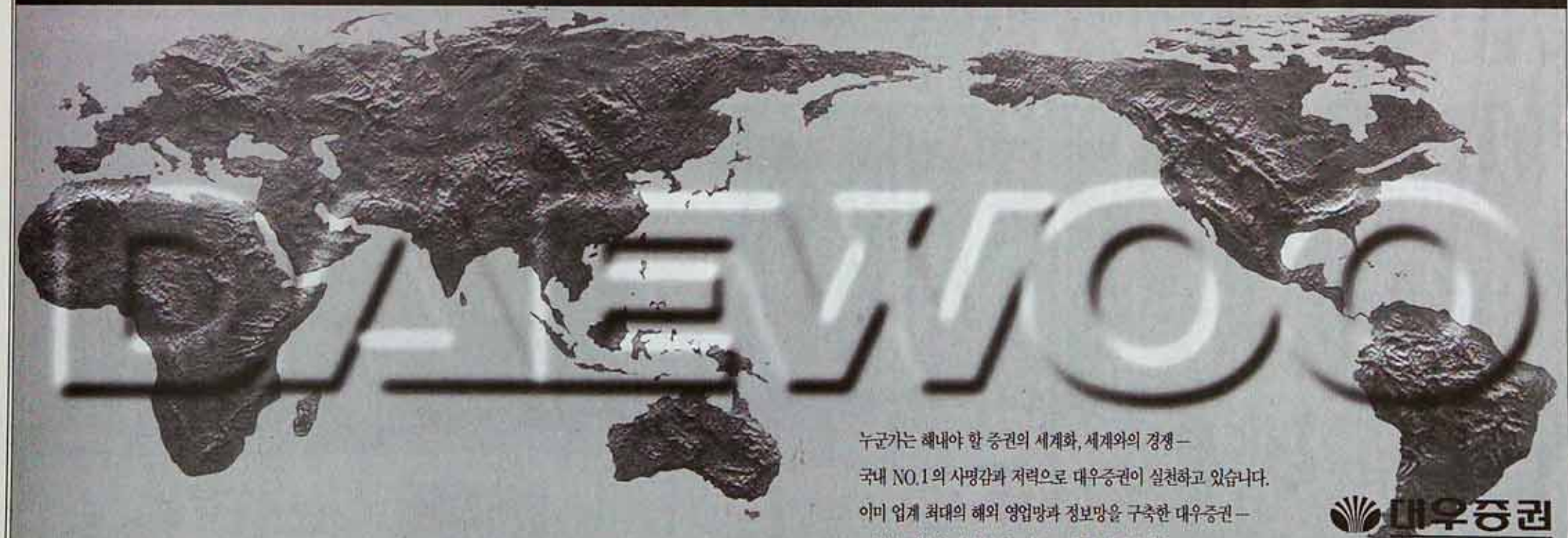
*exhort: 권유하다, 훈계하다.

〈박미영 기자〉

깨우친 목석보다는
자비심 있는 중생이 더 아름답다.

한마음 요전
대행스님 구도행장 · 법어집
· 목숨을 건 십여 년의 처절한 구도행장
· 살경의 숲을 가로지르는 명쾌한 법어
대행스님께서는 '말' 속에 '강경' 속에
갇힌 불법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불법은 곧 삶이요, 삶은 곧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 기획 · 편집: 한마음선원
· 제작 · 보급: 도서출판 여시아문
☎ 02)737-0695

세계와의 승부- 1위 회사의 사명입니다



누군가는 해내야 할 증권의 세계화, 세계와의 경쟁—
국내 NO.1의 사명감과 저력으로 대우증권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업계 최대의 해외 영업망과 정보망을 구축한 대우증권—
고객과 더불어 세계의 큰 산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대우증권
대우경제연구소
대우투자자문

진리의 전화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구룡사 부설 인생상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 579-3033

'정혜결사' 오늘로 잇는 삼학도량

내일의 아라한들 ③

젊은 학승 탐방 송광사 강원

보조도량의 전통을 이어 결사정신으로 정진하고 있는 송광사 불교전문강원. 이곳을 학인스님들 스스로 삼학도량(三學道場)이라 부른다. 정혜결사의 전통을 잇는다는 뜻과 함께 계정혜(戒定慧) 삼학을 쫓는 곳이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오후2시 법성료(法性寮)내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강주인 지운스님을 비롯해 사집 사교 대교과의 학인대표 6명이 참석해 좌담회를 열었다. 주제는 '불교전문강원의 위상과 역할.' 전문강원의 전통 중에서 무엇을 계승하고 개선하며,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두고 2시간이 넘도록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다.

좌담이 무르익는 가운데 학인스님들의 얘기가 추스려졌다. 수백년 이어온 전통 속에 예불 원전강독 간경 논강 습의 율력 등 해행일치(解行一致)를 지향하는 장점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통강원에는 강사진의 부족 시설의 낙후 등 변화되어야 할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빈틈없는 수행 일과표

이날 좌담을 준비한 〈해청당(海淸堂)〉 편집실의 한 학인스님은 "21세기가 6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속사회뿐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미래사회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깨달음과 불법은 시공을 초월한다고 하지만, 현실을 떠난 법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때, 한국불교의 개혁 또한 수행자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라는 말로 좌담회의 배경을 설명해 주었다. 수행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넉넉히 전해주는 말이다.

여느 강원이나 그러하듯, 송광사 불교전문강원의 하루일과도 새벽 3시에 기상해 저녁 9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간경과 예불 논강으로 쉼없이 이어진다. 그런만큼 속인의 출입이 어려운 곳이 강원이다. 외부인의 출입은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것도 대중공사를 통하거나 학인 대표(입승)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는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는 것이 철칙이다. 외부인을 멀리하고자 그러는 것이 아니다. 온몸을 던지는 수행정진에 철두철미하게 몰두하고자 함이다.

35명의 학인스님들은 새벽 3시에 기상해 도량석과 예불을 마치고 4시30분부터 간경 또는 각반별로 논강을 한다. 6시 아침공양까지는 각자 금강경을 독송한다. 7시 상강례 전까지는 도량일을 돌보는 합동울력시간이다. 상강례는 강원만의 독특한 것으로, 경율논 삼장을 공부하겠다고 부처님께 예를 갖추는 의식이다.

8시30분부터 2시간 동안은 본강이며, 점심공양까지 간경과 독경을 한다.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는 은사스님 시봉을 들며, 이후에는 다시 간경과 독경으로 이어진다. 5시30분 공양시간 전까지는 사미 사집 사교 대교과 등 학제별로 공부한다. 다시 저녁예불과 특별활동 좌선이 9시까지 계속된다.

학인스님들의 정진시간표는 저녁 9시에 마치지만 도서관은 예외다. 사중에서 유일하게 밤늦도록 불빛을 볼 수 있는 곳이 강원 도서관이며, 그 불빛을 밝힌 스님들이 강원의 학인들이다.

이곳은 다른 강원과 달리 몇가지 특색이 있다. 전통으로 내려오는 강원의 이력과목에 보설과목과 보조법어가 추가돼 있다. 어떤 강원보다 공부하는 양이 많다. 철저한 수행인의 자세가 없이는 배겨내기 어려워 언제부터인가 스님들 사이에서는 '송광사는 공부하는 곳'으로 통한다.

행자부터 대교과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전통이력과목과 보설과목 보조법어 그리고 불교사 등 40여 과목을 떼야 한다. 또 사원건축 불교미술 등 특강과 어학과목이라도 강사는 반드시 스님이어야 한다는 전통이 지켜지고 있음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아집이 아니라 승가의 존엄의 표현이다.

'회광반조' 지침 삼아

경전공부는 철저하게 문답과 논강법으로 이뤄진다. 강사스님이 그날 배울 부분의 대강을 설명하고 학인들에게 일일이 되묻는다. 강의중 으문이 있으면 서슴치 않고 질문한다.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뜻을 새겨야하기 때문이다. 지운스님은 이 방법을 "절집 고유의 것"이라며 "불법의 지혜를 체득코자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대교과의 진경스님은 "글도 잘 새기지 못하는 나에게 능엄경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강사스님과 도반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능엄경은 지금까지 내가 사물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지운스님은 이와함께 강원은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수행도량임을 강조한다. 불교는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적 논리의 교육이라는 말로는 불법의 내용을 모두 담아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승가의 생사해탈을 향한 일체의 작위적 행위에는 교육보다는 수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 본의에 맞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의 정식명칭은 승가대학이 아니다. '송광사 불교전문강원'이다.

"무릇 부처와 조사님들의 말씀을 보고 듣고 외우고 익히는 사람은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는 마음으로, 제 지혜로써 이치를 비추어 보고, 그 말씀대로 수행하여야 하니 그것은 스스로 부처의 마음을 닦고 부처의 도를 이루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권수정혜결사문 중〉

고려시대와 조선조를 통해 16국사를 배출해 승보종찰로 불리는 송광사에는 보조국사 지눌스님의 가르침이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있다.

한편 사중에서는 지금 강원으로 쓰고 있는 법성료를 해체해 증축할 예정이다. 학인들이 계속 늘어나 법성료로는 좁기 때문이다.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안에 공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송광사=정성운 기자〉



◇ 강원은 곧 수행도량이다. 송광사 강원에서는 해마다 승속이 둘이 아님을 일깨우기위해 시내로 탁발을 나서기도 한다.

40여과목 탐구 철저…16국사 배출 자랑



◇ 불교전문강원으로 쓰이고 있는 '법성료'는 곧 해체, 증축될 계획이다.

역대 강주

석전·운성스님 맥 이어

16국사를 배출한 전통이 말해주듯 송광사에는 1930년대까지도 금명 임석진스님 등의 출중한 강백들이 이곳에서 학인들을 지도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농지개혁의 소용돌이와 대웅전이 전소된 6·25의 전화를 입어 강원은 물론 대중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지기도 했다.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운성스님의 원력이 컸다. 백운스님을 강주로 초대해 명맥이 끊겼던 강원을 다시 열었다. 정식으로 강원을 개설한 이때가 1982년. 물론 구산스님이 조계총림을 개설한 후 인산스님의 강의로 75년 강원을 열었으나 사미과 수학에 그치고 말았다.



◇ 석전 스님



◇ 운성 스님

백운스님의 뒤를 이어 종진스님 운성스님이 강주를 맡았으며, 근대 불교교육원의 선구자로 불리는 석전스님(박한영)으로부터 전강을 받은 운성스님이 93년까지 10여년 동안 송광사의 강맥을 실질적으로 지켜왔다. 현 강주인 지운스님은 운성스님의 뒤를 이어 3년째 30여 학인들과 함께 정진해오고 있다.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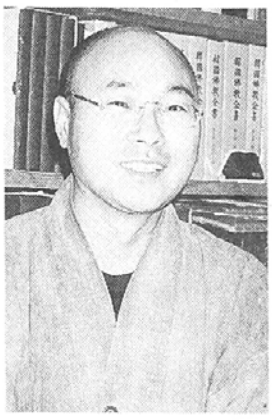
강주 지운스님

"교육아닌 성불위해 일념정진"

"강원은 수행도량이고 학인은 구도하는 수행자입니다."

지운스님은 강원을 승가대학 또는 교육기관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불교에는 애초에 교육이라는 말이 없었을 뿐더러, 교육이라는 타율적이고 피동적인 개념에 불교수행의 자율적 차원을 가둬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불교집안에서의 교육의 최종목표는 성불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지어가는 일체의 행위는 그 본질에 있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수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타율적인 방법으로는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생사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운스님은 또 강원을 승가대학이라 지칭하고 수행기관으로 가기 위한 기본교육기관으로 규정한 현재의 종단 교육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그러므로 강원은 수행도량이며 학인은 구도하는 수행자"임을 거듭 강조하고 "송광사 불교전문강원이 나아갈 방향도 철저한 수행을 통한 생사해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운스님은 수행의 길은 계율준수에 있음을 강조 했다. "계(戒)는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망상심을 제어하는 힘입니다. 계하나만을 지켜도 정(定)과 혜(慧)가 같이 따르는 삼학동전(三學同轉)이 되는 것입니다."



봉 하나되는 세상! 부처님 세상! 축

부처님 오신날 행사 종괄표

불기 253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모든 행사가 원만히 회향되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행사명	장소	일시	집행부서
법요식	1. 법요식	조계사 대웅전	5/7 10시	봉축위원회
	2. 세계의 민족이 하나되는 봉축 기원 대법회	여의도 광장	4/29 16~20시	〃
	3. 제등행렬	여의도 광장-조계사	4/29 17:30분 출발	〃
경축행사	1. 시청앞 평화의 탑 점등식	시청앞 광장	4/27 19:30분	〃
	2. 원각사지 탑돌이	탑골공원	5/3 19:30분	〃
	3. 청소년 종합예술 경연대회	동대 중강당	5/14 14~18시	청소년 교화연합회
	4. 광복50주년 민족통일 천수천안관음송가 공연	세종문화회관대강당	4/8 19시	삼보사합창단
	5. 청소년 음악회	파리공원	5/13 19시	목동청소년회관
	6. 어린이 백일장	목동청소년회관	5/14 10시	〃
	7. 서울 인형제(국제인형극제)	〃	5/26~28 14~16시	〃
	8. 지하철역 봉축등 밝히기	지하철 각역구내	4/24~5/13	불교총연합회
	9. 불교 웅변대회	조계사 대웅전	4/30 14시	불교웅변인회
	10. 아동극 공연	목동청소년회관	4/21~5/7(1일3회)	목동청소년회관
	11. 불교음악의 밤	국립극장소극장	4/26 19:30분	누메르우노
	12. 시 낭송회	조계사문화회관	4/22 17시	현대불교문학회
	13. 불교미술세미나(불교미술 재조명)	프레스센타	4/25 14시	문화사회부
	14. 〈봉축 세미나〉 21C 인류문명의 전망과 불교의 역할 -21C 인류문명의 전망 -21C 한국사회 전망과 불교의 역할	조계사 문화회관	4/21 14~18시	봉축위원회
	15. '부처님 오신 날'학술 세미나 -불교신행, 그 문제점과 방향	동국대학교 동국관	5/4(목) 13:30분~17시	동대문화연구원
	16. 고승초청 도덕성회복에 대한 법회	조계사 대웅전	4/23 11시	봉축위원회
	17. 만등(萬燈) 만화(萬花) 공양법회	MBC문화체육관	4/22 15시	연화플라워회
	18. 연꽃 노래 잔치	동대 중강당	예선 4/2 13시 본선 4/30 13시	서울불교청년회
자비의 목탁	19. 자비의 목탁 달아주기(운전 무사고 기원)	강원도 강릉역 마포 청기와 예식장앞 금촌 한전앞	5/1 9시 5/6 9시 5/6 9시	시대불교신문사
	20. 아동극 "단군 할아버지"	동숭아트센타 동숭홀	5/13 15~17시 5/14 11~14시	극단 동쪽나라
	21. 전통 불교의식 융구 특별전	국립민속박물관	4/25~5/17 9시~17시	동국대학교 풍도사
	22. 전통등 실연 및 강습	불교회관1층 조계사문화회관	4/30	
내용	행사명	장소	일시	집행부서
비와 손길	1. 일선장병위문	전후방부대	4/15~5/20(기간)	전국 사찰
	2. 일선장병 위문	증부전선○○부대	4/21 15시	봉축위원회
	3. 도법 청소년 장학금 지급	청소년회관 교육실	4/29 18~19시	목동청소년회관
	4. 장애인 자선 큰 잔치	조계사	4/22 15시	봉축위원회
	5. 노인재소자 위문 잔치			연예인 불자회(송춘회)
	6. 외국인 노동자 법회	조계사	5/5 11~14시	봉축위원회 문화사회부
	7. 불우이웃돕기		4/15~5/20(기간)	봉축위원회 문화사회부
	8. 서울 구치소 재소자 수계법회	서울구치소	4/28 11시	삼보사
	9. 무차대회	탑골공원	5/3	봉축위원회교육원
	10. 경로위안 잔치	도선사 경내	4/20 10~15시	도선사
	11. 교도소 위문 및 수계식	안양교도소	4/26 14시	도선사
	12. 미화원 위문 법회	노원구민회관	4/28 13시	노원불교연합회
	13. 전방 OP경례의 등 점등	백암 OP	4/25 18시	군법사단
		아산OP	4/24 18시	〃
		을지전망대	4/25 18시	〃
		백석OP	4/25 18시	〃
		통일전망대	4/28 18시	〃
		도리OP	4/25 18시	〃
		비룡OP	4/20 18시	〃
		계웅OP	4/26 18시	〃
		댈공OP	4/18 18시	〃
		필승OP	4/25 18시	〃
		중각OP	4/20 18시	〃
		태풍전망대	4/21 18시	〃
		애기봉	4/14 18시	〃
		제적봉(758OP)	4/20 18시	〃

불기 2539년 4월 일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부처님 오신날」봉축 위원장 송 월 주

대 불 광

법공양 페이지

*……현대불교신문은 교계의 각 종단 또는 사찰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법공양면을 신설했습니다. 신설 법공양면은
*……본지의 편집의도에 따라 제작되는 기존의 지면(주16
*……면)과는 별도로,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이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자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불심과 예술혼이 만나는 '열린 공간'

대불광 출품 작가


◇오윤용


◇김의홍

▲오윤용
·문화재 수리기능인
·출품작:포대화상(괴목나무) 지장보살(〃) 미륵반가사유상(괴목나무·채색)
·연락처:경남 김해군 대동면 예안리 시례 807번지 (0523-84-6177)


◇정호석


◇김태길

▲정호석
·문화재 수리기능인
·출품작:동자상 세트(괴목나무) 법상 경상, 12지상조각
·연락처: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510-19 (051-204-3900)


◇조병현


◇서동식

▲조병현
·문화재 수리기능 조각공
·출품작:나반존자 목송(은행나무), 불감(돌배나무)
·연락처:부산시 사하구 하단2동 492-28 (051-202-4838)


◇이희옥


◇윤수천

▲이희옥
·청원스님, 문화재 수리기능인
·출품작:동자상(동) 동지, 동녀(홍송)
·연락처: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1858번지 3통1반 (051-972-3912)


◇이상철


◇김용섭

▲이상철
·문화재 수리기능인
·출품작:관세음보살상(은행나무) 지장보살1상
·연락처:부산시 해운대구 재송2동 시영아파트 13동 303호 (051-782-1445)


◇김대현


◇이재순

▲김대현
·문화재 수리기능인
·출품작:포대화상(국산 향나무 1점 괴목 1점)
·연락처:부산시 기장군 교리 271-5 (0523-362-2476)


◇안태수


◇김석현

▲안태수
·목공예가
·출품작:아미타불(은행나무) 경상(홍송) 불전함(수입목 알마사카)
·연락처: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347-20 (051-201-0862)


◇김광열


◇이철승

▲김광열
·문화재 수리기능인
·출품작:금강역사(화강암) 포대화상(〃) 와불(〃) 코끼리(〃)
·연락처:충남 논산군 광석면 왕정리 611-5 (0461-34-0309)


◇남기설


◇진철문

▲남기설
·문화재 수리기능인
·출품작:지장보살(은행나무) 삼존불(괴목)
·연락처:부산시 북구 덕천2동 305-38 (051-337-2137)

▲김익홍
·문화재 전통조각회 회장
·출품작:포대화상(회화)
·연락처: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53-54호 (379-1307)

▲김태길
·문화재 수리기능인
·출품작:지장보살상
·연락처:충남 공주군 계룡면 봉명리 383번지 (0461-857-1837)

▲서동식
·조각가
·출품작:관음보살상(은행나무)
·연락처:서울 노원구 공릉1동 597-18 B02호 (949-1993)

▲윤수천
·윤조각실 대표
·출품작:관음보살상(입상 2점) 백의관음보살상
·연락처: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16-1 (713-3560)

▲김용섭
·문화재 수리기능인
·출품작:미륵반가사유상(동)
·연락처: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오남리 736-12 (0346-552-3853)

▲이재순
·문화재 수리기능인
·출품작:석가모니불(화강암)
·연락처: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40-15 (0346-63-5443)

▲김석현
·조각가
·출품작:분수동자상(목조)
·연락처:서울 중랑구 묵1동 121-37호 (0346-571-9267)

▲이철승
·보리수 불교미술원 원장
·출품작:신중탱(회화)
·연락처: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 298-45 (738-4633)

▲진철문
·한국불교조형연구소 연구위원
·출품작:참선, 명상(동) 접시 도자기
·연락처:경기도 용인군 외사면 근곡리 476 (0335-34-1002)



◇지난 1일 개원한 「대불광」의 전경. 조계사 앞길의 새로운 볼거리로 등장한 대불광의 입구에는 김광열씨의 석조각 금강역사 포대화상 와불상 코끼리상등이 전시돼 있어 지나는 행인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국내 최초의 불교미술 종합 전시 공간인 「대불광」이 지난 1일 문을 열었다.

국내에서 활동중인 비중있는 작가들의 조각, 회화 작품들을 엄선해 상설전시하는 대불광은 불교미술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열린 공간이기도 하다. 출품작가들의 대부분이 문화재 수리기능인 또는 불미전 입상자들이어서 '대불광'은 오늘의 불교미술을 한 눈에 관망할 수 있는 자리로서의 역할로 하게 된다. (문의:738-1117~8)

약도





인터뷰

관장 허 길 용씨

"대불광은 다양한 불교미술품들을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지난 1일 문을 연 대불광의 관장 허길용씨는 자신도 불교전문 조각가로서 '종합전시관'이 없었던 그간의 사정이 안타까와 이같은 종합 전시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단순한 전시 기능만을 하는 곳이기보다는 불교미술품과 감상자와의 거리를 좁히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란 신념으로 대불광을 개관했다는 것이 허씨의 얘기다.

"많은 작가들이 불교미술에 몸바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품이 일반인들에게 소개될 수 있는 길은 상당히 좁았던게 사실입니다. 대불광에는 작가들이 예술혼을 담아낸 수준급 작품들만 엄선해 전시할 계획입니다"

허씨는 자칫 기능 위주로 빠져들기 쉬운 불교미술을 폭넓은 대중화를 바탕으로 우리시대의 불교미술로 이끌어 가는 것도 대불광이 맡아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즉, 작가들의 예술적 기량이 충분히 발휘된 우수한 작품들을 전시함으로 불교미술에 대한 불자들의 안목 높이기 역할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다. 또 허관장은 대불광을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하는 공간의 역할과 함께 불교미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秀作 전시로 불자 안목 높일 터"

"불교미술품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찰의 불사에 쓰이는 소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물론 사찰이 수요의 중요한 대상이긴 하지만 불교미술품과 사찰불사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생각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대불광은 오늘의 작가들이 빚어낸 예술품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예술성이 초월된 곳에서 신앙적 경배심도 우러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허씨는 한국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작가들의 안목과 감상자의 안목이 함께 성숙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한 안목 키우기의 한 공간으로 대불광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 허씨의 심정이다.

허길용씨는 77년도에 제8회 불미전에서 조각 「천수천안관세음보살」로 금상을 받았으며 80년에 문화재 관리국 조각기능보유자로 선발됐다. (태)

계간「상상」주관 제1회 상상문학상 수상작

성낙주 장편소설

"붓다 시대를 다룬 세계 최초의 본격문학"

차크라바르틴

'붓다'와 '차크라바르틴'은 다 같이 민중들이 기다리는 구세주이다. 민중을 정신의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가 '붓다'라면, 고통스런 이 땅을 낙원으로 바꾸는 정신의 양이 '차크라바르틴'이다.



"차크라바르틴"은 불교라는 종교가 막 태동하고 발생하는 시간적·공간적 지점으로 내려가 그 본질을 탐색하고 있다. 석가족의 성자 고타마 싯다르타와 석가족을 멸망시켜 분족을 통일하려는 비유리 왕의 갈등이 작품의 근간을 이루면서 '붓다(닌존)'와 '차크라바르틴(轉輪聖王)'이라는 형이상학에 도전하는 진지한 주제와 문체의식이 돋보이는 소설이다. 오늘날 신화와 설화에 대한 우리 문화계의 새로운 관심은 세기말의 삶이 파편화·무문화 되었다는 반작용인 동시에 삶의 정체성과 전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문화적 새돌결임을 반증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신화와 설화가 직물 전체에 녹아들어 있는 "차크라바르틴"은 분명 늦어기 보아야 할 뛰어난 소설임에 분명하다.

'상상문학상, 심사평



작년 한 해, 세월 참 많이 나온 이 작품을 서른 번이나 새로 썼다. 힘고한 서른번도 수록 권이 넘을 것이다. 이 소설 속에는 지난 내 삶의 삶과 고통이 녹아들어 있다.

성낙주(수상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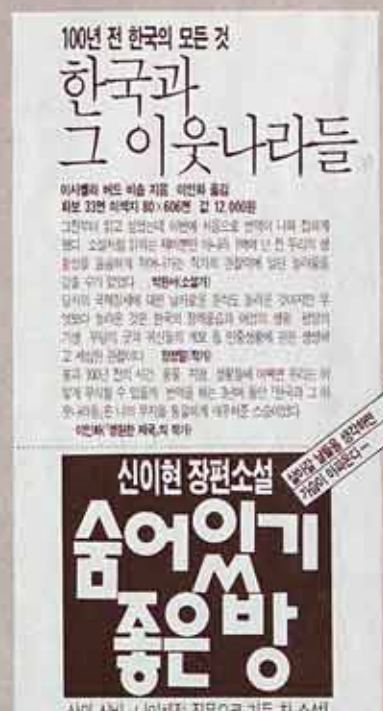


차크라바르틴 은 나를 어리석고 속박에 빠르는 소설이다. 이로부 무궁무진한 삶의 이야기를 찾고 있는 소설을 근래에 본 적이 없다. 이야기라면 무리도 없이 잘하는 저로의 나에게 이 소설이라도 기쁨 반가운 선물이었다. 정찬주(소설가)



차크라바르틴은 근래 보기 드문 대작이다. 우선 우리 정신의 근원인 동양정신을 주제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강한 이야기 서사의 힘은 독자를 장편임에 불구하고 끌어 들인다.

이인화(소설가)



이문열 사색집
사색
평생에 걸쳐 단 한 번 만나게 될 운명과도 같은 책!
값 5,000원

임철우 장편소설
그 섬에 가고 싶다
잔잔한 웃음과 투명한 눈물, 꿈의 언어들이 전편에 걸쳐 스며드는 아름다운 이야기
값 5,000원

양귀자 장편소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100만 독자로부터는 공감을, 신화적자로부터는 어신상을 받조했다는 평가를 받은 문제적 텍스트!
값 5,500원

기형도 유고집
짧은 여행의 기록
짧게 살다간 시인의 일기, 편지, 소설, 기행문 등 내밀한 영혼의 불꽃나무!
값 5,000원

유서로 장편소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극소수의 독자들이 읽었지만 그 독자들로부터는 극찬을 받은 보석같은 소설
값 5,000원

도서출판 살림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75-4 성일빌딩 304 305호
전화 379-4925, 4926 팩스 379-4927

본지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면은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문의 722-4162)

법공양 페이지

대불광

오늘의 불교미술 한 자리에 모아…



◇실내 우측 안쪽에는 지장보살상목조탱화 고행상 동자상 포대화상 신중탱 등이 진열돼 있다.



◇청원스님의 작품 동녀상(홍송)



◇실내 좌측에는 주로 목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전통과 현대적 기법으로 빚어진 다양한 작품들이 오늘의 불교 조각예술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



◇실내 우측 앞쪽에 전시된 산신탱조각, 천수천안관음보살, 대금강이 경상 법상등. 정교하고 아취한 조각이 돋보인다.



◇지난 1일 「대불광」 개원식에 참석한 교계 인사들은 불교미술의 발전에 대불광이 큰 기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컬러판

봉축현수막 제작 보급 안내

불기 2539년 (음)사월초파일 (양) 5월 7일

봉 부처님 오신 날 축

■봉축현수막 크기 및 보급가격 : 90cm×6 m(₩ 35,000), 90cm×8 m(₩ 45,000)

귀의삼보하옵고
불법홍포와 자비원력의 시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스님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적 축제인 부처님 오신 날에 각사암에 설치하는 현수막은
축제의 장엄물로서 전국민에게 불심을 전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두터운 불심으로 불교전통공예 제작과 보급에만 전념하면서
부처님의 성품을 통하여 다년간 우리의 미래—부처님 품안
포교를 펴고 있는 본 삼전불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탄생불과 불자의 근본인 삼귀의를 완벽하게 나타낸 현수막을
제작·보급하오니 스님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불교전통표구, 각종 불교행사기념품, 사찰인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여 드립니다.

三田佛事
圓空 金相吉 合掌

서울特別市 鍾路區 壽松洞 46-19 (한당 B/D 203호)
電話 : (02) 732-6095~6
FAX : (02) 732-6096

대중불교는 옳지못한 것을 가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바른것을 더욱 바르게 피는 일을 함께 합니다.

월간 대중불교,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제)대한정사



〈대중불교〉를 만나고서야 나는 마침내 말씀의 꿈틀이는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곧은소리
불기의 잣대는 언제나 부처님 마음입니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대중불교〉는 그 잣대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시사, 희복소리, 귀담아듣고 새겨볼 이야기, 연중기획, 특별기획 …

깊은 풀이
해석이 없는 경전은 없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옛것을 옛것으로 놔두지 않고 현실로 끌어와 오늘을 움직이게 합니다.
수행탐험, 세계의 선지식, 에세이 보살불교, 불교교리 산책, 법당이야기, 불교와 민속, 얼과 문화, 메시지를 찾아서 …

넓은 만남
경전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공장 부처를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방송교재 경전강의, 교리강좌, 불교 영어 한마디

대중불교

정기구독문의:전화(02)773-5731, 752-7047, 754-1614
팩시밀리(02)771-67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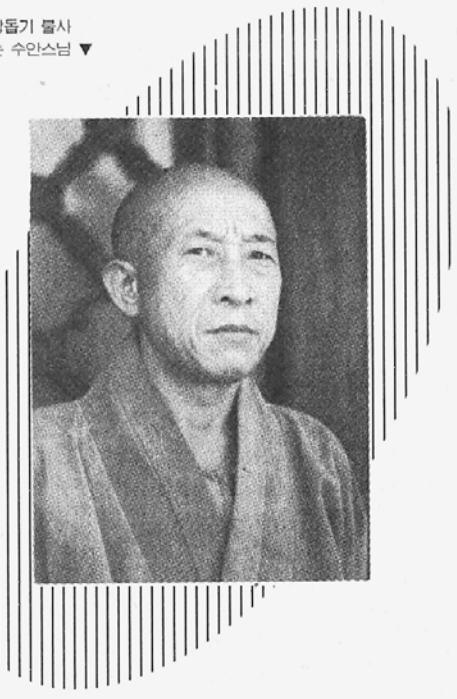
"법당기도 화실로 옮겼을 뿐, 나의 그림은 한마음의 기도이지요"

붓과 선(禪)의 만남 · 수안스님과의 만남

편/집/자/주

통도사 축서암에서 선수행과 함께 특유의 선화(禪畵)를 그려온 수안스님(현 통도사 자비원장)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이 주최하는 「소년소녀 가장돕기 및 불사를 위한 수안스님 초청 한마음 특별전」이 오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운현궁 미술관에서 열린다. 선승의 마음이 화폭에서 여백의 미와 함께 표현되는가 하면 해맑은 동심의 세계가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이 수안스님의 그림 세계. '나의 그림은 기도'라는 수안스님은 이 전시에 수묵화 채색화를 비롯, 금·은분을 사용해 그린 작품들을 다수 선보인다. 수안스님의 작품세계를 직접 들어본다.



소년소녀 가장돕기 불사 선묵전을 여는 수안스님 ▼

▲ 스님께서는 화폭을 대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마음이 된다고 하신 줄로 듣고 있습니다만.

– 그렇습니다. 기도는 뭇 중생들의 보약과 같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신 스님, 기도를 열심히 하신 신도님을 가까이 대하거나 모시다가 보면 마음 씀씀이가 따스하여 마치 봄볕에 녹아드는 얼음을 연상하게 됩니다.

시에 성불케 하여지이다.' 하는 발원으로 열심히 열심히 정진기도를 드립니다.

간혹 스케치 여행을 할 때는 공책과 연필을 준비하여 버스 안이나 기차 속에서나 대합실에서나 어디든 관계치 않고 반야심경을 열심히 쓰고 또 씁니다.

경을 쓰는 행위를 사경기도(寫經祈禱)라 합니다.

종교로 철학으로 예술의 승화로

제가 하는 기도는 목탁을 잡았든, 손에 붓을 들었든, 법당에서 하던 기도를 화실로 옮겼을 뿐입니다.

▲ 화실이 곧 법당이고 화폭이 선방인 셈이군요. 스님의 기도는 주로 화실에서 이루어지는지요?

– 아닙니다. 처처가 법당이요 선방입니다. 저는 장소와 환경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기도를 드립니다.

'나와 우리 이웃 모두가 한날 한

다시 고쳐 글로 쓴다면 곧 사경선(寫經禪)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경을 사경하는 기분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요. 그림이 곧 종교이며 철학이자 예술로 승화된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항상 부처님 전에 이렇게 발원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이나 갖는 이 모두가 성불하여지이다. 그리고 그 집 안팎에 부처님 자비광명이 소복이 쌓여져서 도든 식구가 화목하여지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 스님의 그림, 아니 그림이기보다 선화라고 해야 맞겠지요. 아무튼 스님의 그림에서는 향내음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과민한 것인지요.

– 그림 기도 올릴 때는 향 기름을 약간 얼굴의 급소에 바르기도 합니다. 향 기름도 있는가 하는 반문을 받기도 합니다만 향유, 향수, 가루향 등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 많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단향 백단향은 인도에서 많이 나며 침향은 월남 캄보디아 등에서 나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다 보면 소요되는 것들이 하나, 둘, 구해집니다. 제게는 그런 것들

경명주사 · 금가루 · 사향 · 녹각 등 희귀한 재료들도 기도를 드리다보면 저절로 입수

이 오랜 기도 중에 구해진 보배입니다.

▲ 다른 재료도 그렇게 해서 구해진 것이겠지요? 어떤 재료를 애용하시는지요?

– 그림 그릴 때 쓰는 물감 재료 또한 신비롭다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경명주사 · 금가루 · 사향 · 녹각 등'을 이용하여 그려진 그림은 그 하나 하나가 모두 신비롭고 새로운 보배입니다.

▲ 이번 전시회에서는 어떤 작품을 내놓으시는지요?

– 그림은 그리는 사람의 마음과 그것을 표현하는 여러 도구와 수단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림은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맑고 투명한 옥과 같은 기도입니다. 나의 그림은 사경 기도입니다. 그리고 신선한 부적이며 좋은 시이기도 합니다.

나의 그림은 우리들 가정의 보배인 어린아이입니다. 아빠, 엄마입니다. 아니 아니 우리들 부처님입니다. 한마음입니다.

이번 전시에 나가는 그림은 더욱 더 알찬 기도의 산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울산 한마음선원 혜안스님과 무경 황경환 거사님의 뜻이 같이 그림잔치에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 스님의 작품세계를 좋아하는 불자님들께 한말씀 하신다면…….

– 우리 이웃 여러분, 그리고 불자님 집 안팎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 올립니다. 그 뿐입니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보님께 열두 번 큰 절 올립니다.

영축산 통도사 사문 문수안이 우주를 감싸안듯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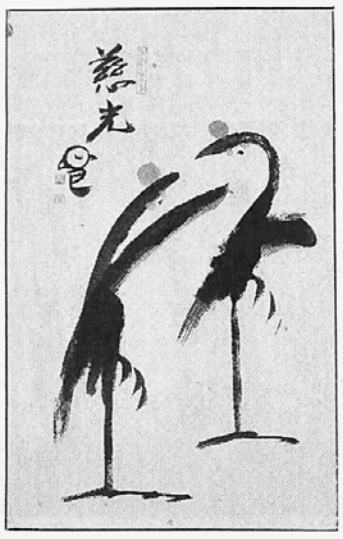
▶ 이번 수안스님의 선묵전에는 경봉스님의 「반야심경」, 「심우송」을 비롯, 여초, 월전, 금농 선생 외에 원명스님의 작품 들이 개인 소장가들의 희사로 출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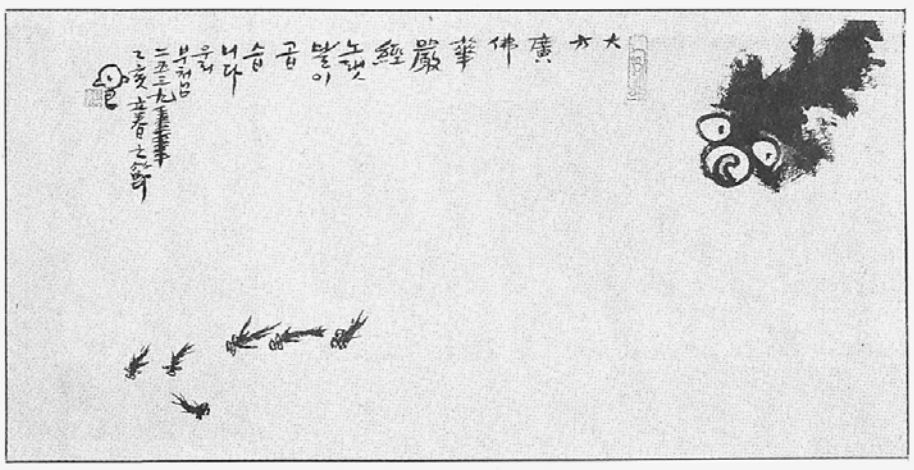
특히 「심우송」은 경봉스님의 작품 중 단 한 점만 남긴 작품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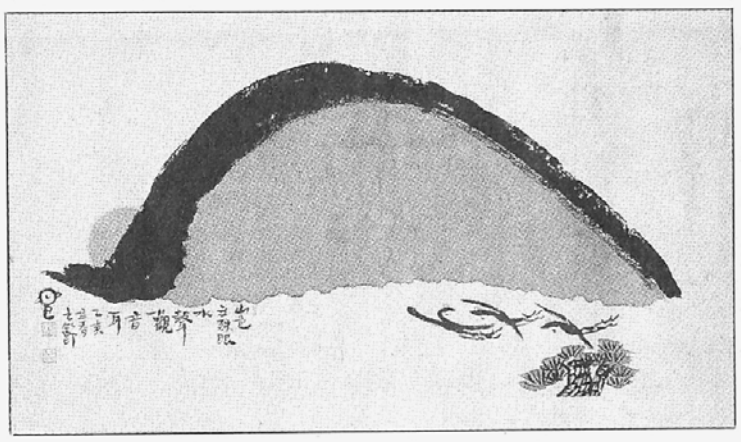
작가약력

1940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
1957년 출가(불교수행)
1964년 승려됨
1979년 이리 이재민돕기 선묵전시회를 부산 여성회관에서 갖다
1981년 부산 로타리회랑에서 개인전
한·중·일 고승 선묵전에 출품
1984년 부산 타워호텔, 울산 그랜드호텔, 대구 중앙화랑에서 개인전
부산 선암사 중창 불사 기금마련 전시에 출품
1985년 프랑스 한국문화원 초대전
모나코 몬테칼로 현대미술전 출품
1986년 서울 백상기념관에서 개인전
서울 중앙승가대학 건립기금 마련전
불광사 유치원 및 포교사 교육센터 건립기금 마련전을 디자인 포장센터(서울)에서 함
1987년 수원 봉녕사 도서관 건립기금 마련전을 세종문화회관에서 함
1988년 서울 목동 청소년회관 개관 기념작품(18m×2m)함
대구 중앙화랑에서 개인전
1989년 모나코 몬테칼로 현대미술전 출품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 초대전 (프랑스혁명 200주년기념)
모로코 카사블랑카, 라바에서 초대전
독일 서 베를린, 쾰른에서 초대전
1990년 서울 프랑스문화원 초대전
경인미술관 전시

미·리·보·는 지상갤러리 전·시·회









소년 소녀 가장 돕기 및 불사를 위한

수안 스님 초청 한마음 특별전

붓과 선(禪)의 만남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서는 **수안스님 초청 한마음 특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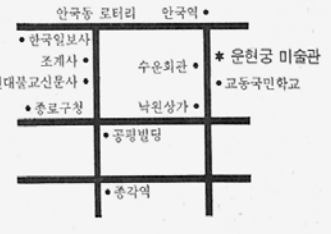
수안 스님의 붓과 어우러진 탈속의 세계로 들어서는 순간, 마음의 눈이 맑아져 지옥과 극락이 한생각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야말로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기심을 훌훌 벗어던지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싱싱한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돕기와 불사를 위한 **선묵전**은 물질적인 궁핍 때문에 삶 자체를 무거운 짐처럼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가슴 따뜻한 독려를, 그 따뜻함을 전하는 여러분에게는 정신적인 충만을 동시에 전해 줄 것입니다.

불기 2539년 4월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 원 장 혜 안
신도회장 황경환 합장

▌전시기간 : 1995년 4월 26일(수요일) ▶ 5월 2일(화요일)
▌전시장소 : 운현궁 미술관
▌개 회 식 : 1995년 4월 26일(수요일) 오후 2시 운현궁 미술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114번지 덕성여자대학교 운현미술관
▌전화 (02) 766-7967

▌주최 :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후원 :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 (주)삼주기계 – 대표이사 秋收旭
자동차 엔진 멋쇤 부품 · 자동화 기기 설계 제작 · 가공 전용기 설계 제작
본사 : 울산시 중구 효문동 750-1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